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8호 8월 2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6

# 근로자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잡 지

제8호 (129)

1956년8월25일


## 내 용

# 조선 인민의 위대한 민족적 명절

八•一五——어 날은 조선 인민이 영원한 날을 두고 해방과 자유를 노래하는 민족적 명절날이다。조선 인민은 뜻깊은 이 날을 경축하면서 조선 인민의 해방자이며 원조자인 위대한 쏘련 인민과 쏘련 정부와 쏘련 공산당에 전 인민적 감사와 최대의 영예를 드린다。

또한 전체 조선 인민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조국의 해방과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외래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영용하게 싸우다가 희생된 애국 렬사들과 선배들에게 영생 불멸의 영광을 드린다。

해마다 돌아 오는 八월의 명절——해방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의 날이며 행복에 대한 빛나는 전망의 날을 언제나 크낙한 기쁨과 감격 속에 기념하여 온 조선 인민은 올해의 이 날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엄한 투쟁 속에서 의의 깊게 맞이하고 있다。

실로 지난 一년 동안은 우리 인민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가지가지의 사변들과 조국의 대지 우에 이루어진 크고 빛나는 변화들로 가득차 있다。

지난 一년간의 조선 인민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 사변, 그것은 력사적인 우리 당 제三차 대회이다。

지난 四월에 소집되였던 조선 로동당 제三차 대회는 새 조선의 인민이 쟁취한 그 모든 빛나는 성과들을 자랑스럽게 총화하였다。대회는 우리 인민의 생활과 우리 나라 발전의 모든 기본적인 측면들을 해명하고 우리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영생 불멸의 맑스——레닌주의 횃불로 더욱 명확히 비쳐 주었으며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한 웅장하고 위대한 강령을 제시하였다。

대회는 해방후 一一년이 지난 오늘도 아직 조선 인민이 해결하지 못한 최대의 아픔으로 되고 있는 민족 분렬, 국토 량단을 청산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실천 방도를 제시하였다。

동일한 혈통을 이어 받은 한 나라 한 민족인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는 이 일대 민족적 참극에서 하루 속히 벗어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는 날이 없는 남북의 조선 인민들은 대회 선언에 고무되여 조선 사람 자체의 손으로, 협상의 방법으로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고자 성스러운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 五월 하순에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 확대 회의는 대회 선언에 제시된 통일 방안을 지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전 조선 각계 각층 인민들에게 호소하였으며 七월 초에는 이전 남조선 정치 활동가들이 재북 평화 통일 촉진 협의회를 조직하고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분연 궐기하였다.

오늘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결속된 조선 인민의 통일과 단결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 북반부 인민들은 조국 통일의 물질적 담보인 북반부에 행복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경제 문화 건설에서 더욱 더 강력한 앙양을 보이고 있으며 남조선에서도 평화 통일의 기세가 드높아가고 있다. 「정부통령」 선거에서 리 승만 도배에 대한 불신임을 표시한 남조선 인민들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파업, 시위, 동맹 휴학 등을 단행하여, 투쟁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회』 의원들 속에서도 리 승만 도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날로 크게 울려 나오고 있다.

이 모든 사실, 이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이 가지는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이 이미 성숙된 문제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 어떠한 힘으로도 억눌을 수 없는 조선 인민의 불길같은 념원인 조국의 평화 통일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종 일관한 정책을 실시하여 온 공화국 정부는 최근에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하고 대담한 대책——八월 말까지 조선 인민군 병력중에서 八만명을 축소시키는 대책을 취하였다. 공화국 정부의 금번 조치는 국내적 분위기를 완화하고 보다 유리한 평화 통일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대책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확한 정책에 무한히 고무되고 있으며 국제적 벗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 인민이 더욱 굳게 단결하여 기세높은 투쟁으로 력사적 숙망을 달성하고야 말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평화 통일을 절절히 념원하는 우리 인민은 북반부 경제 건설에서의 승리적 성과가 가져올 자신들의 행복한 미래를 뚜렷이 내다보면서 창조적 로력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있는 바 우리 인민이 달성하고 있는 새로운 로력적 승리의 개가는 지금 해방 열 한 돐을 기념하는 우리 나라 방방 곡곡에서 우렁차게 울리고 있다.

북반부 근로자들에게 三개년 계획을 四개월 기간 단축하여 완수할 것을 호소한 흥남 지구 공업 기업소 로동자들은 지난 六월중에 벌써 三개년 계획을 각각 완수하였으며 특히 농촌 경리에 더 많은 화학 비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궐기한 흥남 비료 공장 로동자들은 지난 八월 一〇일에 三개년 류안 비료 생산 계획을 二배로 초과 완수하였다.

三개년 계획을 二년 八개월에 초과 완수하고자 한 이들의 애국적 발기에 한결같이 호응 궐기한 우리 나라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중첩된 난관과 애로들을 극복하고 영웅적 로력으로써 영광스러운·민족적 명절——八·一五 해방 一一주년을 앞두고 八월 一四일 현재 자기들에게 맡겨진 三개년 공업 생산 계획을 총량적으



로 완수하는 빛나는 위훈을 달성하고 계속 그 성과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근로자들의 앙양된 로력적 열의와 기술적 장성에 의하여 一九五六년 상반년 공업 총 생산액은 一九五五년 상반년에 비하여 二九%가 더 증가되였으며 이 기간에 로동 생산 능률은 一九%나 제고되고 원가는 八%가 저하되였다.

우리 근로자들의 창발적 발기에 의하여 一九五六년 상반년에만도 四천 九백여건의 창의 고안이 생산에 도입되였으며 四五미리메터 산형강, 착암기, 청초 절단기 등을 비롯하여 금속 절삭 공작 기계, 기계 부속품, 섬유 제품, 일용품, 의료 기구 및 의약품 기타 생산 부문에서 적지 않은 신제품들이 생산되였다.

농업 생산 특히 알곡 생산을 크게 증가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돌리고 있는 두터운 배려 밑에서 一九五六년 상반년에도 계속 대규모적인 관개 하천 공사가 진행되였다. 이 기간에 평남 관개 제二계단 공사, 승호 및 강남 지구를 비롯한 二四五개소의 대규모적 관개 공사들과 두만강을 비롯한 七二개소의 대규모적 하천 공사가 준공되여 二만 정보의 밭이 논으로 전환되고 二만 三천 정보의 수리 불안전답이 억년 가물을 모를 수리 안전답으로 되였다. 특히 이 기간에 예로부터 메마른 땅으로 이름났던 광활한 열두 삼천리벌에 물을 대는 평남 관개 공사가 준공되였는 바 이는 우리 시대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자자 손손 길이 자랑할 우리 인민의 창조의 열매의 하나이다.

인민의 복리 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오늘 전쟁의 피해를 씻고 일어서는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는 크나한 앙양이 파도치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을 부단히 실시하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최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인상할 데 관하여서와 대중 소비품의 국정 소매 가격을 인하할 데 관한 내각 결정을 각각 채택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급격히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 대책을 취하였다.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현재 수입액에 비하여 三五% 인상시키며 면직물, 견직물, 양말, 고무신, 운동화, 전구, 법랑철기, 의약품을 비롯한 각종 인민 생활 필수품들의 국정 소매 가격을 현저히 인하시킨 금번의 시책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은 년간에 약 一二〇억원의 막대한 리득을 보게 될 것이다.

특히 이것이 전쟁에 의하여 인류 력사상 전대 미문의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우리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건설하며 전쟁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실로 막대한 국가적 자금의 부담이 가로 놓여 있는 극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취하여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인민의 리익과 행복의 진정한 옹호자인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그 얼마나 깊고 큰 배려를 돌리고 있는가 함을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八·一五 해방 一一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온갖 가능성들을 다 리용하며 거대한 배려를 돌리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자기들의 로력 성과가 직접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조성한다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三개년 계획을 더욱 초과 완수하며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준비 및 실행을 성과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지혜를 발휘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우리 인민이 달성하고 있는 이와 같은 찬란한 성과들——이것은 우리가 머지 않아 착수하게 될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하리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 당이 조선 인민 앞에 내세운 거족적인 과업——우리 인민의 의지와 념원과 지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음으로 하여 우리 가슴을 그렇게도 격동시키고 있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一차 五개년 계획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크며 우리의 과업은 중대하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근본적 리익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 있는 이 거대한 계획이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를 받고 있으며 형제적 인민들의 사심없는 원조를 받고 있는 우리 나라의 로동자、농민、인테리겐챠들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빛나게 실행되리라는 것을 충분한 자신심을 가지고 확언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주의의 승리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八·一五 해방 一一주년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최근 김 일성 수상을 수반으로 한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의 형제적 나라 친선 방문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감격적인 소식——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 인민들이 또 다시 우리에게 새롭고 방대한 물질적 원조를 준다는 소식에 접하여 승리의 신심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우리의 해방자인 위대한 쏘련이 그 선두에 서 있는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진영의 대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영예와 행복을 더욱 자랑스럽게 느끼고있다。

위대한 쏘련은 이번 또 다시 막대한 자재 시설들과 식료품、대중 소비품 등의 원조를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으며 기타 형제 국가들에서도 우리에게 원조를 더욱 계속하며 우리 나라와의 경제 및 문화적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할 것을 약속하였다。

형제 나라 인민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 새롭고 방대한 원조、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 복구 건설과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다。

오늘날 불패의 사회주의 진영의 대가정의 일원인 조선 인민은 이 진영 나라 인민들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적 친선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여기고 그에 영원히 충실할 것을 맹세하고 있으며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형제적 나라 인민들이 주는 거대한 원조에 보답할 투지와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다。

그것은 조선 인민이 우리 당의 령도하에서 오늘 진행하고 있는 투쟁——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한 투쟁이 비단 우리의 민족적 과업 수행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적 과업 수행에 있어서도 크나 큰 기여로 된다는 것을 명백히 리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위대한 해방 명절 一一주년을 맞이한 커다란 감격과 기쁨으로 들끓고 있다。

우리 인민은 자기 발전에서 가장 거대한 의의를 갖는 위대하고 보람찬 길을 전진하면서 이 날을 평화적 조국 통일의 실현을 위한 전 민족적 단결의 기치 밑에서、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로력의 성과를 확대시키는 투쟁 속에서、그리고 위대한 쏘련 인민을 비롯한 모든 형제적 나라 인민들에 대한 감사와 친선의 지극한 정을 새롭게 하면서 맞이하고 있다。

물론 우리 인민이 나아가는 길 우에는 적지 않은 난관과 장애물들이 가로 놓여 있다。 그러나 해방후 一一년 맑스—레닌주의 기치 밑에서 온갖 어려운 고비 고비를 영웅적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여 왔으며 또 승리하고 있는 우리 인민은 정복 못할 요새나 타개하지 못할 난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난관들을 극복 타개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위대한 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승리의 조직자이며 진정한 민족적 리익의 기수인 조선 로동당과 혁명 수행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 정권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그 주위에 한결같이 단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위대한 쏘련 인민을 비롯한 전 세계 우리의 벗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하면서 지난 기간에 달성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건설 사업을 승리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를 부단히 높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일층 견결히 투쟁하여야할 것이다。

백전 백승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 인민들과의 형제적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하면서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건설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하게 전진하는 우리 조선 인민 앞에는 반드시 더 큰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이다。

승리는 우리 조선 인민의 수중에 있다。

조선 로동당 제三차 대회 결정을 받들고 보다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다

리 승 준

조선로동당 제三차 대회는 총결 기간에 우리 당이 걸어온 빛나는 승리의 길을 과학적으로 분석 총화하였으며 당과 전체 조선 인민 앞에 제기되는 기본 임무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명확한 강령을 제시하였으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대책들을 내 세웠다。

우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당의 성격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이 하는 것은 커다란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 저러한 당의 성격은 그가 어떤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부르죠아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은 부르죠아 당이며 소 부르죠아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은 소 부르죠아 당이며 로동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은 로동 계급 당이다。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맑스—레닌주의 당은 그의 선진성으로 말미암아 로동 계급 뿐만 아니라 전체 피압박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한다。

그러나 모든 정당들이 다 자기가 이러 저러한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니다。착취 계급들에 복무하는 반동적 정당들은 자기의 계급적 본질을 교묘하게 음폐하는 것이다。지어 리 승만 도배의 자유당까지도 뻔뻔스럽게 자기를『독점 경제과의 억압과 착취를 물리치고 로동자、농민、소시민 량심적 기업가 급 기술 있는 자의 리익을 도모』하는 당이라고 가장하여 인민 대중을 기만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레닌은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기만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며 부르죠아 및 소 부르죠아 당들의 계급적 진상을 폭로하면서 그들이 선포한 구호 또는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통하여 그들을 검열할 것을 가르쳤다。



부르죠아 및 소 부르죠아 정당들과는 정반대로 우리 당은 모든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당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계급적 성격과 투쟁 목적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였으며 실천을 통하여 그의 정당성은 이미 검열되고 확인되였다。

* * *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서의 우리 당은 조선 민족과 조선 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력사적 경험은 계급 투쟁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각 계급의 각 정당에로의 결속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과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의 전위로서의 당을 가지지 못하고서는 피압박 대중을 지도하여 정권을 쟁취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과 동시에 프로레타리아 혁명적 당의 창건은 프로레타리아 뿐만 아니라 전체 피압박 대중의 해방 투쟁의 승리의 기초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의 발생 및 발전은 一九二五년에 당 창건을 이룩하게 하였으며 그가 해산된 이후에도 프로레타리아 혁명적 당 창건의 과업은 민족 해방 운동과 로동 운동의 성과적 진척을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으로 되였던 것이다。

一九三〇년대 이후 맑스—레닌주의 사상 리론、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에 기초하여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된 민족 해방 운동과 로동 운동은 당 창건에 대한 요구를 더욱 중요하게 제기하였다。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의 영용한 항일 민족 해방 투쟁을 지도하는 한편 맑스주의 당 창건을 위한 거대한 조직—사상적 준비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八·一五 해방후 조선 로동 계급과 인민 대중의 혁명적 기세는 고도로 앙양되였으며 반제 반봉건적 혁명 과업을 완수하며 우리 나라에 새로운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할 과업이 제기되였다。이는 필연적으로 로동 계급의 단결을 실현하며 그 주위에 광범한 혁명적 민주 력량을 결속할 수 있는 강력한 혁명적 당을 요구하게 되였다。

이러한 력사적 요구에 순응하여 우리 당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는 기초 우에서 창건되였다。이렇게 창건된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당이다。그러나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력사적 조건과 경제적 발전 수준에 의하여 자체 발전에서 대중적 특성을 가진다。

지난 제三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규약 제一장에는 우리 당의 계급적 성격과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선포되여 있다.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다. 조선 로동당은 조선 민족과 조선 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 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 등 모든 근로자들 가운데서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선진적 투사들로써 조직한다.

조선 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의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일본 및 기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조선 인민의 혁명적 전통의 계승자다.

조선 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우리 당은 그가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 당인 까닭에 로동 계급 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 대중의 리익을 옹호한다.

당은 조선 혁명 발전에 대한 내외의 적들과 종파주의, 기회주의자들의 그릇된 로선과 견해를 반대하면서 조선 혁명의 반제, 반봉건적 성격을 규정하고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투쟁 강령으로 당과 인민을 무장시켰다.

이와 함께 당은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가 남조선에 상륙한 후 감행한 식민지 략탈과 민족 분할 정책으로 말미아마 복잡화된 조선의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 북반부에 강력한 민주 기지를 창설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며 우리 나라를 부강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혁명적 제 대책을 취하였다.

당은 이러한 정책으로써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하여 전체 인민 대중을 결속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면서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의 제 과업을 짧은 기간내에 완수하고 부강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우리 당의 이러한 정책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부강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념원하며 자기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행복한 물질 문화 생활 향상을 요구하는 조선 민족과 조선 인민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였으며 되고 있다.

당의 이러한 정책과 지도하에서 북반부의 인민들은 전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벌써 자기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있어서 『황금』 시대를 체험하게 되였으며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는 외래 제국주의 무력 침략자들과 리 승만 매국 도배들의 무력 침략으로부터 우리 조국의 자유 독립과 우리 민족의 영예를 수호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은 자기의 강령에서 선포한 바와 같이 조국



통일과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옹호하는 가장 철저하고 용감한 투사이며 인민 대중의 물질 문화 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국내 사회 경제 정책, 문화 정책 및 대외 정책 등 모든 정책은 여기로부터 출발되고 있다.

당은 전후 시기에 있어서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침략 정책을 물리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며 전쟁에서 고통 받은 우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북 조선의 전체 애국적 민주 력량의 결속과 조국의 평화 통일 정책을 실시하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조직 지도하고 있다.

전후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거대한 성과들과 전쟁에서 혹심하게 파괴되고 령락되였던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과 제三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선언서를 포함한 제 결정에 대한 남북 조선 인민들의 일치한 지지는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강력한 생활력을 또 한번 과시하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

이러한 우리 당의 정책을 지지하며 단결하여 당의 지도하에 전진하는 조선 인민은 반드시 조국의 통일 독립을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 * *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당이다. 자기의 실천적 활동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며 당내에 기회주의를 용허하지 않은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적 당 조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당 조직 형태와 사업 방법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제기된 혁명 임무 수행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공산당으로부터 로동당으로의 우리 당의 발전은 그의 가장 훌륭한 실례로 된다.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함으로써 우리 당은 자기의 계급적 토대를 더욱 확대하였으며 광범한 근로 대중 속에 당의 뿌리를 튼튼히 박고 일체 혁명 력량을 당의 주위에 결속시키는 길로 나아갔다.

당 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이러한 조직 로선은 날로 악랄해 가는 미제의 침략 정책과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을 파괴하려는 적들의 내외로부터의 공격 등과 관련하여, 조성된 정세와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 혁명의 완수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임무와 그리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실시된 민주 개혁의 결과에 변화된 계급적 사회적 제 관계, 그의 앞으로의 발전의 전망 등등 제 조건들을 맑스주의적으로 분석 타산한 가초 우에서 취해진 것이였다.

당은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함으로써 로동 계급 뿐만 아니라 조국의 통일 독립과 부강한 인민 민주주의 국

가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근로 농민 및 인테리들의 우수한 선진 분자들을 자기의 대렬에 광범히 조직 망라하였다。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대하여서와 우리 당에 대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가진 악랄한 비방과 외곡과 중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벌써 전쟁전 시기에 八五만 여의 강대한 대오로 장성되였으며 그에는 로동 계급을 비롯하여 많은 선봉적 근로 농민과 인테리 대중이 망라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강대한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 되였다。

당의 이러한 조직적 력량은 각계 각층의 애국적 혁명 력량을 당의 주위에 집결하여 인민 대중 속에서 당 정책의 성과적 실행을 조직하는 강력한 물질적 힘으로 되였으며 되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하는 현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의 대중적 특성은 역시 당 건설과 혁명 임무수행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적、조직적 부대로서의 로동당의 대중적 특성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조직적 구성 성분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다。

一九五六년 一월 현재 우리 당의 사회 성분 구성을 볼 때

로동자 二二·六%
빈 농 五六·八%
중 농 三·七%
사무원 一三%
기 타 三·九%로 되여 있다。

우리 당의 이러한 조직적 구성 성분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력사적 정세와 이로부터 흘러 나온 당의 임무에 따라 그 임무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당의 조직적 구성 형태 및 그 사업 방법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맑스—레닌주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사상—조직적 원칙 그 자체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당의 성격 문제에 있어서 당원의 사회 성분만으로는 일체를 결정하지 못한다。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정책、정치 투쟁과 정치 생활이며 당의 사상 교육 및 사상적 령도와 정치적 령도인바 우리 당의 강령 및 당의 조직 원칙과 그의 확고한 실행은 로동 계급의 사상과 로선이 당내에 관철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 당은 조선 민족과 인민을 위한 자기의 투쟁 강령、전략、전술、자기의 정책을 작성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주관적 욕망이나 희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 발전 법칙과 인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하고 있다。 우리 당은 세계 로동 계급 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국제 혁명 운동과의 련계하에 일제와 기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한 조선 인민의 혁명 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그 투쟁 행정에서 검열되였으며 단련된 혁명 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맑스주의 당 조직 원칙에 확고히 의거하여 건립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발전 강화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 당인 우리 당이 능히 계급 투쟁을 지도할 수 있는 수령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하려면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한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대로 되여야 하며、유일한 강령、유일한 전략과 전술、유일한 규률에 의하여 결속된 근로 대중의 조직된 부대로、그의 조직의 최고 형태로 되여야 하며、전투력과 힘의 기본 조건으로 되는 당의 통일을 보존하여야 하며、자기 대렬내에 강철같은 규률을 실시해야 하며、기회주의와의 타협없는 투쟁을 진행하면서 당 대렬 내의 기회주의 분자들을 청결하여야 하며、비판과 자기 비판의 무기로써 자기의 오유와 결함들을 과감하게 폭로 시정해야 하며、당의 위력의 원천으로 되는 당과 인민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하며、각급 당 지도 기관들에서 레닌적 집체적 지도 원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의 모든 경험은 우리 당이 이러한 맑스주의적 당의 조직 원칙、레닌적 당생활 규범에 충실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당은 자기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 왔으며 수백만 근로 대중을 직맹、민청、녀맹 및 기타 광범한 대중 단체에 조직 집결하여 그 조직들을 지도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집체적 지도 원칙을 견지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종파、간첩 분자、기타 각종 형태의 적대 분자들과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특히 우리 당 발전의 력사는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종파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당내외의 온갖 원쑤들을 반대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우리 당의 력사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우리 당이 자기 대렬의 사상 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당 정책과 로선의 성과적 실천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간주하여 왔다는 것과 당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서 특히 종파주의자들과 박 헌영、리 승엽 간첩 도당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三차 확대 회의、로동당 창립 대회、제二차 당 대회、전쟁 시기에 소집되였던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三차、제四차、제五차 전원 회의들、그리고 전후 시기에 소집되였던 제六차、四월 전원 회의、一二월 전원 회의들과 제三차 당 대회가 가지는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리해하고 있으며 당내에 침습하려는 자본주의 사상、당내에 잔존하는 낡은 사상 잔재와 종파주의 잔재를 반대하여 오늘 당이 진행하고 있는 투쟁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三차 대회에서 하신 총결 보고 가운데서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 진행한 우리 당

의 투쟁을 총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북반부에서는 장구한 항일 혁명 투쟁에서 단련되고 맑스—레닌주의로 무장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당을 지도하였으며 당은 창건 첫날부터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튼튼히 의거하여 그 사상으로 당원들을 교양 훈련하였습니다。

특히 당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심중한 주의를 돌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박 헌영、리 승엽 간첩 도당들과 종파분자들——필자)의 파괴적 행동이 제아무리 교묘하다 하더라도 남반부에서와 같이 우리 당을 와해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당은 전쟁 시기에 자기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며 사상 의지의 일치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습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소집되였던 제三차、제四차、제五차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확대 회의들은 당내 순결성을 강화하며 통일을 보존함에 있어서 력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은 자기 대렬의 순결성과 사상 조직적 통일과 단결을 위하여 종파、간첩 및 온갖 원쑤들、일체 비프로레타리아 사상 잔재와 타협없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당내에 망라된 광범한 당원들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 사상 교양과 당성 단련을 진행하여 소 자산 계급 출신 당원들로 하여금 그 사상을 철저히 개조하게 하며 그 본래의 소 자산 계급적 사상 의식을 개변시키여 열렬한 혁명 투사로、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자로 육성하였으며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적 대중적 정당으로서의 발전은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 있어서 모든 성과와 승리의 기초로 되였으며 또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조선 로동당은 一一六만 이상의 당원들을 자기 대렬에 망라하고 있는 위력한 당으로 강화 발전되였다。

우리 당의 령도적 역할은 국가 활동의 전반적 분야에 걸쳐 비할 바 없이 제고되였으며 당과 인민 대중과의 련계는 무한히 강화되였다。 인민 대중은 우리 당 주위에 굳게 단결되였으며 자기의 모든 희망과 운명을 우리 당에 위탁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지도하에 공화국 북반부를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며 앞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강력한 혁명의 원천지로 전변시켰으며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무력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와 그리고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력사적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또 쟁취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이 실시한 옳바른 정책과 꾸준한 조직 사업과 맑스—레닌주의적 교양하에서 위대한 사회적 개혁을 실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상 의식까지도 개변시켰다。



오늘 맑스—레닌주의 사상은 조선 인민의 지도적 사상으로 되고 있으며 조국에 대한 헌신성과 충실성、열렬한 애국주의와 제 인민간의 친선과 평화에 대한 사상、프로레타리아의 국제주의 사상、로동과 국가 및 사회 재산에 대한 새로운 태도、목적 달성에서의 창조적 자주성과 불굴성、난관에 직면하여 퇴각하지 않는 견결성과 수완 등은 조선 인민의 고상한 품성으로 되고 있다。 오늘 당은 조선 인민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방대하고도 복잡한 과업 해결에로 인도하고 있다。

❋ ❋ ❋

우리 당의 부단한 강화 발전、당과 인민과의 혈연적 련계의 강화、조국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더 큰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성격을 더욱 깊이 리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당 조직 정치 사업에서 제기되는 실천적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하는 것이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자기의 실천적 사업에서 우리 당 단체들과 지도 일꾼들이 우리 당의 대중적 특성을 망각하거나 과소 평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흔히 좌경적 오유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한때 혁명의 변절자 허가이를 비롯하여 일부 당 단체들과 당 일꾼들이 구체적 환경과 우리 당의 대중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당 장성 사업을 포함한 당 조직 사업에서 엄중한 좌경적 오유를 초래하였던 것은 주지의 실시이다。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서의 우리 당의 대중적 특성은 그에 따르는 우리 당 사업 방법을 규정지어 주는 바 그것은 당 단체들이 일상적 당 조직 정치 사업、기타 모든 실천적 사업에서 심중히 참작하야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당원은 자각적 분자이며 당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의 현존 의식 정도를 충분히 참작하지 않고 내려 먹이는 거기로부터 당 결정 실행에서 엄중한 오유와、결함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맑스주의적 당 사업 방법이 그러하지만 우리 당 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완강한 인내성과 치밀한 정형 연구와 세심한 해설 설복 교양 사업이 요구된다。

장기간에 걸친 일제 식민지 통치의 악결과로 말미암아 근로 대중의 계급 의식이 비교적 낮으며 해방 후 오늘까지 계속 내외의 적들과 상치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당 력사가 길지 않은 우리 당이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 구성과 당 발전에 일정한 복잡성을 조성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당의 질적 구성이 비교적 낮으며 지난 시기 일련의 중요한 사업 과정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은 당 내에서 프로레타리아적 사상 의식과 소 자산 계급적 사상 의식 간의 모순은 다른 여러 조건들과 함께 바로 우리 당의 대중적 특성과 특히 관련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단체들과 지도 일꾼들은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당원들의 의식 수준과 자각 정도를 심중히 고려할 것과 소 자산 계급적 사상 의식을 극복하고 프로레타리아 사상 의식과 규률이 전 당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단한 관심과 로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당은 바로 대중적 정당으로서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서 당 생활의 강화, 당내 계급 교양 사업의 강화, 당원들의 당성 단련과 비판과 자기 비판의 발전, 당 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의 근절, 당 열성 핵심의 육성과 그 대렬의 부단한 확대 강화, 당적 지도에서 설복과 해설 및 혁명적 군중 관점 확립에 대한 높은 요구 등등 일련의 실천적 대책들을 제기하고 그의 옳바른 해결을 위하여 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과 지도 일꾼들은 우리 당의 대중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데로부터 당원들의 수준을 고려함이 없이 함부로 내려 먹이며 대상의 준비 정도와 구체적 환경도 고려함이 없이 당 책벌을 람용하며 당원들에 대한 교양 사업과 당 생활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조직 지도하고 있다.

당내 정형을 세심히 조사하지 않으며 정형에 부합되는 사업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꾸준하게 당원 대중을 교양 훈련하는 인내성이 없이 일면적인 재료와 이미 하던 낡은 사업 방법으로 조급하게 성과를 달성하려는 그릇된 사업 태도 등은 당 결정 실행에서 결함과 오유와 형식주의, 도식주의의 발생의 중요 원인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과 투쟁하면서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정치적 교양, 당 결정 실행을 위한 경제 조직적 제 사업을 항상 당 단체들의 정형과 당원들의 준비 정도에 부합되게 창조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김 일성 동지의 다음과 같은 교시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은 력사적 조건과 경제적 발전 수준에 의하여 자체 발전에 있어서 자기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각급 당 단체들은 여기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의 조직적 원칙과 당 정치 로선에 립각하여 대중과의 보다 긴밀한 련계 밑에 당을 대중적 당으로 장성시키며 당 단체를 강화하고 당원들의 당성을 제고시키며 자체의 지도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는 방향에서 당 조직 사업과 당 정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은 우리 당의 대중적 성격을 충분히 리해하지 못하며 우리 당의 력사가 청소하고 당원들의 정치 수준이 어린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래 동안 일제 통치에서 남은 사상 잔재와 국내 투쟁의 복잡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함이 없이 당원들을 마치 완성된 맑스—레닌주의자로 간주하고 수준에 넘치는 요구를 그들에게 제기하는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김 일성 선집』 三권 二九五폐지).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당의 대중적 정당으로서의 특성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당의 대중적 특성이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본질과 분리되거나 그에 대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적 정당으로서의 특수성을 맑스—레닌주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전체성과 분리시킬 때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이러저러한 우경적 오유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시기 일부 당 단체들이 당 조직을 확대한다 하여 입당 사업에서 개별적 절차를 위반하고 모집식 방법으로 입당 사업을 진행한 사실은 그러한 례의 하나이다.

그러한 현상은 확실히 레닌적 당 조직 원칙에 대한 란포한 위반이며 당을 계급의 대해 속에 침몰시킬 수 있는 엄중한 경향인 것이다.

대중적 특성을 우리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본질에서 분리하여 일면적으로 리해하고 사업하는 것은 당에 위험한 현상이다.

현재 우리 당 내에 신입 당원들이 많고 따라서 당원들의 정치 사상적 수준이 비교적 어리다 하여 결함에 대한 원칙적 투쟁을 미약하게 하거나 과소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 당은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대인 까닭에 레닌적 당 조직 원칙과 당 생활 규범의 사소한 위반이라도 허용되거나 묵과된다면 그것은 큰 오유이다.

우리 당 당원들의 질적 구성이 비교적 어린 바로 그 까닭에 당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교양과 결함에 대한 원칙적 투쟁을 그들의 준비 정도에 부합되게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우기 당내에는 과거 오래 동안 계속되여 온 악독한 종파 잔재의 여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우리 당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각종 교묘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당내에서 경각성과 당원들의 당성과 계급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체 부정적 발현들을 근절하기 위한 원칙적 투쟁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 당 단체들은 일상적으로 이러한 제 문제들에 대하여 신중한 주의를 돌릴 것이 요구된다.

우리 당이 계속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여 가고 있는 조건하에서 당의 강철같은 규률과 당의 순결성과 통일의 강화, 당내 민주주의와 비판과 자기 비판의 발양, 개인 숭배 사상의 반대와 집체적 지도 원칙의 강화 및 기타 등등의 레닌적 조직 원칙과 당 생활 규범의 철저한 관철이 가일층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선봉대로서의 우리 당은 전체 인민 대중과 모든 대중 단체를 능숙하게 령도하여 우리 인민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에로 더욱더 힘차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경제적 및 과학 기술적 련계 강화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필수 조건

리 종 옥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창조적 로력을 경주하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를 력방하고 돌아온 우리 정부 대표단의 친선 방문은 우리 나라와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들 간에 현존하는 친선과 경제적, 과학—기술적 련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형제적 국가 정부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모든 문제에 있어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나라들과의 경제적, 과학—기술적 련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동지적 협조와 호상 원조의 관계에 립각하여 체결되였는 바 그에는 정치, 경제 및 과학 기술 등의 부문들이 포괄되고 있다.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 간의 경제적 련계는 자본주의 진영 나라들 간의 경제적 련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경제적, 과학—기술적 련계는 호상 륭성 발전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또 그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련계의 튼튼한 기초로 되는 것은 이 나라들에서의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지배이다.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이 지배적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호상 관계에는 경제적 팽창에 대한 지향이 있을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에 의한 아직 덜 발전한 나라들에 대한 략탈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부등가 교환이나 경쟁 등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또 존재할 수도 없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 간의 경제적 호상 관계는 이에 망라된 매개 나라들의 경제적 및 과학—기술적 발전 수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호상 협조와 원조에 의한 전면적 앙양을 달성하려는 공통적 지향에 의하여 특징지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 간의 경제적, 과학—기술적 련계의 확대 강화와 호상 원조는 이 진영 매개 나라들의 인민 경제의 앙양과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것은 이 나라들이 모두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때문에 이 진영 나라들 간의 경제적 련계는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에 의거하고 있으며 그 법칙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 간의 경제적 련계의 목적은 높은 기술적 토대 우에서 사회주의적 생산의 부단한 장성 및 완성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이 진영의 개별적 나라들의 인민 경제를 호상 보충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제적 련계는 비단 무역 통상 령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그것은 과학—기술적 협조와 생산적 경험의 교환에 의해서와 일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주는 직접적, 생산적 원조에 의해서도 실현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토대 우에서 사회주의적, 국제적 분업과 호상 원조의 뉴대로써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 인민들을 련결시키고 있는 사회주의적 세계 경제 체계가 발생하여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들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세계 경제 체계의 경제적 련계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와의 호상 협조의 관계를 강화하며 우리에게 물질 기술적 원조를 주고 있는 바 이것은 조국 해방 전쟁 시기와 전후 시기에 더욱 확대 강화되였다.

쏘련은 우리 나라를 포함한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 전면적인 원조를 주고 있다. 쏘련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각종 기계와 생산 설비, 기술 문건의 제공, 중요 원료의 공급, 지질 탐사, 기업소 건설의 방조, 기술자의 양성 등 각종 물질—기술적 방조를 주고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기타의 나라들도 우리 나라와 호상 협조 및 원조를 강화하면서 물심 량면의 방조를 주고 있는 바 이는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과 우리 나라와의 우호적 협조 및 호상 원조 관계의 강화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완성을 촉진하며 또 이 기초 우에서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부단한 향상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대량적으로 생산되는 물자로서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요구되는 물자들을 수출하며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촉진하는 투쟁에서 얻은 우수한 경험들을 소개함으로써 그 나라들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협조와 과학 기술적 련계의 강화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인민들의 협조는 더욱 강화 발전되고 있다。

사회주의、진영 제 국가와의 경제적、과학、기술적 협조의 발전——이것은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제 요구에 적응하여 그를 더욱 성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준다。 왜냐 하면 이 협조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생산의 부단한 장성 및 완성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주의 진영 전체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생산의 부단한 장성 및 완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대외 경제 관계 령역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 법칙들의 작용은 이 국가들의 내부에 있어서의 그것들의 작용과는 구별된다。

오늘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는 국내의 풍부한 자연 부원 및 경제적 조건들의 합리적 리용과 형제적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조 강화를 전제로 하는 통일적 국가 계획에 의하여 지도되며 그 기초 우에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민 경제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독립적、자주적 국가 경제로 발전하면서 사회주의 진영 경제 체계의 한 구성 부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지어져 있는 그러한 경제 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사회주의적、국제적 분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우리의 인민 경제 계획을 그에 밀접히 련결 및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잘 리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대외 경제 관계 령역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제 요구는 특수한 방식으로 실현되는 바 그것은 장기 통상 조약、지불 협정、크레지트 제공에 관한 조약과 과학—기술적 협조에 관한 협정 등 개별적 형태의 경제 협조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 체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 생산물의 생산 계획들을 더욱 더 호상 조화시키는 문제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을 구성하고 있는 매개 개별적 나라의 인민 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계획적 협조를 확대 심화하여야 할 객관적 필연성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만일 이 객관적 필연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매개 나라들의 인민 경제 발전에서 투자가 비합리적으로 또 비경제적으로 배정되게 될 것인 바 이것은 생산과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템포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의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한 전망 계획의 국제적 조절과 사회주의적 분업의 보다 효과적인 리용은 개별적 나라들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와 자본주의 제 국가와의 경제적 경쟁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더욱 중요한다。

실로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 간의 인민 경제 계획의 조절은 력사상에서 처음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과업이다。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은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인민들의 생활에서 작용하는 중요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경제적 협조는 새로운 사회주의적、국제적 분업을 반영한다。 자본주의적 국제 분업은 자본주의 나라들의 지배와 식민지 및 예속국들의 경제적 락후성을 동반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적、국제적 분업은 이와는 달리 개별적 나라들의 경제적 발전 수준상에는 관계 없이 매개 나라들의 국가적 자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전반적、계획적 발전과 이 진영에 참가한 나라들의 전반적 계획적 발전을 보장한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개별적 나라들의 인민 경제 계획들은 그 나라의 자연 및 경제적 조건들과 민족적 특수성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를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리익에 부합되도록 호상 조절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망 계획들은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는 조건하에서、공업 생산을 현저히 증대시키는 기초 우에서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며 인민 소비품 생산을 증대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는 전후 시기에 국내 경제 자원、우리 나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농촌 경리와 경공업을 동시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키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이 기본 방향에 립각하여 우리 인민 경제 계획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과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계획적、국제적 협조에 의거하여 수립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적、국제적 협조는 위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제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경제적 경쟁、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 템포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를 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三차 대회 결정에는 『우리는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하

며 이 나라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적 협조를 가일층 확대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지적되여 있다。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 간에는 이상과 같은 경제적 협조와 아울러 과학—기술적 협조가 강화 발전되고 있다。 이 진영 나라들은 생산 공정의 광범한 기계화、 자동화를 실시하며 생산 능률의 가장 높은 새로운 기계들과 자동 기계들을 도입하며 인민 경제의 전기화를 가일층 확대시키며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는 등 과학—기술의 발전 및 달성한 새 성과들의 호상 교환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동 노력에 의하여 만들지 못할 그러한 설비들과 기계들은 사실상 이미 없게 되였다。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 간의 이와 같은 경제적、 과학—기술적 협조가 강화되면 될수록 이 진영에 참가한 개별적 나라들 앞에는 자기들의 경제적 련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직접적이며 다방면적인 협조를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경제 발전의 전망 계획들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더욱 제고할 과업이 제기된다。

조선 인민은 지난 三년간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와 전후 시기에 형제적 제 인민들의 동지적 지지와 막대한 물질—기술적 원조에 고무되면서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진영의 대가정 속에서 조국의 통일 독립과 평화와 사회주의의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조선 인민들은 일찌기 자기 력사에서 있어 본적이 없는 수 많은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인민들과의 동지적 협조와 친선 단결을 공고히 하면서 형제적 원조와 호상 호혜적인 통상 및 과학—기술적 협정 등을 통하여 형제적 국가들이 보내 주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수 많은 기술 기자재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공통된 사명과 력사적 과업 실천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 인민의 무한한 행복이며 자랑인 동시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하는 강유력한 담보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과의 경제적、 과학—기술적 련계의 가일층의 강화는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필수 조건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와 우리 나라와의 경제적 련계는 주로 개별적 형태의 경제 협조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이 미제 무력 침범자들과 리 승만 매국 역도를 반대하는 三년간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와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 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인민들이 무상으로 보내주는 물질—기술적 원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은 우리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원조를 보내줌으로써 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미제를 위수로 한 무력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게 하였으며 아세아 및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위업에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의 지지 성원에 의하여 조국 해방 전쟁이 승리적으로 종결되자 사회주의 진영 제국가 인민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우리 나라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령락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거액의 물질—기술적 원조를 주었으며 또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의 정부들은 자국 인민들의 의사를 대표하여 우리 나라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을 방조할 데 대한 결정들을 채택하였으며 이 결정들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 정부 대표들과 해당 국가 정부 대표들 간에 협정이 체결되였다。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과의 경제적 련계를 구체화한 이 협정들에 근거하여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들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 필요한 수 많은 기계 설비들과 기자재들을 포함한 방대한 물질적 원조와 아울러 우수한 기술자들을 직접 파견하여 기업소의 복구、 신설을 방조하는 등 기술적 원조를 주고 있다。

쏘련 정부는 一九五三년 九월 이래 一〇억루블리에 해당하는 거액의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무상으로 주고 있는 바 이에 의하여 김책 제철소、 성진 제강소、 남포 제련소、 수풍 발전소、 마동 쎄멘트 공장、 흥남 비료 공장、 평양 방적 공장들이 복구 또는 확장되였으며 평양 염색 공장、 합판 공장、 가구 공장、 뜨락또르 수리 공장、 방송국、 육류 꼼비나트、 염산 공장、 스레트 공장、 평양 병원、 어류 통조림 공장 등 현대적 설비로써 장비 신설되고 있다。

이외에도 쏘련 정부는 우리 나라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 필요한 수다한 건설 자재 및 시설들과 인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한 식료품과 대중 소비품들을 원조하여 주고 있다。

형제적 중국 인민들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중국 인민 지원군을 조선 전선에 파견하여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을 직접 원조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一九五三년 一一월에 조중 량국 대표들 간의 협정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八억원(현재 화폐 단위)의 거대한 금액에 해당하는 물질적 원조를 주고 있으며 수다한 기술자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우리의 복구 건설을

방조하여 주고 있다。 중국 인민의 물질、 기술적 원조에 의하여 평양、 정주、 고원 기관구의 복구 확장、 팔원、 덕천간의 철도 부설、 대동교 복구、 조중 국경 철교 복구、 청천강、 대령강 교량들의 복구 공사가 완공되고 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우리 나라의 전후 복구 건설 사업을 원조할 데 대한 협정에 근거하여 더젤 원동기 공장、 황해 제철소、 천내리 쎄멘트 공장의 복구 사업을 방조하여 주고 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이 공장들의 신설 및 복구 건설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다한 건설 기자재들과 기술자들을 우리 나라에 보내여 왔는 바 그들은 공장、 기업소들의 기본 설계 사업을 완료하고 기본 건설 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특히 독일 정부는 一九五五년 一二월 一七일에 一九五五―一九六四년에 이르는 一〇년 동안에 一九五二년부터 조선 인민에게 보내준 원조 물자를 포함하여 五억 四、五四〇만 루블리의 물질적 원조를 줄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는 바 이 결정에 근거하여 독일 정부는 함흥시의 복구 건설을 담당하고 一九五五년 五월부터 기본 건설 공사에 착수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학교、 민청 회관、 탁아소、 홍남 화학 공업대학 실습 공장 등 교육 문화 시설들과 주택 등 수백동에 달하는 건물들과 도로들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함흥시 복구 건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 기술자들은 함흥시 주변에 대규모의 채석장과 년산 五만톤의 능력을 가진 콩크리트 조립 공장、 목공장、 련와 공장들을 건설하여 주었다。 또한 독일 기술자들은 쏘련 기술자들과 함께 홍남 비료 공장에 년산 一〇만―一二만톤의 생산 능력을 가진 질안 직장의 건설 공사를 도와주고 있으며 은산 염료 공장 건설 공사에 대해서도 기술적 방조를 주고 있다。

우리 정부 대표들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 대표들은 조독 량국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一九五五년 二월 二七일 평양에서 통상 협정을 체결하였는 바 이 협정에는 우리 나라에서 대량적으로 생산되는 유색 금속、 아연、 정광、 규소철、 흑연、 화학 제품、 견직、 엽연초 등을 독일에 수출하고 독일로부터 각종 공작 기대、 금망、 동망、 견직기 및 그의 부속품、 방직 기계 설비、 의약품、 화학 제품、 화학 비료、 전기 자재、 인쇄 기계、 광학 정밀 공구、 의료 기구들을 수입할 것이 규정되여 있다。

파란 인민 공화국 정부는 一九五三년 一一월에 체결된 조선과 파란 량국 간의 협정에 근거하여 一九五四―一九五六년 기간에 평양 철도 공장 및 원산 철도 공장을 비롯하여 아오지 탄광、 신향 탄광、 안주 탄광들의 전기화 및 기계화 설비들과 인민 소비품을 무상으로 원조하여 주고 있는 바 一九五六년 六월까지에 二、五



〇〇만 루블리 이상에 해당하는 물자들을 보내주였다。

그리고 파란 인민들이 보내온 각종 건설 기자재、 불도젤、 기중기、 강재、 벨트 꼼베아、 기관차 등을 포함한 막대한 량의 기자재들은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정부와 파란 정부간에는 량국 간의 경제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一九五六년 三월 二八일에 통상 협정이 체결되였는 바 여기에는 조선에서 대량적으로 생산되는 유색 금속 및 광물、 견직물、 운모、 화학 제품들과 파란에서 생산되는 철도 기자재、 건설 자재、 전기 자재、 흑색 압연재、 각종 기계류、 면직물 등을 교역할 것이 규정되여 있다。

체코슬로바키야 공화국 정부는 一九五三년 八월 조선 인민들에게 一九五四―一九六〇년까지의 기간에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줄 데 대한 협정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되는 희천 기계 공장、 운산 공구 및 기계 공장、 자동차 수리 및 부속품 생산 공장들의 신설과 장기 크레지트로써 천내리 쎄멘트 공장、 장진강、 허천강、 부전강 발전소、 유색 압연 및 주물 공장、 평양 꼼비나트(케불선、 전기 축전기 재생산)의 복구 및 신설 공장들을 원조하여 주고 있으며 이외에 一九五四―一九五六년 동안에 一억 一천 三백만 루블리에 달하는 각종 원조 물자들을 보내여 왔다。

이와 아울러 과학―기술적 원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현재 체코 공장들에서는 八六七명의 조선인 기술일꾼들이 양성되고 있으며 또한 우수한 체코 기술자들이 우리 나라에 파견되여 있다。

또한 우리 정부와 체코슬로바키야 정부 간에는 一九五六년 三월 二四일 평양에서 통상 협정이 체결되였는 바 이 협정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에서 대량적으로 생산되는 유색 금속、 광물 훼르월람、 아란담、 엽연초 등과 체코슬로바키야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작 기계、 건설 자재、 전기 자재、 의료 기구、 공구류、 통신 기자재、 의약품、 운수 기자재 및 부속품들을 교역하고 있다。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 정부는 一九五三년 九월 七일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된 조선、 웽그리야 량국 대표간의 협정에 근거하여 순천 염료 공장、 평양 도량 형기 공장、 구성 공작 기계 제조 공장들의 설비들을 무상으로 원조해 주고 있으며 량국 간의 경제적 및 과학―기술적 련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一九五六년 六월 二〇일 량국 간의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및 一九五六―一九五八년 간의 통상 협정을 체결하였다。

불가리야 인민 공화국 정부는 一九五四년 一월부터 一九五六년 五월말까지에 면사、 면직물、 창유리를 비롯하여 건재 공업 부문의 각종 설비들을 포함한 三천 三백만 루블리에 달하는 원조 물자들을 보내주었을 뿐

만 아니라 년산 기와 五백만매、벽돌 一천만매의 생산 능력을 가진 기와 공장과 자강도 목재 가공 공장을 건설하여 주고 있다。 불가리야에서 파견되여 온 우수한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의 림업 및 건재 공업 부문의 복구 건설과 생산 발전을 위하여 기술적 방조를 주고 있다。

그리고 불가리야 인민 공화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는 一九五六년 三월에 평양에서 통상 협정이 체결되였는 바 이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유색 금속、활석 및 기타 광물、엽연초 기타 상품들을 수출하고 불가리야로부터 통신 케블선、통신 기자재들을 수입하고 있다。

루마니야 인민 공화국 정부는 一九五三년 一〇월에 체결된 협정에 근거하여 운산 쎄멘트 공장、순천 아스피린 공장、대규모의 벽돌 제조 공장의 기계 설비들과 객차、어선、유조 자동차、목재 제재기 등 六、五〇〇만 루블리에 해당하는 공장 시설들과 건설 자재들을 원조하여 주고 있다。

알바니야 인민 공화국 정부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에 궐기하고 있는 조선 인민들에게 다량의 포장용 핏취와 면직물、모직물 등을 원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물질적 원조를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

몽고 인민 공화국 정부는 一九五四년에 외투、육류、솜옷、피혁 제품 등 二一차량의 원조 물자와 함께 우리 나라의 축산업 발전을 방조하기 위하여 六、〇五四두의 역마、七、一六〇두의 면양、九、〇八〇두의 산양、四四六두의 젖소 및 역우를 보내주었으며 一九五五년에는 면양 一二、六〇〇두、산양 七、六一三두를 보내주었으며 금년내로 면양 一만두、산양 二천두를 무상 원조할 것을 표명하였다。

특히 몽고 인민 공화국 정부는 금번 우리 정부 대표단의 친선 방문과 관련하여 자기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一九五六—一九五七년 간에 조선의 축산업 발전과 우리 인민 생활의 개선 향상에 방조를 주기 위하여 밀 五천톤、양 三만두、소 二천두를 무상으로 원조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또 조몽 량국 대표들 간에는 량국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련계를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통상을 一九五七년부터 개시할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사회주의 진영 제국 간의 경제적 련계의 한 형태로서 통상 협정들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 민주주의 시장의 대외 무역에는 자본주의적 무역과 같은 요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착취에 대한 지향이 없으며 부등가 교환이 청산되여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개별적 나라들 간의 상품 교환은 등가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세계 민주 시장에서는 각이한 나라들의 상품이 교환되는만큼 가치 법칙이 작용하는 바 이것은 사회주의적 국제 분업을 심화 확대함과 동시에 공업화와 전기화、높은 기술에 의한 생산의 장비를 토대로 하여



모든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생산 원가를 저하시키며 생산물의 품질을 제고시키도록 자극을 준다。 여기에서 무역 제품의 생산 원가를 저하시키며 품질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는 전후 시기에 전후 인민 경제를 복구 건설하는데 대량의 중요 물자들과 기차재들을 투입하는 한편 국내에서 대량적으로 생산되는 물자들과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과 특산품들을 대외 무역에 돌림으로써 사회주의 진영 제국과의 통상 관계를 현저히 강화 발전시키고 있다。

전후 시기의 대외 통상 무역의 장성 비률을 본다면 一九四六년을 기준으로 하여 一九五三년에는 四五四・二%、一九五四년에는 四五四・六%、一九五五년에는 六九七・二%로 장성되였으며 一九五六년 상반년에는 一九五五년 상반년에 비하여 二二%가 더 장성하였다。

대외 통상 무역의 이와 같은 급속한 장성은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거액의 자금을 요할 뿐만 아니라 생산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사회주의 진영 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 지어져 있는 인민 경제 부문들을 발전시키며 다른 나라 제품과의 교역에 충용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의 련속 생산에 우리의 력량을 돌릴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진척에 기초하여 一九五六년 二—三월에 걸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파란 인민 공화국、체코슬로바키야 공화국、불가리야 인민 공화국、웽그리야 인민 공화국 정부들과의 거액에 달하는 통상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금번 우리 정부 대표단의 친선 방문을 계기로 장기 통상 협정을 체결할 것을 예견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와의 대외 통상 무역을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풍부한 지하 자원과 무진장한 수산 자원과 특수한 토산들이 있다。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의 경제적、과학 기술적 협조에 의하여 우리의 생산 기술적 장비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금、은、동、연、아연、철을 비롯하여 수다한 희유 금속들과 흑연、마그네사이트、찌딴 등 지하 자원과 풍부한 수산 자원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발하며 화학 제품、판유리、엽연초 등의 생산 확대와 신제품 생산을 확장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이와 같은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더욱 더 광범한 범위에서 다종 다양한 품종들의 생산을 확장하며 형제적 제 국가와의 통상 관계를 더욱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인민들의 방대한 물질—기술적 원조를 포함한 형제적 제 국가들과의 경제적、과학 기술적 련계의 강화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조선 인민을 무한히 고무하여 주고 있으며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방대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들과 기술적 조건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규모를 확장하고 그 템포를 높일 수 는 가능성을 얻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중공업의 모든 부문을 다 발전시켜야 할 힘에 겨운 일을 면하게 되였다。 이것은 두말 할것 없이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의 경제적 협조에 의하여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지어져 있는 그러한 중공업 부문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우리 나라의 공업화를 계획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확한 사회주의적 분업과 인민 경제 계획들을 조화시킬 실제적 가능성을 가진 거대하고도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의 대가정의 일원으로 되고 있는만큼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모든 중공업 부문들의 발전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 그의 공업적 토대는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공업적 토대의 한 구성 부문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공업의 기술적 장비는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가 달성한 과학 기술적 성과에 기초한 현대적 기술로써 장비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경제적 및 과학—기술적 협조에 더욱 현저하게 의거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인민들은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방조하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있어서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의 고귀한 경험들과 과학 및 기술의 제 성과들의 충분한 리용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금번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를 친선 방문하는 과정에서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 인민들 간에 현존하는 친선과 경제적、기술적 련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금번 우리 정부 대표단의 방문을 통하여 형제적 국가들은 우리에게 또 다시 새로운 방대한 원조를 줄 것을 약속하였다。

쏘련은 우리 나라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자재 및 시설들과 식료품、대중 소비품 등의 원조를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으며 또한 우리 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갖는 흥남 비료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을 원조하기로 결정하였다。



몽고 인민 공화국 정부는 밀 五천톤、양 三만두、소 二천두를 새로 원조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루마니야에서는 또 다시 二천 五백만 루불리의 무상 원조를、알바니야에서는 一만톤의 핏치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결정하였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웽그리야、체코슬로바키야、불가리야、파란 등 형제적 나라들도 우리 나라와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를 가일층 확대 발전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이 주는 이와 같은 방대한 물질적 및 기술적 원조는 우리 나라로 하여금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인민 소비품을 생산하는 공업 부문과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줌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를 촉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으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인민은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인민들과의 경제적、과학 기술적 련계 강화를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튼튼한 담보로 간주하면서 맑스—레닌주의의 기치하에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목적으로 단합된 사회주의 진영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이미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로 전환되였으며 인구의 三분의 一 이상과 방대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은 무궁 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 간의 불패의 통일과 단결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그 위력은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다。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목적으로 단합된 사회주의 진영 인민들의 이 굳은 친선 단결은 오늘 그 어떠한 힘으로도 깨뜨릴 수 없다는 진심을 우리 인민에게 더욱 굳게 하여 주고 있다。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에 튼튼히 의거하고 있는 조선 인민은 형제적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며 자기의 헌신적 로력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승리의 담보가 놓여 있다。

금번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로부터의 새로운 원조는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앙양과 인민 생활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창조적 로력 위훈에로 고무추동하여 줄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의 가일층의 강화—이것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위업 달성을 촉진시키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 외화 획득과 외화 절약은 전 인민적 과업이다

최 국 보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촉진을 위한 투쟁이 방대한 규모와 범위에서, 조직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은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우리 당 제三차 대회 결정을 사회주의 건설의 강령으로 높이 받들고 지금 바야흐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을 기한전으로 완수하고 명년도부터 개시될 제一차 五개년 계획을 맞이하기 위한 세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며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할 제一차 五개년 계획은 방대한 자금, 우리 나라에 없거나 부족되는 다량의 기계 설비, 원료, 기자재들을 요구한다. 이 요구를 충족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 고리의 하나는 외화의 획득과 그의 합리적 리용 및 절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과 정부는 외화의 확보 및 그의 절약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강조하여 왔다. 특히 공화국 정부에서는 지난 四월 二일 내각 결정 제三三호로서 『수출 사업 강화와 외화 절약을 위한 제 대책에 관하여』를 채택하였다.

동 결정은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에 있어서 외화 획득과 그의 절약을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증대되는 외화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국내의 풍부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탐구 개발하며 온갖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그 생산을 조직 확장하고 수출품의 품종과 수량을 현저히 증가하며 국제 시장의 수요에 적응하게 수출품들의 규격과 질을 현저히 개선하는 한편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각종 가능한 원료, 자재, 기계, 시설 및 부속품들의 생산을 새로 조직 혹은 확장함으로써 그 수입을 현저히 축소 제한시키며 공장, 기업소 및 건설장들에서 선진적 생산 및 건설 방법들을 각방으로 도입하며 기술 공정들을



계속 개선함으로써 수입 원자재들을 국내산 원자재들로 대용하며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서 원자재들에 대한 발전된 소비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통제와 절약 제도를 강화하며 각종 비상업적 외화 지출들을 계속 축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대책들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인민의 물질 문화 수준을 가일층 향상시키는 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는 외화를 획득하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할 과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나서고 있다.

## 대외 수출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당과 정부는 외화의 획득을 위하여 항상 신중한 주의를 돌리면서 수출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 제 대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대외 수출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 수행과 함께 거대한 장성을 가져오고 있다.

즉 국내 각 광업 및 금속 공업 기업소들의 급속한 복구 발전으로 말미암아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수출을 현저히 증대시키고 있으며 외화 획득에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하고 있다.

화학 공업 분야의 급속한 복구는 카바이트와 가성 소다를 비롯한 일부 중요한 화학 제품들의 수출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수출 확장을 위한 전망을 열어 놓았다. 기타 각 부문들에서도 대외 수출은 질적, 량적으로 거대한 전변을 가져왔다.

그러나 외화를 확보하는 사업에는 아직도 부분적이나마 엄중한 결함들이 존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대외 수출은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다. 즉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수출 원천 탐구 개발 사업이 체계적이며 광범한 군중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일부 부문에만 국한되여 진행되며 허다한 외화 자원들을 사장시키고 있거나 국내에서 무의미하게 허비하는 비경제적 경향 등이 있다. 또한 수출 상품의 품질 및 포장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여 대외 신용을 제고시킴으로써 견고한 판로를 확보하며 상품 가치를 제고시키는 문제는 대외 수출에서의 중요 조건

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품의 질、규격、 포장에 대하여서와 수출품 인수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진행한 결과에 일부 품종들은 수요 시장의 기호를 고려함이 없이 가공되며 등급별、대소별、 구분도 없이 구구하게 혼합 포장하거나 심지어는 변질 부패된 것까지 출하되여 외화 획득상 손실은 물론이고 공화국 상품의 대외적 신용을 훼손시키며 판로 개척과 외화 확보에 지장을 주는 사실도 부분적으로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간에 협약된 국가 수출 과제는 무조건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국제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지표별로 시기성 있게 생산 보장하지 못하며 이러 저러한 구실 밑에 생산된 수출 물자들을 체화시키며 수출품 생산 계획을 판로 관계로 중단 또는 축소시키게 하며 계획의 변경과 취소 및 조절로서 대치하려는 일부 무책임한 경향들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일부 경제 기관 및 그의 책임 일꾼들이 국가간의 의무와 국가 계획 과제를 실행할 데 대하여서와 외화 획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비조직적으로 사업하는 데 기인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당、국가 및 경제 기관들과 그 일꾼들은 현재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수출 사업의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외화 자원을 탐사 개발하는 사업을 더욱 가강히 전개하며 상품의 질、 규격、포장 조건 등을 개선 강화하는 사업에 세심한 고려를 돌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 부원들을 외화 획득 사업에 더욱 광범히 동원시킬 수 있다。

실로 우리 나라는 철광석、석탄、흑연、마구네사이트、규사、운모、고령토、황토 등을 비롯한 각종의 유용 광물들과 유색 금속、합금철、철 및 강재류 등을 비롯한 각종 금속 및 금속 제품들과 카바이트、가성소다、쎄멘트、아람담、아세찌린부랙 등의 각종 화학 및 전재품들과 수산물、농산물、림산물、약초류、 모피류 및 경공업 제품 등 대외 시장에서 다량적으로 그리고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자원들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자연 부원들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데까지나 가능성이다。 문제는 이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성으로 전환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내각 결정 제三三호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수출품 생산을 확대하며 새로운 수출 원천을 탐사 개발하며 현행 원료 수출을 반제품 수출로、반제품 수출을 완제품 수출로 급속히 전환할 뿐만 아니라 그의 품종을 현저히 증가시킬 대책을 강구 실시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국내 수출입 품종별 구성을 기본적으로 변경하는 방향에서 우선 一九五七년 수출 총액을 급격히 증가시



키며 앞으로 결정적으로 수출을 증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보장하려면 우선 수출 원천을 증대하며 그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경제 기술적 대책들을 선차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특히 공업 부문에서의 수출 원천을 증대하며 그와 아울러 국가적 투자 부담이 덜 들며 광범한 군중들이 참가할 수 있는 농림、 수산 및 토산 제품들의 수출을 확대할 데 대하여 신중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 공업 부문에서

### (ㄱ) 광업 부문

철 및 석탄、흑연 등은 우리 나라의 풍부한 지하 부원으로 이름이 높으며 동、연、아연、중석、수연、고발트、닉켈、만따룸、베리륨 마구네사이트、활석、류화철、 중정석、형석、운모、고령토、석면、찌딴、계소구、 안치모니、찌루꽁 등 유용 광물만 하더라도 실로 一五○여종에 달한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 나라 산업이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될 뿐만 아니라 대외 수출에서도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

그러나 중요한 외화 원천으로 되고 있는 유색 및 희금속 광물들의 생산을 급격히 장성시키기 위한 탐사 굴진 및 개발 사업과 선광장들의 복구 확장 및 신설 사업들은 원만히 제고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 풍부한 마그네사이트와 흑연은 그의 품질을 제고시킨다면 다량적으로 수출될 수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광업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업은 광산 굴진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켜 확보 광량을 현저히 증대시킬 것이며 연 및 아연 생산을 급속히 제고시키기 위하여 선광 시설들을 검사 정비 확장하는 동시에 폐광 상태에 있는 아연 광산들을 복구하며 현행 지질 탐사 사업의 방향을 재검토하고 국내 수요 및 외화 획득의 중요 대상들에 대한 탐사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지질 탐사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시급히 강구 실시되여야 한다。

동시에 품질 관계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풍부한 흑연、마그네사이트、운모、석면、활석 등 광석들의 품질을 현저히 제고시켜 국내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의 수요는 물론 외화를 획득함에 리용하여야 한다。 대외 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풍부한 흑연은 탄소분 九○% 이상의 것으로서 마구네사이트는 크링카로서 다량 요구하고 있다。

수출품에서 질 제고와 규격의 보장은 아주 주요하다。 그러나 아직 이 분야에 대한 고려가 적게 돌려지고 있으며 규격을 제고할 데 대한 관심이 희박하다。 대외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이라도 그의 규격과 그에 따르

는 가격 차이가 아주 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윤모 규격상 차이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

| 품명 | 규격 | 단위 | 산형강을 수입한다면 (톤) | 휘발유를 수입한다면 (톤) | 좁살을 수입한다면 (톤) | 면직물을 수입한다면 (메-타) |
|---|---|---|---|---|---|---|
| 윤모 | 三·七五×五 | 톤 | 一五~三五 | 三〇~六八 | 二六~六〇 | 六、三〇五~一四、四一二 |
| 〃 | 五×五 | 〃 | 二四~三五 | 四〇~六八 | 四一~六〇 | 九、九〇八~一四、四一二 |
| 〃 | 五×七、五 | 〃 | 三五~四四 | 六八~八五 | 六〇~七五 | 一四、四一二~一八、一四〇 |
| 〃 | 七·五×七、五 | 〃 | 四〇~五一 | 七六~九八 | 六八~八六 | 一六、二五四~二〇、七二七 |
| 〃 | 七·五×一〇 | 〃 | 四四~五七 | 八五~一一〇 | 七五~九八 | 一八、〇一四~二三、四五九 |
| 〃 | 七·五×一二、五 | 〃 | 五七~七六 | 一一〇~一三七 | 九八~一二三 | 二三、四五九~二七、〇六三 |
| 〃 | 一〇×一五 | 〃 | 七一~八八 | 一三七~一七〇 | 一〇三~一五〇 | 二四、八二一~三六、一二一 |
| 〃 | 一五×二〇 | 〃 | 八八~一七六 | 一七〇~三三九 | 一五〇~三〇〇 | 三六、一二一~七二、一八〇 |

※(이 숫자는 대략적인 수자임)

이와 같이 만약 윤모 한 톤을 수출한다면 그의 규격상 차이로 인한 가격상 차이는 놀랠만큼 크다。 때문에 결정적으로 국제 시장의 높은 규격으로 생산하여 국내 수요에 충족시킴과 동시에 다량 수출을 예견하여야 한다。

### (ㄴ) 금속 공업 부문

오늘 우리 나라 금속 공업은 그의 규모와 기술적 장비로 보아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 수출에 있어서도 가장 큰 전망을 약속해 주고 있다。 현재 외화 획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색 및 흑색 금속 제품、 합금철、 철 및 강재류、 희유 금속 등은 다량 생산되여 국내 인민 경제 각 분야에 공급되고 있을 뿐더러 일부는 대외에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대외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철、 제강、 제련 부문은 수출품 생산을 위한 조직이 아직 불만족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우리 나라의 풍부한 아연을 정광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제련소의 복구를 더 한층 급속히 추진하여 전기 아연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실현시키는 문제이다。

만약 우리가 아연 정광을 한 톤 수출하자면 그의 운임이 석유 한 톤을 수입할 수 있는 외화에 해당된다。

다른 실례로서 만약 우리가 전기 아연(Zn 九八%) 한 톤과 아연 정광(Zn五〇%) 한 톤을 각각 수출하여 후강판을 수입한다면 정광보다 전기 아연은 약 三—四배 더 수입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적 리득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만약 우리 나라에서 년산 二만톤의 전기 아연을 제련한다면 그의 국가적 외화상 리익으로써 한 개의 현대적인 기계 공장 설비를 새로 보장 받을 만한 리득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막대한 수송량과 운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실례로 우리 나라에서 손쉽게 생산을 조직할 수 있는 아연화를 국내에서 해결한다면 막대한 액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바 만약 一九五六년에 수입하고 있는 아연화를 국내에서 생산한다면 외화로서 四、七六〇여 톤의 산형강을 수입 보장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은 우리 나라의 제련、 제철소들을 가급적 속한 시일내에 완전히 복구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만약 우리 나라에서 가급적 속한 시일내에 유색 압연 공장 건설을 완공하고 아연판을 가공한다면 전기 아연보다 막대한 국가적 리득을 볼 수 있는 바 이를 각각 한 톤씩만 수출한다면 그의 외화상 차액을 가지고 산형강으로 환산하여 약 一七배에 해당되는 량을 수입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아연판으로써 一년에 二만톤을 수출한다 하면 이로써 얻은 외화적 리득을 가지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대규모의 유색 압연 공장 한 개의 설비를 새로 확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 나라의 매개 공장、 기업소의 특수성을 옳게 리해하고 조직을 잘 하여 연강 생산보다 특수강을 더 많이 생산하며 또 부산물들을 옳게 리용한다면 거액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예비들이 허다하게 있다。

이상과 같은 제 사실로 보아 오늘 그 어느 부문보다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신속하게 계획에 예견된 제철、 제강、 제련 부문 복구 확장 사업을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강재 수입을 현저히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금속 및 금속 제품의 대외 수출을 실현하여야 한다。

### (ㄷ) 화학 공업 부문

우리 나라 화학 공업은 그 규모와 기술적 장비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공업 부문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에 기초한 화학 비료를 비롯하여 기타 각종의 화학 제품 생산은 외화 획득을 위한 광활한 전망을 약속하고 있다。

전쟁전에 우리 나라의 화학 공업은 화학 비료를 비롯한 기타 수십종의 화학 제품들을 국내 인민 경제 각 분야에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에 수출함으로써 거액의 외화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그 수출이 카바이트、가성소다、아람담을 비롯한 몇개의 품종에 불과하다。 지금 다량 생산되고 있는 각종의 화학 제품들중 그의 품질을 현저히 제고한다면 다량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적지 않다。

실례로 표백분은 다량 생산되고 있으나 그의 품질이 낮은 관계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 대외 시장에서는 三〇—三五% 이상의 규격을 가진 표백분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그의 품질을 현저히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카

바이트도 역시 대외 시장에서는 二五〇―二八〇kℓ 이상으로 다량 요구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그의 품질을 일층 제고하여야 하며 기존 설비들을 최대한으로 가동케 함과 동시에 설비들의 복구 공사를 촉진시켜야 하며 원석 채석장을 급속히 확장 정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수출되고 있는 아람담의 질을 현저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규격을 높이면 높일수록 국가에 주는 리익은 실로 막대한 것이다。

화학 제품들의 질을 현저히 제고함과 아울러 급속한 기일내에 전쟁전에 수출하던 화학 제품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고 一九五七년도에 카바이트、가성소다、아람담、염소 화합물 및 기타 화학 제품들의 수출을 현저히 증가시키기 위하여 온갖 예비들을 총동원하여 생산 공정들을 새로운 기술로 장비시키며 기존 설비들에 대한 새로운 기술 공학적 관리를 강화하며 공장 복구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 대외 수입에 의하여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있던 각종 화학 제품 시약 및 농약 등의 생산을 급격히 확장함으로써 국내 생산품으로 자급 자족하도록 하며 외화를 절약하여야 한다。

### (ㄹ) 경공업 부문

경공업은 외화 소비 부문으로부터 외화 획득 부문으로 전환되여야 한다。

전후 일용 필수품과 식료품의 증산 및 품종 확장과 품질 개선을 위하여 당과 정부가 취한 제 대책과 쏘련、중화 인민 공화국 및 기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의 기술 경제적 원조에 의하여 경공업 부문에서는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원료 원천 및 그 공급에 대한 개선、새로운 설비 및 기술의 도입、기술 기능 간부의 육성 배치、시험 연구 사업의 강화、제품 규격의 개선 확장 등 기술적 제 대책과 근로자들의 창의 창발성의 발양、불합격품의 퇴치、생산 문화의 제고 등을 전제로 한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은 생산에 있어서 현저한 확장 개선을 가져 왔다。 이는 바로 경공업 부문에서 외화 획득의 중요한 가능성들과 현실적 제 조건들이 구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하루 속히 경공업 제품의 생산을 현저히 확장하고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대외로도 수출하여야 한다。

만약 경공업 부문에서 대외 수출을 현재보다 증대한다면 국가에 주는 외화 및 내화적 리득은 실로 막대한 것이다。 삼로주、인삼、홉푸、권연의 수출에서 그의 실례를 들면 다음 표와 같다。

다음의 표는 그 몇 가지의 실례에 불과하나 이 외에도 경공업 제품중 외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직 제품、고무、피혁 제품、일용품、식료품들과 공예품 및



장식품 등 얼마든지 있다。

| 수입 대상 \ 수출 품종별 | 단위 | 삼로주 | 인삼(홍삼) | 홉푸 | 권연 |
|---|---|---|---|---|---|
| 단위 | | 1병 | 1톤 | 〃 | 〃 |
| 좁쌀을 수입한다면 | (톤) | 一 | 一、三五五 | 五一 | 六八 |
| 면직물을 수입한다면 | (km) | 一 | 三二六 | 一三 | 一六 |
| 고급 화장비누를 수입한다면 | (타스) | 二 | 一四一、〇〇〇 | 六、〇〇〇 | 八、〇〇〇 |
| 베니실링을 수입한다면 | (병) | 六〇 | 一 | 一 | 一 |
| 자전차를 수입한다면 | (대) | 一 | 三、三一七 | 一三五 | 一六七 |
| 승용차(뽀베다)를 수입한다면 | (대) | 一 | 六三 | 二 | 三 |
| 고급 동내의를 수입한다면 | (착) | 一 | 三五、二五〇 | 一、三三三 | 一、七六八 |
| 조면 | (톤) | 一 | 一二六 | 五 | 六 |
| 면사 | (톤) | 一 | 四七 | 二 | 三 |
| 뜨락또르(2y)를 수입한다면 | (대) | 一 | 六一 | 二 | 三 |

※ (이 대비 숫자는 대략적인 것임)

그러나 아직도 경공업 부문에서는 그의 품종과 품질에 대한 당과 정부와 인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수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 나라 경공업 부문 앞에 품종 확장과 품질 개선을 위한 조직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 실시할 뿐만 아니라 외화 소비 기관으로부터 외화 획득 기관으로 전환할 문제를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한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에서 채택된 농촌 경리 발전에 관한 결정에 의하여 제시된 공예 작물、유지 작물、야채、잠견、축산물 생산의 량적 질적 장성은 면제품、대마、아마제품、견제품、양모 제품、피혁、모피 제품、육류 제품과 그 부산물들을 리용한 필수품 생산의 량적 질적 확장을 가져 올 광활한 전망을 예견케 하고 있는 바 이는 외화 획득의 길을 넓게 열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경공업 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얻어 낼 수 있는 모든 원료 원천들과 그를 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모든 품종들을 탐구 확장하는 사업에서 실제적인 전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내의 인민 경제적 수요는 물론 외화 획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면화、대마、아마、잠견、양모、수모 기타 각종 섬유 자원、참깨、들깨、두루、락화생、피마자、면실유、아마씨、해바라기 등 유지 자원、오이、가지、도마도 기타 각종 소채、원예 과실 및 산포도、다래、오디、들죽 등 야생 과실、각종 피혁、모피 자원、가금들의 털 및 각종 림산물、석재 자원 등에 대한 계통적인 연구 탐사 사업을 강화하며 그를 원료로 한 제품의 계통적 확장을 위한 사업을 시급히 조직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제 건설 투쟁에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호상 우호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며 국제적 분업 문제를 옳게 타산하면서 생산을 조직하는 문제는 극히 중요하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공업의 편파성과 일면성을 퇴치하며 그의 다면성과 자주성을 보장한다 하여 우리 인민 경제에 요구되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 자체의 손으로

반드시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러한 견해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어떤 고립된 섬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세계 제一위의 공업국인 쏘련을 비롯한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로 형성된 사회주의와 인민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들과 더불어 정치、경제、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유기적 련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방대한 민주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계단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기 어렵고 또한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수요품을 당장에 생산하기 위하여 거액의 투자와 로력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러한 수요품을 언제나 민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시장에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과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에 파견하였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 사업 결과에 관한 보고)。

이 교시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공업을 신속히 발전시키자면 민주 시장에 반드시 의거하여야 하는바 그를 위해서는 오직 수출에 의한 외화 획득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는 아니될 것은 마치도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대외적인 요인、즉 대외 시장과의 련계와 협조가 우리의 모든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요인인듯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치 않다。

대외적인 요인은 어데까지나 우리의 공업 경제 발전의 본질을 규정하는 요인으로는 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대내적인 요인、즉 국내 자원과 우리 인민의 창조적 로력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공업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때문에 외화 획득과 관련하여 공업 부문들에 제기되는 과업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나라의 내부 자원을 옳게 탐사、개발、제품화하고 경제적 타산을 옳게한 기초 우에서 대외 시장과의 련계를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만이 급속한 시일내에 우리 나라의 자주적인 경제 토대를 성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 二、농업 부문에서

오늘 공화국 북반부 농촌 경리의 복구 발전 속도는 비할 바 없이 높아졌는 바 우리 나라 공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과 사회주의 공업화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식량과 경공업 원료를 다량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농업 부문에서도 외화 획득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전후 시기에 급격히 증대되는 농



산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온갖 실천적 대책들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채택된 내각 결정 제三三호에도 국영 농목장、농업 협동 조합 및 개인 농민들을 광범히 조직 동원하여 대외 시장에서 고가로 다량 요구하는 엽연초、과실류、락화생、아마、피마자、밤 등의 생산을 급속히 확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은 앞으로 우리 나라 농업 생산의 가일층의 앙양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구축할 것이며 동시에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며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 강화를 위한 전제 조건들을 조성할 가능성을 줄 것이다。

| 수출 품종 \ 수입 대상 품종 | 단위 | 좁쌀을 수입한다면 (톤) | 면직물을 수입한다면 (메타) | 고급 화장 비누를 수입한다면 (타스) | 자전차를 수입한다면 (대) | 오토바이를 수입한다면 (대) | 고급 동내의를 수입한다면 (착) | 석탄을 수입한다면 (톤) | 석유를 수입한다면 (톤) |
|---|---|---|---|---|---|---|---|---|---|
| 엽연초 | 一톤에 | 一四 | 三、五二五 | | 三五 | 五 | 三八二 | 一五〇 | 一九 |
| 사과 | 〃 | 三 | 六四二 | | 六 | 一 | 七〇 | 二七 | 四 |
| 배 | 〃 | 三 | 六四二 | | 六 | 一 | 七〇 | 二七 | 四 |
| 락화생 | 〃 | 二 | 五九七 | | 六 | 一 | 六五 | 二五 | 三 |
| 아마 | 〃 | 八 | 一、八四四 | | 一九 | 三 | 二〇四 | 八〇 | 一〇 |
| 대마 | 〃 | 八 | 一、八四四 | | 一九 | 三 | 二〇四 | 八〇 | 一〇 |
| 피마자씨 | 〃 | 二 | 四八二 | | 五 | 一 | 五二 | 二〇 | 三 |

※(이 숫자적 대비는 대략적인 것임)

우에 표에서 몇가지 실례를 든 바와 같이 우리 농촌 경리 부문에는 외화 획득에서 실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외 수출 품종들을 허다히 가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 농촌 경리 분야에서 현존하고 있는 조건들을 옳게 리용한다면 국가에 막대한 외화적 리득을 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킬 수 있는 공예 작물 재배의 가능성들과 현실적 제 조건들이 얼마든지 있다。 한 농가에서 자기 정원과 기타 공지에다가 피마자 열 포기를 재배한다 해도 포기당 三백 그람씩 생산될 것으로 보고 이를 공화국 북반부의 매 농가로 계산해 볼 때 그 숫자는 막대한 것이다。

문제는 농민들을 외화 획득을 위한 사업에 관심하도록 하며 온갖 가능성과 예비들을 현실성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데 있다。

때문에 우리는 곡물 생산의 증가와 함께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공예 작물들의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경공업 원료를 충분히 보장할 뿐더러 그의 경제적 타산에 립각한 외화를 획득할 과업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예 작물 재배에 있어서 적지 적작 원칙에 립각한 집중 재배 방법을 광범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선진적 방법을 보급시키는 등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자원 중의 하나인 과실

생산을 백방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이와 아울러 우리 나라는 잠업 발전을 위한 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바 그의 증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인민들에게 풍부한 식물성 유류 공급을 위하여서와 대외 시장에서 고가로 요구하는 락화생、해바라기 등의 작물 재배를 확장함과 동시에 수익성이 높은 엽연초를 적지에 집중 재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농촌 지도 일꾼들이 농업 생산을 위한 사업을 적극 개선하며 광범한 농민 대중의 애국적 열성과 창조적 로력과 증산 의욕을 고무 추동함으로써 이상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 三、수산 부문에서의 수출의 증대

오늘 수산물의 대외 수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수산물의 대외 수출에 의한 외화 획득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수산 자원은 통조림、유지、제약 및 섬유 공업과 비료 생산에 많은 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화 획득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천의 하나로 된다。 특히 외화 획득 분야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고급 어족들과 특수 수산물들 례하면 한천、해삼、갈미、김、굴、해파리、성게、조개류、낙지、새우、대구、방어、가재미、조기、칼치、청어、명란、고등어알、어박、어분、어교、어간유、해초류、고기비늘 등은 상당한 정도로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수산 부문 앞에는 수산물의 국내적 수요를 보장하며 외화 자원을 적극 개발 동원할 데 대한 과업이 중요하게 나선다。

내각 결정 제三三호에는 『금후 수산 부문 수출 사업을 시급히 개선 강화하고 대외 시장에서 다량 수요되는 특수 어족류、미역、한천、어분、어박、간유 등 수산물들과 그의 가공 제품들의 수출을 현저히 증가시킬 것』이 지적되였다。 우리 나라는 三면이 바다로 둘려져 있는 조건하에서 식료품 자체로서나 그의 가공업、유지 화학 공업、비료 제조 공업、소금 가공 공업 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수산 자원은 풍부하게 있다。

이제 우리 나라에 풍부한 소건 명태를 비롯한 소건 낙지、소건 미역、소건 콤푸、소건 김、소건 문어、자건、해삼、자건 한천、자건 갈미、자건 계살、자건 잡패、염신 운단、자건 생복、자건 패주、어간유 등을 실례로



든다 하더라도 각각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거액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

| 수출 가능한 품종 / 수입 대상 품종 | 단위 | 좁쌀을 수입한다면 (톤) | 면직물을 수입한다면 (메―터) | 조면을 수입한다면 (톤) | 고급 내의를 수입한다면 (착) | 마로푸를 수입한다면 (톤) |
|---|---|---|---|---|---|---|
| 소건 낙지 | 一톤 | 一二 | 二、八九〇 | 一 | 三一〇 | 三 |
| 소건 명태 | 〃 | 二 | 六五〇 | — | 六八 | — |
| 소건 미역 | 〃 | 三 | 七五〇 | — | 八七 | — |
| 소건 김 | 〃 | 三四 | 八、〇九〇 | 三 | 八七〇 | 四 |
| 소건 문어 | 〃 | 七 | 一、七三〇 | — | 一八七 | — |
| 자건 해삼 | 〃 | 五〇 | 三、一四〇 | 五 | 一、三〇〇 | 五 |
| 자건 한천 | 〃 | 三八 | 九、二五〇 | 四 | 一、〇〇〇 | 四 |
| 자건 갈미 | 〃 | 二八 | 六、七〇〇 | 二 | 七三五 | 三 |
| 자건 계살 | 〃 | 一一 | 二、五四〇 | 一 | 二七五 | 一 |
| 자건 잡패 | 〃 | 四 | 八六〇 | — | 一〇〇 | — |
| 염신 운단 | 〃 | 五 | 一、二七〇 | — | 一三七 | — |
| 어간유 | 〃 | 一七 | 四、〇五〇 | 一 | 四三七 | 二 |
| 자건 생복 | 〃 | 四八 | 二、五六〇 | 五 | 一、二五〇 | 五 |
| 자건 패주 | 〃 | 四八 | 二、五六〇 | 五 | 一、二五〇 | 五 |

*(이 숫자적 대비는 대략적인 것이)

이 밖에도 우리 나라 수산 자원 중에는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콤푸、염신 명란、자건새우、자건 새우살、고기 비늘、어박、어분、어교、자건굴、방어、고등어、가재미 등등이 풍부하게 있다。

이와 같은 몇가지 실례들은 우리 나라의 풍부한 수산 자원들을 외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과 현실적 제 조건에 대한 증명으로 되는 바 문제는 우리 나라의 국영 및 수산 사업소、수산 협동 조합들과 반농반어 협동 조합들을 옳게 조직 동원 리용한다면 그들의 생활 수준 향상은 물론이고 국가에 막대한 외화적 리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이 풍부한 해산물들과 한천、어분、어간유 등 수산 제품들은 그 품질의 불량으로 인하여 절대 다수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그 생산을 위한 시설들은 다수 경우에 있어서 복구 정비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수출 사업 발전을 위하여 수산 분야에서 수행하여야 할 과업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신중한 연구와 력량이 경주되여야 할 것이다。

첫째、외화 획득 원천을 적극 탐구 개발하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고급 어족들과 패주류 등의 광범한 수출 원천을 조사 장악하며 자원의 최대한의 리용 대책과 그의 보호 증식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량 음료 및 기타의 원료로서 중요하며 외화 가격이 높은 한천과 김 양식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

이다。

둘째、중소 어업과 세소업을 발전시켜 외화 자원을 많이 획득하며 특히 수산 협동 조합들과 반농 반어 협동 조합들에게 수출품 생산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이며 그들에 대한 수출품 대금 결재에서 필요한 현물 보장제가 고려되여야 한다。

세째、수출 품종을 확장하며 특히 신제품 생산의 기술적 보장 대책들이 강구되여야 한다。 우선 어류 통조림을 포함한 상대국의 기호에 적응한 생산을 조직하기 위하여 경험 교환 및 기술 간부를 육성하는 사업을 시급히 조직 진행하며 국내의 경제적 타산으로부터 출발하여 랭동 어류 수출을 위한 랭동 설비를 확장하며 조개류 수출품의 가치를 보다 높이기 위한 조직적 대책이 반드시 시급한 시일내에 강구되여야 할 것이다。

네째、수출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강한 조직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품 원료의 선도 보장、위생성 보장、가공 공정、포장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생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각 기업소、협동 조합들에서의 각양한 생산 공정과 작업 방법 및 포장에서의 락후성을 제거하며 검사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수출품 표준 규격과 포장 규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제품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단한 기술 지도 사업이 진행되여야 할 것이다。

## 四、약초류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산야들에는 가치 있는 각종의 약초가 무수하게 산생되고 있으며 또 재배하면 생산이 가능한 귀중한 약초들이 많다。

이러한 약초들은 인민들의 질병 치료와 보건 위생 및 공업 원료의 재료로써 다량적으로 유용하게 리용되고 있으며 또 외국에서도 다량 요구하는 약초들이 적지 않게 있다。

즉 우리 나라의 산야에는 실로 三천 五백 여 종에 달하는 약용 및 유용 식물 등이 풍부하게 생성하고 있는바 그를 기후 토질에 적합하게 재배하면 다량 생산이 가능한 약초들의 종류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를 잘 리용하지 않을 뿐더러 자연 약초림 보호 증식 및 재배 등 다량 생산 대책이 강구 실시되지 않고 매년 외국으로부터 다량의 약초들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우리가 이 결함을 시급히 시정하고 만약 우리들이 그의 시기성을 놓치지 않고 제때에 다량적으로 약초 채취 및 가공을 위하여 우리 나라의 각종 협동 조합들과 군중을 옳게 조직 발동시킨다면 국내 수요에는 물론 거액의 외화를 획득 리용할 수 있다。 그의 몇가지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수출 품종 \ 수입대상 품종 | 단위 | 좁쌀을 수입한다면 (톤) | 면직물을 수입한다면 (메-터) | 고급동내의를 수입하면 (착) | 자전차를 수입하면 (대) | 파종기를 수입하면 (대) | 석유를 수입하면 (톤) | 초면을 수입하면 (톤) |
|---|---|---|---|---|---|---|---|---|
| 살구씨 | 一톤에 | 三 | 六,五00 | 五七一 | 四八 | 三 | 二五 | 二 |
| 세신 | 〃 | 三0 | 四,000 | 五二五 | 四三 | 三 | 二三 | 二 |
| 시호 | 〃 | 三0 | 四,000 | 五二五 | 四三 | 三 | 二三 | 二 |
| 대황 | 〃 | 三 | 六00 | 一七五 | 六 | 一 | 三 | 一 |
| 백봉령 | 〃 | 三 | 六00 | 一七五 | 六 | 一 | 三 | 一 |
| 만삼 | 〃 | 八 | 一,六00 | 二00 | 一七 | 一 | 九 | 一 |

*(이 숫자적 대비는 대략적인 것임)

이것은 국내 인민 경제적 수요는 물론 농민들과 광범한 인민 대중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천으로 된다。

때문에 내각 결정 제三三호에는 국내 원료에 기초하여 제약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킴과 동시에 우리 나라에 다량으로 성장되는 각종 약초들의 재배、채취、건조、보관 관리 사업을 대중적 운동으로 잘 조직하며 그의 가공을 질적으로 제고하며 약초를 외화로 전환시킬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약초를 가공하고 있는 범위를 훨씬 확대하며 그의 원천을 광범히 탐구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약초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탐구 개발된 자원들이 유효하게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동원되도록 조직적 대책을 강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외화 획득에서 가장 전망이 풍부한 약초인 헤노포티움의 재배를 광범히 조직 진행하며 그의 가공 대책을 속한 시일내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과업을 옳게 수행한다면 매년 다량 수입하고 있는 의약품 및 약초를 현저히 축소할 수 있으며 거액의 외화를 획득 보장할 수 있다。

## 五、기타 부문

우리 나라에는 투자를 전혀 하지 않거나 혹은 아주 적게 투자하고도 국가에 막대한 외화적 리득을 주는 것은 물론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비가 있다。

그것은 농업、수산 및 생산 협동 조합들과 개인 농민 및 인민들의 리해 관계를 세심히 결부시키면서 대외 시장이 많이 요구하는 사과、락화생、버섯、밤 등의 토산물과 특수 어족에 속하는 해산물과 닭털、오리털、소뿔 등 기타 수출 가능한 품종들을 수매、보관、포장하여 수출을 확대하며 특히 유색 금속 폐물(파동、황동설、파연) 파철 및 파고무의 수매 조직을 광범한 군중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여 생산에 리용함으로써 유색 금속 제품과 생 고무의 수입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문제이다。

사실상 우리 나라 농산물과 부업 산물 및 기타 자원들 중에는 아직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동원 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들이 적지 않게 있다。 이러한 사정은 수매 사업의 보다 높은 개선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우리 수매 사업이 보다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여 이 사업에 도시와 농촌 어촌의 광범한 근로 인민들을 적극 동원 인입한다면 다음 몇 가지 실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품으로 버리고 있는 오리털、닭털、돼지털、게사니털、염소뿔、조개 껍질 등과 입깔나무씨、은행 나무씨 등에 의하여서도 국가에 막대한 외화적 리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 수출 품종 | 단위 | 좁쌀을 수입한다면 (톤) | 면직물을 수입한다면 (메-터) | 동내의를 수입한다면 (착)(고급) | 자전차를 수입한다면 (대) | 파종기를 수입한다면 (대) | 승용차(뽀베다)를 수입한다면 (대) |
|---|---|---|---|---|---|---|---|
| 오리털 | 一톤에 | 二四 | 五、七九 | 六一九 | 五八 | 三 | 一 |
| 닭털 | 〃 | 一六 | 五、000 | 五九二 | 五四 | 三 | 一 |
| 돼지털 | 〃 | 一〇 | 二、四七七 | 二六三 | 二四 | 二 | — |
| 계사니털 | 〃 | 三〇 | 七、三〇九 | 七九三 | 七四 | 四 | 一 |
| 염소뿔 | 〃 | 一五 | 三、九九一 | 四三三 | 四一 | — | — |
| 조개껍질 | 〃 | 一 | 三四〇 | 三六 | 三 | — | — |
| 입갈나무씨 | 〃 | 二九 | 六、九三六 | 七三〇 | 七〇 | 四 | 一 |
| 은행나무씨 | 〃 | 三 | 六八二 | 七四 | 七 | — | — |

*(이 숫자적 대비는 대략적인 것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원을 조직 동원 리용하지 못하여 생산에서나 외화 획득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을 뿐더러 인민 생활 향상 특히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수매 방법、수매 체계、수매 가격 제정 사업들을 급속히 개선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 향상은 물론 국가에 막대한 외화적 리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상술한 자료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 부원들은 국내 인민 경제 발전의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의 가능성들과 현실적 제 조건들은 얼마든지 구비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때문에 보다 많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업이 제기된다。

우선 우리 나라의 생산 및 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제품의 규격과 질을 높이며 포장 규격을 질적으로 보장하며 대외 시장의 기호에 적합하게 가공 수출함으로써 대외적 판로를 확대하며 외화 획득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중적 수요품이 아닌 수출 대상 물자들에 대한 증산을 적극 장려하며 국내적 소비를 제한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은 용이한 일이 아



니며 복잡하고도 곤난한 것인만큼 주도 세밀한 조직과 신중성과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국내 경제의 제반 실정에 정통함은 물론 상대국의 시장 동태와 경제 형편들을 상세히 파악한 기초 우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외화 획득과 외화 절약을 위하여 전 당과 전체 인민이 동원되여 수출품의 원가 저하와 생산 증대와 수송 사업에 깊은 관심과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항만 건설과 철도 설비들을 확장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 조국 력사에서 거대한 사변으로될 제一차 五개년 계획은 방대한 규모와 범위에서의 수출의 광활한 전망을 약속하고 있다。 외화 획득을 위한 우리의 대외 무역은 상술한 제 요구들을 보장함으로써만 당과 정부의 요구에 수응할 수 있다。

## 외화 절약은 외화 획득의 담보이다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은 외화의 합리적 리용과 그의 절약을 위한 투쟁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여야 한다。

외화 절약、이것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인민 경제의 확대 발전을 위한 자금 축적이며 특수적으로는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위한 추진력으로 된다。

특히 현 계단에 있어서 자금 축적을 강화하는 것은

내각 결정 제三三호에는 수출품 생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 계획을 질 량적으로 적기에 완수한 모범 기업소들과 새로운 수출 원천 탐구와 수출품의 질 향상 및 기타 수출 사업에서 공훈이 있는 기관、개인、단체 및 일꾼들에게 상품 또는 현금으로써 광범히 표창할 일련의 조직적 대책까지 지적되여 있다。

바로 이 대책은 외화 획득을 위한 투쟁에서 전체 기사、기수、로동자、관리 일꾼들과 전체 인민 대중속에서 광범한 애국적 운동과 열성을 전개할 수 있는 힘찬 호소와 궐기를 요구한다。

외화 획득을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는 것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큰 기여로 될 것이다。

우리 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때문에 외화를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 나라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사업의 객관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인 바 사회주의적 소유를 옹호하며 그를 애호 절약하며 사회주의적 축적을 강화하는 것은 공화국의 매개 공민들의 신성하고도 고상한 의무로 되고 있다。

그러나 외화 절약을 위한 투쟁에서 일부 경제 성(국)

및 기관들과 그 지도 일꾼들의 사업에는 아직도 허다한 부족점들이 존속되고 있다.

일부 성(국)들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각종 제품들과 원료 자재들을 다량 생산하여 수입품 사용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수입을 년년이 축감할 데 대한 연구와 노력이 부족한 결과 능히 절약할 수 있는 외화가 적지 않게 지출되고 있다. 례를 들어 석탄, 강재, 동선, 석면, 탄산 소다, 락크, 뼁끼 등을 위시한 일련의 자재, 원료 및 연료들과 각종 건설 기계와 전기 기자재, 공구류, 유리 제품, 부속품, 의료 기구들, 화학 제품, 농약 등을 위시한 허다한 제품들은 국내 생산을 적극 확장함으로써 그 수입을 현저히 축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량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건설, 생산 및 운수 부문에서 원료 자재 소비 기준량을 선진 로동자들이 이미 달성한 성과들에 기초하여 그를 계속 저하시키기 위한 투쟁을 미약하게 전개하며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지 않고 있는 결과 귀중한 수입 원료, 자재들이 계속 랑비되고 있다.

또한 대외 수입에 있어서 국내 생산, 보유 및 그의 소비 정형과 규격들을 정확히 타산 검토하지 않고 주문서를 작성하는 결과 국내 수요에 부합되지 않는 원료, 자재들과 기계 설비들을 수입 혹은 필요 이상 수입함으로써 막대한 국가 예비품을 조성시키며 외화들을 사장 및 랑비케 하고 있다.

많은 성(국)들에 있어서 거액의 외화를 소비하여 분양 받은 일부 기술 문건들은 번역도 되지 않고 리용도 하지 않고 있으며 초빙된 각국의 기술자들에게도 작업 및 사업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하여 주지 못한 결과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조직도 부족하다.

또한 세밀한 타산과 연구도 없이 실습생들과 견학단들을 필요 이상으로 외국에 계속 파견하며 자체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부면들에서까지도 외국 기술자들을 계속 초빙하는 경향들도 반드시 근절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비상업적 관계로 소비되는 외화가 거액에 달한다. 일체 외화의 수입 지출은 통일적인 관리와 통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강한 제도와 절차가 확립되지 못한 데서 개별적 기관들이 외화를 자체로 보유하고 있거나 분배 받아 외국 시장에서 자유 구입함으로써 외국 시장에 혼돈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랑비를 초래하고 있다.

일부 성(국) 기관들과 일꾼들은 외국 수입품을 마치 이웃집에서 가져 오는 것과 같이 무질서하게 주문을 제기하는 현상들이 있는 바 一九五五년도에만 하여도 외국 수입 기본 주문에 비하여 추가 주문이 三一%에 해당하는가 하면 수십차의 삭제, 변경, 조절 등 무질서한 경향들도 동반하게 하였다. 또한 일부 지도 일꾼들



이 국내 인민 경제 발전의 현실에 대하여 정통하지 못하며 외국 경제와 국내 인민 경제를 초보적이나마 연구도 하지 않으며 수입품에 대한 그의 경제적 타산을 불철저하게 진행한 결과 거액의 랑비를 가져오게 하였다. 특히 우리 일부 일꾼들 가운데는 국내에서 얼마든지 해결 보장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결함을 하루 속히 시정한다면 외화 획득과 못지지 않게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바 그의 몇가지 실례만 들어도 충분할 것이다.

만약 우리 나라에서 금년에 꼭스를 수입하지 않고 꼭스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꼭스를 생산한다면 국가에 막대한 외화 리용상 라득을 줄 수 있는 바 그의 금액은 좁쌀이라면 약 四八四톤, 생고무라면 五二一톤, 석탄이라면 四八〇〇여톤에 해당되는 물자를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금년 수입에 예견한 면사와 면직물을 수입하지 않고 조면을 수입하여 그를 국내에서 생산한다면 그의 리득은 생고무라면 一만 二천 여톤, 좁쌀이라면 二만五천 여톤, 주석이라면 三천 여톤, 안치모니라면 一만 三천 여톤, 석탄이라면 백만 여톤, 질안 비료라면 六만 五천여 톤, 뜨락또르(y-2)라면 六천여대, 승용차(뽀베다)라면 六천 여대 등을 각각 수입할 수 있는 량에 해당된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작년도에 외국에서 수입하였던 조면, 면사, 면직물들을 전부 조면으로 환산하고 이 조면을 국내에서 재배한다면 그의 면적에서 생산되는 좁쌀 五만 二천 여 톤을 외국에서 수입하고도 막대한 외화가 남게 되는 바 그 외화로써 화물 자동차(지스) 二천 五백대를 수입할 수 있으며 또한 시내 뻐스를 수입한다면 七백 여 대에 해당하며 생고무라면 一만 四천 六백 여 톤이고, 질안 비료라면 七만 七천 六백 여 톤이고 휘발유라면 一三만 七천 여 톤의 물자들에 해당되는 것을 수입할 수 있다.

더우기 좁쌀을 수입한다면 一三만 七천 여 톤에 해당되는 것을 수입할 수 있다.

또한 탄닝엑쓰의 원료로써 풍부한 도토리, 오배자는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서 다량 산생되고 있으나 그의 가공 대책은 아직도 강구되지 못하고 매년 다량의 탄닝엑쓰를 수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 나라에서 현존하고 있는 설비들을 좀 더 복구 확장한다면 매년 고가의 외화를 소모하면서 수입하고 있는 탄산 소다, 아연화 등을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대외 수출을 하여 막대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

이상 일부 기관들이 구체적인 경제적 타산이 없이 수입에만 의존한 결과는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는가 하면 필요 이상의 수입 물자들을 주문하여 사장시킴으로써 막대한 외화적 랑비를 조성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실례로 농업성에서는 락크모이트를 몇년 사용할 것

을 수입 주문하였으며 더우기 금속 공업성에서는 스리스발뿌와 스롭발뿌를 수다하게 산적함으로써 막대한 외화를 랑비한 참을 수 없는 현상들을 초래하였다。

때문에 내각 결정 제三三호에는 국내의 생산 시설들이 복구 확장되고 새로운 많은 기업소들이 조업을 개시하고 새 제품들의 생산에 착수함과 관련하여 생산 시설、기계、각종 부속품 및 생산 원자재들에 대한 수입품종들을 현저히 축소시키며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랑비를 근절하며 생산 및 건설에서 원자재 소비 기준을 최대한도로 저하하며 외국과의 거래를 일원화하여 외화의 지출을 엄격히 단속 절약하며 수입에 대한 생산 성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수입 주문 사업과 국내 보관 공급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데 대한 일련의 조직적 제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화 랑비 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 의연히 지속되고 있는 바 이 결함을 퇴치함이 없이는 우리 경제 발전의 높은 성과는 달성할 수 없으며 경제 건설의 속도를 촉진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국가 재산은 인민의 복리 향상과 우리 나라의 번영을 위한 인민의 재산이다。 때문에 사회적 소유를 옹호하며 외화 획득과 외화를 절약하기 위한 투쟁은 전 인민적 의무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내부 원천과 제고되는 기술 수준과 발전되는 경제 형편은 가능한 모든 것을 국내에서 최대한으로 해결 보장하며 외화의 사용을 최소 한도로 제한할 것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계단에 있어서 위대한 쏘련을 비롯한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의 원조와 관련하여 이 원조들을 가장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리용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준비와 관련하여 새로운 공장들의 건설을 위하여 국내에서 도저히 해결 곤난한 중요 설비들만을 수입하여야 하며 국내의 온갖 내부 원천들과 예비들을 동원 리용하면서 이미 건설된 공장들에 소요되는 특수한 원료와 유지 및 극 소량의 자재들만 수입하는 데 국한시켜야 할것이다。

이미 건설된 공장들에서의 제품 생산을 촉진하며 국내에서의 수입품을 대신할 대용품의 생산을 적극 확대하며 수입된 물자의 사소한 부분이라도 랑비함이 없이 애호 절약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할 것이다。

수입품의 인수、보관 관리 및 규률 위반 현상과 견결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외화를 보다 더 절약할 것이다。 수입품을 필요 이상 수입하여 사장시키거나 랑비하는 경향들은 커다란 범죄적 행위로 간주하며 규탄 폭로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화를 절약하고 수입을 제한한다 하여 대외 시장들에서 싼값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것까지 모두국내에서 해결 하기 위하여 거액의 자금과 로력을 투하하여 건설과 생산을 조직하는 현상들은 없어야할 것이



다。 어디까지나 외화의 지출을 감소시키며 수입품의 질적、시기적 보장을 위하여는 대외 시장과 대외 경제 동태를 계통적으로 연구 파악하는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외화를 확보하며 외화를 절약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는 오늘 우리 혁명의 전진을 위한 투쟁에서의 다른 모든 성과와 함께 거대한 정치、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전체 인민들이 이 투쟁에 인입됨이 없이는 이 투쟁에서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외화를 획득하며 외화를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전 당적、전 국가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한다면 우리의 경제 건설 사업의 성과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우리 력사와 사회 발전 법칙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위대한 쏘련을 비롯한 중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 인민들과의 정치 경제적 련계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의한 친선 단결은 우리 승리의 강력한 담보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정부는 이 나라들과 항상 정치、경제적 련계를 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당과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운 경제、문화적 및 기술적 관계가 확장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린방들과 평화 애호적 제 국가와의 경제적 및 문화적 련계를 확대할 데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우리나라와의 경제 문화적 련계에 대해서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인민 정권하에서의 우리의 무역은 우리 당과 정부의 지도밑에 대내적으로는 우리의 인민 경제와 인민 생활의 수요에 전적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평화와 제 인민간의 친선과 경제적 룡성을 념원하면서 호상 평등 호혜적이며 각이한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성의 가능성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당 제三차 당 대회 결정에는 대외 무역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시장과의 경제적 련계를 더욱 강화하며 또한 자본주의 시장과도 무역 관계를 확장할것、수출 원천을 적극 탐구하여 수출 품종을 다종 다양하게 만들며 수출량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하 우리의 대외 무역은 우리 인민의 력사적 혁명적 과업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물질적 담보로 되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의 기한전 완수 및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를 담당하고 있으며 당적、국가적으로 위임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기본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각이한 형태들에 관하여

김 시 중

제二차 세계 대전후 국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였다。

사회주의는 일국적 범위를 벗어나서 세계적 체계로 전환되였고 반면에 자본주의 체계는 매우 축소되고 약화되였다。자본주의의 모순이 여러면에서 격화되였고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가일층 첨예화되였다。

제二차 세계 대전의 행정에서와 대전후 일련의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이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 국가를 형성하게 되였고 아직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서는 민족 해방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렬하게 진행되고 있다。제국주의의 식민지 체계는 실로 우리 눈 앞에서 붕괴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과 새로운 전쟁 도발 정책을 반대하며 평화를 옹호하는 운동이 지구상의 방방곡곡에서 광범히 진행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여 국제 분야에서 력량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국제 정세의 이러한 변동은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을 새로 제기하고 있다。즉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문제、현 시기에 있어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각이한 형태들에 관한 문제 등등이 그것이다。

이 문제들은 국제적 분야에서의 사변들의 현 행정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전망까지도 결정하는 주요 문제들이다。

우리는 다른 문제들과 함께 특히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각이한 형태들에 관한 문제를 심오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이것은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나 또는 오늘 각국들에서 진행되



는 혁명 운동의 특색들을 리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특히 이 문제의 깊은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의 발전 과정을 창조적으로 리해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언제나 사회주의 혁명의 방도와 형태들에 대하여 고정적인 틀을 설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반대로 그들은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로의 이행 형태의 다양성을 가르쳤던 것이다。

이미 一〇월 사회주의 혁명 전야에 브·이·레닌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모든 민족들이 사회주의에 도달할 것인 바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그러나 모든 나라가 꼭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며 각자는 이러 저러한 형태의 민주주의로써、이러 저러한 종류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로써、사회 생활의 각이한 부면에서 사회주의적 변혁이 실시되는 이러 저러한 속도로써 독자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전집、二三권 五八페지)。

이 레닌적 명제의 정당성은 리론적으로 확증될 뿐만 아니라 실지 력사가 힘 있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二차 대전 이후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은 바로 이의 실물적 표시로 된다。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각이한 형태들에 대한 문제를 여러 방면에서 고찰하기 위하여 몇 개의 문제들로 세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정권 형태의 다양성에 대하여

**어떠한 나라에서든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권이 수립되여야 한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확고 부동한 원칙의 하나이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정권의 형태는 다양하다。각국에서의 혁명 투쟁의 력사적 과정、력량 관계、그 나라의 이러 저러한 특성 등에 따라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주권이 각각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쏘련에서는 쏘베트 형태를 통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이 쏘베트 정권은 인류 력사상에서 처음 보는 새 형의 정권이였다。

제二차 세계 대전 이후 아세아와 구라파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쏘베트 형태와는 구별되는 인민 민주주의 정권 형태에 기초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정권 형태들은 본질적인 공통성과 함께 또한 각각 자기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더라도 인민 민주주의적 정권 형태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불패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에서도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이들의 정권 형태들에 비하여 더욱 많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로동 신문』 一九五六년 五월 七일부 제四면에 게재된 재료 참조)。

이렇게 사회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정권 형태는 각이한 나라들의 구체적、력사적 조건에 의하여 다양하다。

그러면 이상에서 본 형태 이외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정권 형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없겠는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오늘의 모든 조건과 혁명 정세로부터 미루어 볼 때 일부 나라들에서는 앞으로 의회적 형태가 사회주의 건설에 리용될 가능성이 조성되여 있다。불란서 공산당 총비서 모리스 토레즈 동지는 자기의 론설『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에서 제기된 몇가지 주요 문제들에 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불란서 인민은 오랜 공화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그들은 의회제도를 귀중히 여긴다。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의회 제도를 리용한다는 것은 아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의회 제도가 사회의 변혁을 위하여 리용될 때 그것은 부르죠아적 의회 제도가 그대로 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의회에서 인민의 진정한 대표가 다수를 차지한 후 의회를 진정한 인민의 도구로 개조하면서 사회적 변혁에 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정권의 형태의 다양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명제에 대한 심오한 인식은 혁명적 실천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

각국의 맑스—레닌주의자들、혁명 세력들은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주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함에 있어서 이미 다른 나라들에 수립된 정권 형태와 꼭 같은 형태를 옮겨 놓으려고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 나라의 모든 구체적 조건에 적응한 정권 형태를 실현하도록 해야 된다。그리고 일단 정권을 수립한 이후에도 그것을 개선 강화하며 발전시킴에 있어서 자기 나라의 특성들을 고려하면서 사업해야 한다。

우리 인민 정권이 쏘베트 정권과는 물론이고 다른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정권과도 형태상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정권의 형태 문제는 그의 조직 기구상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각 정당들、대중 단체들과의 관계 또는 다른 각종 기관들과의 관계、기타 여러 측면에서도 형태 문제가 고찰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공화국 정권이 다른 인민 민주주의 정권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우리 공화국 정권의 정치적 권력 행사는 현실적으로



는 북반부에 국한되여 있다。그러나 우리 공화국 정권은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의 총의를 합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정권이다。그는 남북반부 전체에 걸쳐 진행된 민주주의적 총선거에 의하여 수립된 전 조선적 주권인 것이다。따라서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주권은 그가 현실적으로 정치적 권력 행사를 실현하고 있는 북반부의 정치적 력량과 북반부의 민주주의적 정당、사회 단체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조선적인 민주주의적 정치적 력량、전체 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사회 단체에 기초하고 있다。우리 공화국의 정권은 북반부의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 뿐만 아니라 남반부의 민주주의 정당、사회 단체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전 조선적 민전 조직체인 조국 통일 전선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조국의 통일、즉 반제、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전국적 완수를 추진시켜야 하는 기본적 임무에 가장 적응하는 인민 민주주의적 정권인 것이다。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였을 때 우리 정권은 어떠한 것으로 되겠는가?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위업이 진척되는 구체적 행정은 이 통일이 실현된 후 수립될 정권의 형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의 구체적 행정 여하에 따라 혹은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정권의 형태상의 이런 또는 저런 측면들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또 혹은 형태상의 새로운 요소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여하튼간에 그것은 인민 민주주의적 정권이며 우리 조국의 혁명적 발전을 힘 있게 추진시킬 수 있는 주권이 될 것은 명백하다。

왜냐 하면 전체 조선 인민이 인민 민주주의 정권과 북반부에서 실현된 모든 사회 제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 주권 수립 이후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다양한 형태에 대하여

쏘련에서는 一〇월 혁명후 약 二〇년 동안에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였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은 자본주의의 완전 포위 속에서 한 나라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을 보여 주었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건설의 경험은 모든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적용되여야 할 일반적 원칙을 보여 주는 동시에 당시 쏘련에만 적용된 일련의 특성들도 보여 주었다。

제二차 세계 대전 이후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쏘련에서의 그것과는 방도 및 형태에 있어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사회주의 공업화의 구체적 과정、농업 집단화의 방도 또는 개인 상공업을 청산하는 방법 및 기타 등에서 쏘련에서와 많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 호상간에 있어서도 이런 또는 저런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다。특히 구라파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과 아세아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간에 또는 국토가 완정된 나라들과 국토가 분렬되여 있는 나라들 사이에는 차이가 보다 많다。

유고슬라비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 많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특히 이 나라에서는 공장、기업소들과 농업 생산에 대한 지도가 완전히 지방 분권화되여 있으며 유고슬라비야 련방 인민 공화국의 중앙 관리 기관 체계 내에는 경제 부문 관계 성들이 없다。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그것과 공통적인 점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많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위한 투쟁이 쏘련과는 상이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쏘련에서는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시기에 타국으로부터 효과 있는 원조를 받을 수 없는 조건에서 중공업의 모든 부문을 필수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였으며 그리고 강력한 자립적 경제를 급속히 확립하기 위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어느 정도 희생으로 하면서라도 중공업의 각 부문을 강행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였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서는 국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로부터의 성의 있는 경제적 협조를 고려하여 중공업의 모든 부문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문、가장 긴요한 부문들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다。반면에 우리 나라 조건에서 발전시키기 매우 곤난한 부문(례컨대 자동차 공업、뜨락또르 또는 뽐바인 제작 공업 기타)들을 지금 곧 발전시키지 않고서도 국제적 원조로써 수요를 일정하게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의 호상 관계에 있어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도 동시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사회주의 진영내에서의 경제적인 전문화와 협동화의 가능성은 모든 인민 민주주의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 공화국에서도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과정을 쏘련에서의 그것과 상이하게 하여 주었다。

우리 조국이 아직 통일되여 있지 않는 조건과 우리 나라 공업의 심한 식민지적 편파성은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준비하며 그를 추진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면에서 큰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공업 건설과는 다른 특성들을 가지게 하였다。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일반적으로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쏘련에서와 같이 국유화된 토지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토지들이 사유로 되여 있는 조건에서 농업 집단화를 하고 있는 바 이 사실은 집단화 과정에 일정한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청산에 있어서 쏘련에서 계급으로서의 부농을 청산하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특히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농업 집단화에 있어서 부농을 협동 조합에 적당히 가입시키면서 그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중국 또는 동부 독일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다른 많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보다 집단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 개인 상공업에 대한 대책은 매우 중요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쏘련에서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개인 상공업자들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 자본주의적 형태를 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 북반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국가 자본주의적 형태를 거의 적용하지 않으면서 개인 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 나아간다면 국가 자본주의의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 상공업을 완전히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인 단정으로 될 수는 없다。앞으로 조국의 통일이 실현된 후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에로 매진할 때도 우리에게는 국가 자본주의의 방법이 불필요하겠는가? 이것도 미리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남반부의 민족 자본가들의 다수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나서고 그들이 평화적 통일 사업에 크게 참가하면서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였을 때 혹시 국가 자본주의의 방법이 필요해질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특수성들 이외에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많은 다른 특수성들도 있다。례컨대 생산력의 발전 템포와 생산 관계의 개조의 템포와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이때까지의 과정과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전망을 볼 때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생산력 발전 템포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그리하여 쏘련에서 사회주의의 건설이 기본적으로 완수되던 시기에 비하여서는 더 말할 여지도 없고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특히 구라파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생산력을 가지고서도 생산 관계의 전면적인 사회주의적 개조가 실현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 것이다。즉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제一단계를 완성할 제一차 五개년 계획 기간내에 생산 관계의 면에서는 사회주의적 관계가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거의 완전히 유일적 체계로 전화될 것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 생산 관계의 개조가 생산력 발전의 템포보다 훨씬 빠르게 되는 원인으로서는 일제로부터 매우 락후한 생산력을 물려 받은 사실、일제 시기에 산업의 대부분이 일제와 예속 자본가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었기 때문에 중요 산업 국유화에 의하여 산업의 대부분이 국유화되게 되였던 사실、三년에 걸친 조국 해방 전쟁에 의하여 생산력이 심하게 파괴된 사실、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가 극히 미약한 사실、인민 대중 속에서의 의식성의 급속한 제고 등 기타의 국내적인 요소들과 국제적인 유리한 조건들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 사회주의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가능성에 대하여

혁명이란 간단히 말하여 사회 제도의 교체를 의미하는 말이다。 때문에 낡은 사회 제도가 철폐되고 새로운 사회 제도가 수립되는 것은 성공적 혁명의 본질적 표징이다。

혁명 문제가 취급될 때 반드시 사회 제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교체되는가 하는 문제、즉 무장 폭동을 통하여 진행되는가 또는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혁명 수행의 방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혁명의 수행 문제를 어느 한 방도와만 결부시킨 일이 없다。구체적 조건을 타산하면서 무장 폭동을 통하여서만 가능할 때에는 이와 결부시키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평화적으로도 가능할 때에는 이와 결부시키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군사 관료 기구가 강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를 파괴하기 위한 폭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폭동을 대중적으로、조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들도 제시하였다。

동시에 맑스는 이미 一八七〇년대에 영국、미국 등에서는 무장 폭동 없이도 혁명이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맑스는 一八七二년 암스테르담의 군중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꼭 같은 수단으로 이 목적(정권 쟁취—필자)이 달성된다고는 결코 단언하지 않았다。

우리는 개별적인 나라들의 제도、풍습 및 전통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그리고 또 우리는 미국、영국(내가 만약 당신들의 제도를 더 잘 안다면 화란도 여기에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과 같이 로동자들이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맑스—엥겔스 전집』로문판 제一판、제三권 제二부、六六九페지)。

엥겔스도 많은 자기 론문들에서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그는 『에르프르트 강령 초안 비판』에서 일체 권력이 국민 대표 기관에 집중되여 있는 나라들에서는 낡은 사회가 평화적으로 새 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러한 나라로서 불란서、미국、영국 등을 들었다。

레닌은 제국주의 시기의 모든 변동된 조건들을 분석하면서 특히 모든 나라에서 군사 관료 기구가 매우 강화된 사실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폭동을 통하여 사회주의 혁명이 수행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레닌도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가능성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다。레닌은 일찌기 一八九九년에 자기의 론문 『로씨야 사회 민주주의 내에서의 후퇴적 조류』에서 『로동 계급은 물론 평화적으로 정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는 편을 택할 것이다』(전집 제四권 二五四페지)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그리고 레닌이 로씨야에서의 一九一七년 二월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 승리 후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에로 평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다。

이렇게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혁명 수행의 두 가지 방도를 다 인정하면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취급하였다。 력사는、사회주의 혁명이 어떠한 나라들에서는 무장 폭동의 방법으로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평화적 방법으로 수행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로씨야의 一〇월 사회주의 혁명은 一九一七년 七월 사변 이후 조성된 새로운 정세로 말미암아 혁명의 평화적 발전이 불가능하게 되여 결국 전 인민적 무장 폭동에 의하여 수행되였다。

중국에서는 수십년 동안의 무장 투쟁을 통하여 반제、반봉건 혁명에서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가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적 개조에로 이행하게 되였다。

구라파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도 쏘베트 군대의 해방적 역할과 二차 대전후의 유리한 국제 정세 밑에 국내 전쟁 없이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였다。

보는 바와 같이 력사는 무장 폭동 이외에 혁명 발전의 평화적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예견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어떠한 조건에서 무장 폭동、국내 전쟁이 불가피한가?

반동적 국가 주권의 군사—관료 기구가 매우 강하며 반동 계급의 폭력적 반항이 심히 강하고 이것들을 대중의 일반 민주주의적 투쟁을 통하여 분쇄할 가능성이 제외되여 있을 경우에는 무장 폭동、국내 전쟁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무장 폭동、국내 전쟁은 사회주의 혁명의 본질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며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전술의 항구적 요소로 되는 것도 아니다。무장 폭동은 공산주의자들 또는 로동 계급의 요구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혁명을 가로 막고 있는 반동 세력의 태도여

하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고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새로운 전망이 열려져 있다。 제二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주의는 세계적 체계로 전환되여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력량은 급격히 장성된 반면에 자본주의는 매우 약화되였고 그의 모순들이 일층 명백히 드러나게 되였다。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부르죠아 정부와 그의 정책들이 빈번히 파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의 견인력을 급속히 강화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되게 하였다。 오늘 사회주의 사상의 견인력이 얼마나 확대 강화되였는가 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부르죠아 자신들도 대중을 기만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표현 형식들을 사취하여 『인민적』 자본주의니 『계획 경제』니 하고 떠드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二차 대전 이후 새로 독립된 국가들 가운데서 아직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이 아닌 그러한 나라들의 정부들이 이런 또는 저런 형식으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네루 수상은 인도에서도 사회주의적 형태의 사회를 건설해야 하겠다고 언명한 사실들은 오늘 사회주의 사상의 견인력이 얼마나 강화되였는가 하는 명백한 표현의 하나로 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로동 계급의 조직성과 의식성이 매우 강화되였고 그는 농민、 인테리、 모든 민주주의적 력량과의 련계를 강화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건에서 국내의 군사—관료 기구가 비교적 약한 나라들 또는 대중적인 민주주의적 투쟁을 통하여 현재 강한 군사—관료 기구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전망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인민 대중의 대표가 의회내에서 확고한 다수파를 획득하고 이 의회를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기관으로부터 인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대변하는 도구로 전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라들에서 의회 투쟁은 각별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로서 현재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불란서、 이태리、 영국 및 기타 일련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또는 일련의 이전 식민지였던 새로운 독립 국가들을 지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부터 세계의 모든 나라들(사회주의에로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혁명이 평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들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로 확연하게 고정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현재의 조건만 볼 때는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또는 없다고 보여지는 나라들도 앞으로의 국제 국내적 정세의 발전 행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이 나라는 평화적 방법이 절대적으로 고정화된 유일의 방법이라는 단정은 내릴 수 없다。 이것도 국제 국내적 사태의 진전 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현재 조성되여 있는 가능성을 리용하면서 또는 가능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혁명의 평화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사실이 개량주의적 립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개량주의자들은 혁명 그 자체를 부인하는 립장에 서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테두리내에서의 사소한 개혁、 개량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혁명의 립장에 서 있다。 단지 혁명 수행의 방도에 대하여 신축성 있게 대할 뿐이다。 그들은 평화적인 개량만을 요구하며 우리는 혁명의 평화적인 방법도 인정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대립되는 립장이다。

쏘련 군대에 의하여 우리 조선이 일제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후 우리는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국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광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

그러나 조국 남반부에서의 미제의 식민지화 정책으로 인하여 이 가능성이 현실화에로의 자기의 길을 용이하게 개척할 수 없었다。 우리 혁명은 간고성과 장기성、 복잡성을 띄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혁명의 완수를 위하여서는 우선 북반부에서만이라도 혁명을 추진시키여 전국적인 혁명의 원천지、 민주 기지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였다。

우리 북반부에서는 유리한 조건 밑에 국내 전쟁 없이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과업을 완수하고 점차 사회주의에로의 과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러나 우리 조선 인민의 가장 혈연적이며 긴박한 요구는 조국의 통일、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전국적 완수인 것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요구에 적응하여 첫날부터 조국의 통일을 위한 적절한 방책들을 내놓았다。 이의 정당성은 날이 갈수록 확증되여 왔다。

우리 당 제三차 대회에서는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책들을 제시하였다。 오늘 전인민적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추진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최근 결성된 『재북 평화 통일 촉진 협의회』의 활동은 주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현실적 가능성은 어데 있는가? 제三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방책에 기초하여 볼 때 평화적 통일을 가능케 하는 주요한 조건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다。

첫째로 날이 갈수록 공고화되고 있는 우리 북반부의 민주 기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가장 믿음직한 담

보로 된다。

둘째로 미 제국주의 세력과 그의 주구 리 승만 역도는 남반부에서 완전히 고립되여 가고 있는 바 이 고립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중적 운동의 조건으로 된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는 오늘 로동자、농민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파산 령락되고 있는 중소 상공업자들로부터도 고립되여 가고 있다。

세째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 의하여 도발되였던 三년 여의 전쟁의 경험은 남북 전체 조선 인민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숙망을 더욱 촉진 강화시켰다。 그들은 전쟁의 가혹한 참화를 직접 겪었으며 또 그들은 전쟁의 방법은 조국 통일의 좋은 방법으로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네째로 북반부에서의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방도는 북반부는 물론이고 남반부의 도시와 농촌의 부르죠아들까지도 포괄하는 매우 광범한 대중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 사업에 인입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중소 상공업자들、농촌의 부농들을 결코 『파멸케』 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위하여 진정한 재생의 길을 열어 준다는 사실、그것은 우리 북반부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과 기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사실이 제국주의의 역압 밑에서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에 참가케 하는 정신적 고무력을 줄 것은 명백하다。

다섯째로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의 국제적 편대성은 우리 혁명의 완전한 승리、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승리를 촉진시키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이다。

세계의 평화 애호 국가들(사회주의적 국가들)이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광범하게 전개되고 있는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대중적 운동은 우리 조선 인민들 속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사상을 더욱 급속히 배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강유력한 담보들이 있다。

오늘 혁명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운동이 많은 나라들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에서의 이 투쟁들은 각각 자기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즉 반제、반봉건적 민주 혁명을 전국적으로 평화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투쟁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투쟁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국토가 량단되여 있고 북반부와 남반부에서 혁명 발전이 전혀 불균형적으로 진전되여 있다。 북반부에서는 이미 사회주의에로 과도하고 있는 반면에 남반부에서는 제국주의와 봉건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그리



고 한국토내에 내용이나 형식이나 전혀 대립되는 두개의 정치적 권력、즉 전 인민적이며 합법적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미제의 괴뢰인 리 승만 정권이 병존해 있다。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와는 달리 혁명의 전국적 완수를 위한 투쟁이 현존하는 강력한 정권(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토대로 하면서 진행된다。

다음으로 국토의 일부인 남반부가 미제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고려되여야 한다。 따라서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는 반혁명의 힘의 주요한 근거가 외부력량에 존재한다。 때문에 국내적인 혁명 력량、민주력량의 강화와 함께 일정한 국제적으로 되는 조치가 필요하다。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제三차 당 대회에서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들이 남북 조선 정부 대표가 참가하는 국제 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지 조건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혁명의 평화적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불란서、이태리 및 기타 나라들에 비하여 공화국 남반부에는 군사—관료 기구가 매우 강하며 민주주의적 자유가 거의 페쇄되여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의 전국적 평화적 완수를 위한 투쟁은 다른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평화적 발전을 위한 투쟁과 판이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그 투쟁의 방도와 형태들도 상이한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은 다른 나라들에서 주로 의회 투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주권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과 어떠한 공통성도 없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우리의 평화적 통일은 두 정권간의 이런 또는 저런 접촉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제三차 당 대회에서 제기한 『상설 위원회』는 량 정권간 또는 남북의 정당、사회 단체、무소속 인사들 간의 접촉을 촉진시키는 것을 가장 주요한 임무의 하나로 할 것을 타산한 것이다。

그러면 량 정권간의 접촉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무엇보다도 남조선 정권내에서 특히 남조선 국회내에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는 수가 많아져야 한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남조선 국회에 대한 문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길을 지향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 의회 투쟁이 결코 평탄한 과정으로 진전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대중의 정치적 력량이 강화됨과 함께 부르죠아지의 각종 반민주주의적 반동적 책동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본래 민주주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회가 인민의 대표 기관으로 되며 국가에 대한 진정한 대표 기

관으로 되여야 한다。 그런데 부르죠아지는 자기의 지위가 위협을 느끼면 선거의 원칙을 비민주주의적으로 악변시키며 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저하시키여 의회의 결정들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때문에 이러한 반동 세력의 책동을 반대하는 대중적 민주주의적 투쟁을 강화하면서 그를 좌절시켜야 하며 이리함으로써만 의회의 다수를 쟁취하고 주권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 진전될 수 있다。

우리 공화국 남반부의 인민 대중、각계 각층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세력은 북반부의 인민 대중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민주주의적 투쟁을 광범히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남조선 국회가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왜냐 하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한 우리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로 되고 있는 것은 미제의 주구 리 승만 도배의 팟쑈적 독재하에서 남반부 인민들에게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三차 대회에서 우리 당의 당면 구호의 하나는 남반부에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는 문제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남조선 국회에는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로동자、농민의 대표가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며 또한 국회는 각계 각층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광범한 인민의 의사에 부합되게 운영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남반부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와 공화국 정부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각종 정당한 정책에 의하여 더욱 고무되며 투쟁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국제 정세의 유리한 전진、그리고 국제적인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력량、평화의 력량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의하여 더욱 고무 추동되고 있다。

### 사회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제二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적 발전을 결정하는 주요 문제들인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문제、현 시기에 있어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평화적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 등은 로동 계급의 통일의 강화에 대한 문제와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로동 계급의 통일이 결여되여 있다면 이상의 문제들도 결코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가장 긴박하게 제기되는 로동 계급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에 있어서 우선 사회당、사회 민주당 및 기타의 로동자당들과의 행동 통일이 매우 중요하다。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에서의 중앙 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에서 흐루쑈브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날 세계의 적지 않은 불행들은 많은 나라들에서 로동 계급이 다년간 분렬되여 있으며 로동 계



급의 각이한 대오들이 통일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다만 반동 세력에만 리익을 주게 되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견해로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변경될 수 있는 전망이 열리고 있다。 모든 로동자당들의 접근과 협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와 같은 협조의 실제적인 가능성을 조성하는 많은 문제들을 생활은 일정에 올려 놓았다』。

오늘 세계의 로동 계급을 위하여 가장 전면에 나서는 절박한 문제들은 새 전쟁의 방지、세계 평화의 유지、민주주의적 자유 또는 민족적 자유 등등이다。 이것들은 로동 계급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도 긴절한 문제들이다。

로동 계급에게 가장 절박한 이 문제들은 각국 로동 계급의 견고한 통일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각국의 공산당과 사회당 및 기타 로동자당들의 행동상 통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공산당과 사회당、사회 민주당간에는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인 의견 상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술한 문제들에서 호상간 접촉점들을 발견하고 이에 기초하여 협조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로동 계급의 통일에 대한 문제는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남북의 분렬은 조선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통일을 강화하는 데 지장으로 되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큰 난관은 남반부에서 미제의 고용 간첩 박 헌영 도당과 각종 종파 분자들의 해독 행위의 결과 조성된 사태이였다。

과거부터 조선 로동 운동을 분렬시키고 있던 『화요파』、『서울파』、『서상파』 등등에 속하여 있던 종파 분자들은 八・一五 해방 이후에도 우리 당과 로동 계급을 분렬시키는 해독 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의 고용 간첩 박 헌영을 두목으로 하는 『화요파』(콩크룹과 종파적으로 결탁한) 분자들을 한편으로 하고 『엠・엘파』의 변종인 『장안파』와 『대회파』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종파 투쟁이 계속되였고 박 헌영 도당은 이것을 리용하면서 남반부에서의 혁명 운동을 파탄시키는 데 광분하였다。

그리하여 八・一五 해방후 조성되였던 많은 유리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남반부에서는 로동 계급과 광범한 근로 대중을 우리 당 주위에 단결시키지 못하였다。 북반부에서는 로동 계급의 통일이 급속히 강화되고 대중적 정당으로서의 로동당의 력량이 급격히 장성되여 가는 반면에 남반부에서는 공산당、신민당、인민당의 합당이 순전이 형식상으로만 되여 비디고 로동당 이외에 『사로당』、『근로 인민당』들이 결성되는 데 이르렀다。 결국 남조선의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은 四분 五렬되여 통일된 력량으로서 적들의 탄압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할 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우리 당 앞에는 남반부의 로동 계급을 통일시키고 전 조선적으로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통일을 강화할 과업이 긴급히 제기되였던 것이다。이에 따라 우리 당은 일련의 대책들을 제기하였으나 박 헌영 도당의 파괴 행위와 종파 분자들의 행동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현되지 못하였다。오늘 이 문제는 여전히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로동 계급의 통일이 강화됨으로써 모든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 력량의 통일 전선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동시에 이 통일 전선이 확대、강화됨으로써 로동 계급의 통일도 일층 공고화된다。우리 나라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통일과 통일 전선의 강화는 호상 밀접히 련결되여 호상 작용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로동 계급의 통일을 강화하며 통일 전선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들의 행동상의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오늘 남북의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들의 행동상의 통일을 위한 주요한 접촉점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바 이것은 바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요구이다。이를 토대로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들의 협조가 능히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때문에 우리 당 제三차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은 우리 당의 정책을 천명하였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공통한 목적 밑에 남조선에 있는 일체 정당、사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의 련합을 주장하며 또한 그들과 련합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련합을 실현하고 남북 조선의 전체 애국적 정당、사회 단체、민족적 량심을 가진 모든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한 통일 전선을 결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남북 조선의 정당、사회 단체들의 련석 회의를 소집할 것을 주장하며 아직 이러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조건하에서는 개별적인 정당、사회 단체、애국적 인사들과의 회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사회 발전、혁명 발전은 일반성과 특수성들을 함께 가진다。이 일반성과 특수성은 통일되여 있으며 따라서 그중 어떤 하나에만 치중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혁명 발전의 일반적 원칙을 맑스—레닌주의 기본 리론과 형제적 제 국가의 투쟁 경험을 연구하면서 심오하게 습득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은 우리 혁명 발전의 특수성들에 큰 주의를 돌릴 것을 특히 요구하고 있다。이 특수성들이 각 방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의 특수성들은 오직 어떤 전 당적인 정책과 로선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만 고려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우리 혁명의 주요 특성들은 매개 일꾼들이 매개 자기 령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업하며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항상 고려되여야 한다。

우리 매개 일꾼들이 우리 혁명의 완수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투사이기 때문이다。



# 브·이·레닌의 미발표 문헌들

『유언』이란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 『대회에 보내는 서한』, 서한『국가 계획 위원회에 립법적 기능을 부여할 데 관하여』및 서한『민족 문제 또는「자치화」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브·이·레닌이 一九二二년 一二월—一九二三년 一월에 서취시켜 쓴 글들을 아래에 발표한다。

이 문헌들은 一九二三년 一—二월에 서취되여 당시『쁘라우다』에 발표되였던『일기 단장』,『협동 조합에 관하여』,『우리 혁명에 관하여 (엔·쑤하노브의 수기에 대해서)』,『우리는 로농 감독국을 어떻게 재조직할 것인가(제一二차 당 대회에의 제의)』,『적게 해도 좋으니 잘 하라』등의 가령적 의의를 가진 브·이·레닌의 최후의 로작들 직전에 서취된 것들이다。

『대회에 보내는 서한』에서 브·이·레닌은 공산당의 통일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당의 통일, 중앙 위원회의 위신 제고 및 당 기구의 개선을 보장하는 대책의 하나로서 브·이·레닌은 당시 二七명으로 구성되여 있던 중앙 위원회 위원수를 五〇—一〇〇명으로 증가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브·이·레닌은 자기 서한에서 당 중앙 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평하여 그들의 긍정적 및 부정적 특성들을 지적하고 있다。레닌은 트로쯔끼의 비볼쉐위즘에 대해서 쓰고 있으며 중앙 위원회를 반대하는 그의 투쟁을 회상시키고 있으며 트로쯔끼는『자기를 너무 과신하고 문제의 순 행정적 측면에 지나치게 열중하는』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레닌은 또한 一〇월 무장 폭동 준비기의 까메네브 및 지노비예브의 반당적 립장이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부하린의 리론적 견해는 충분히 맑스주의적이라고는 보기 매우 곤난하다는 사실에 레닌은 주의를 돌리고 있다。브·이·레닌은 빠따꼬브를 행정주의와 문제의 행정적 측면에 너무 열중하기 때문에 중대한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평하고 있다。

브·이·레닌은 란폭하고 변덕스럽고 충실치 못하고 동지들에 대해서 신중치 못한 쓰딸린의 결함을 지적하였다。당 중앙 위원회 총비서로 된 쓰딸린이 자기 수중에 한량 없는 권력을 집중시킨 사실을 지적하면서 레닌은 쓰딸린이 과연 그 권력을 언제나 신중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념을 표명하고 쓰딸린 대신에 다른 동무를 총비서로 임명할 데 대한 문제를 고려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서한은 브·이·레닌의 희망대로 당 一三차 대회 대표들에게 랑독되였으며 대회 대표들은 쓰딸린을 총비서의 직위로부터 조동시킬 데 대한 문제를 심의하였다。대회 대표들은 이·브·쓰딸린이 브·이·레닌의 비판을 접수하고 자기 결함을 시정할 수 있으리라는 견지에서 그를 총비서의 직위에 머물러 있게 하

기로 하였다。

브·이·레닌의 서거후 공산당은 중앙 위원회의 지도하에 트로쯔끼파、 지노비에브파、 부하린파를 사상적으로 분쇄하여 레닌주의를 고수하고 쏘베트 인민은 레닌의 유훈 실현의 길로 인도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하였다。 트로쯔끼파와 부하린파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이·브·쏘딸린은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그러나 점차 특히 이·브·쏘딸린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브·이·레닌이 념려하였던 그의 부정적 특성이 더욱 조장되여 당과 국가에 곤난한 후과들을 가져왔다。 이·브·쏘딸린은 집체적 지도의 레닌적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기 시작하였으며 전횡과 권력 람용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법률 제도를 위반하였으며 농업의 지도、 군사 및 대외 정책의 령역에서 엄중한 과오들을 범하였다。

당은 쏘딸린에 대한 개인 숭배 및 그 후과들의 청산에 관한 문제를 단호하게 제기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는 사회주의적 법률 제도와 레닌적 당 생활 규범을 회복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집체적 지도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들을 취하였다。 당 대렬의 가일층의 단결을 위한 중앙 위원회의 제 대책은 쏘련 공산당 제 二〇차 대회와 전체 쏘베트 인민의 전폭적인 찬동을 얻었다。 레닌주의의 제 원칙에 의거하여 대회는 사회주의적 쏘베트 민주주의의 가일층의 발전에 관한 지시를 주었다。

서한『국가 계획 위원회에 립법적 기능을 부여할 데 관하여』에서 브·이·레닌은 국가 계획 위원회의 커다란 역할을 강조하고 그 권한 확장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국가 계획 위원회 지도 일군들이 가져야 할 정치 실무상 품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에 발표되는 브·이·레닌의 서한 『민족 문제 또는 「자치화」 문제에 대하여』는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서한은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의 참된 창조자이며 고무자로서의 브·이·레닌과 옳은 민족 정책의 실시에 대한、 쏘련의 공고화에 대한 그의 배려를 명백히 특징짓고 있다。 쏘련 제一차 쏘베트 대회의 직접적 준비 및 진행 시기에 쓴 자기의 서한에서 브·이·레닌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제 원칙을 실시하며 쏘련의 대소 각 민족의 친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민족 정책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조급성과 행정주의、 특히 평등한 쏘베트 공화국들이 통합될 것을 예견한것이 아니라 공화국들이 자치적 단위의 자격으로서 로련에 가입할 것을 예견한 『자치화』안을 들고 나온 이·브·쏘딸린의 오유를、 대국적 쏘비니즘에 대한 쏘딸린의 융화주의적 태도를 준렬히 비판하였다。

브·이·레닌은 민족 문제에 있어서의 대국적 편향을 당시의 주요한 위험성으로서 단호히 규탄하고 쏘베트 공화국 통합 사상의 대국적—쏘비니즘적 외곡의 해독을 지적하였으며 통합 사업에서의 지나친 중앙 집권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레닌은 민족들의 완전한 사실상의 평등권을 보장하며 민족 문제에 관한 정책을 능숙하게 실시하며 각 민족의 특수성과 리해 관계에 신중히 대하며 민족들의 친선 단결의 필수 조건인 매개 공화국의 주권을 공고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쏘련에서의 민족 문제의 옳바른 해결은 쏘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수억의 아세아 동방 민족들에 대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브·이·레닌은 지적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은 레닌적 민족 정책을 철저히 실시하여 다민족 쏘베트 국가를、 우리 나라 각 민족의 친선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 및 문화의 가일층의 발전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 발표되는 레닌의 문헌들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 대표들에게 알린 다음에 당 단체들에 배포되였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브·이·레닌의 서한들을 『콤무니쓰트』지 본호에 발표한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직속 맑스—레닌주의 연구소**

## 대회에 보내는 서한

### 一

나는 본 대회에서 우리의 정치 체제에 일련의 변경을 가할 것을 몹시 권고하고 싶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점들에 대해서 당신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나는 중앙 위원회 위원 수를 수십명 내지 백명으로 증가시킬 것을 제기한다。 만일 사건의 진행이 우리에게 극히 유리하게 되지 않는다면(그렇게 되리라고는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개혁을 피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앙 위원회는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다음 나는 대회가 트로쯔끼 동무의 의견을 어느 정도 또 일정한 조건하에 받아 들여 국가 계획 위원회의 결정에 립법적 성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려고 생각한다。

첫째 조항 즉 중앙 위원회 위원수 증가에 관하여 말한다면 나는 이러한 조치는 중앙 위원회의 위신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도、우리의 기구를 개선하는 중대한 사업에 있어서도、또 중앙 위원회내 소부분들의 충돌이 당의 전체 운명에 대하여 너무도 엄청난 의의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 위원회 위원 五〇—一〇〇명은 우리 당이 로동

계급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또 과히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개혁은 우리 당의 공고성을 현저히 증대시킬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심히 첨예화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첨예화되리라고 생각되는 적대 국가들과의 우리 당의 투쟁에 유리할 것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대책으로 하여 천배나 더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레 닌

一九二二년 一二월 二三일。

엠·웨·받아 씀。

## 二

서한의 계속、

一九二二년 一二월 二四일。

내가 우에서 말한 중앙 위원회의 견고성이란 것을 나는 분렬 방지책이란 것이 대체로 취해질 수 있는 한 그러한 분렬 방지책으로 리해하고 있다。 『루쓰까야 믜쓸』에서 어떤 백위병(그것은 아마 에쓰·에프·올덴부르그였을 것이다)이 첫째로 쏘베트 로씨야를 반대하는 그들의 장난에 있어서 우리 당의 분렬에 기대를 걸고 둘째로 이 분렬을 위해서는 당내의 극히 엄중한 의견 차이에 기대를 건 것은 물론 옳았던 것이다。

우리 당은 두 계급에 의거하고 있으니만큼 만일 이 두 계급간에 협정이 성립될 수 없다면 그의 불견고성이 있을 수 있고 그의 붕괴가 불가피하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 저러한 대책을 취하거나 일반적으로 우리 중앙 위원회의 견고성에 대해서 론의하는 것은 무익하다。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도 분렬을 방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먼 장래의 또 너무나 있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가까운 장래의 분렬을 방지하는 보장으로서의 견고성을 념두에 두면서 여기에서 순 개인적 성질을 띤 일련의 의견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이 견지에서 볼 때 견고성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쓰딸린 및 트로쯔끼와 같은 중앙 위원회 위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간의 관계가 분렬의 위험성



의 태반을 이룬다고 나는 보는데 이 분렬은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의 의견에 의한다면 중앙 위원회 위원수를 五〇명 내지 一〇〇명으로 증가시키는 것도 필시 분렬을 피하는 한 방도로 될 것이다。

쓰딸린 동무는 총비서로 된 이후 자기 수중에 한량없는 권력을 집중하였는데 나는 그가 과연 그 권력을 언제나 충분히 신중하게 행사할 수 있을는지 자신이 없다。 타방으로 트로쯔끼 동무는 교통 인민 위원부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 위원회를 반대해 싸운 그의 투쟁이 이미 증명한 바와 같이 뛰여난 재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는 아마 현 중앙 위원회내에서 가장 재능있는 사람일 것이지만 그러나 또 자기를 너무 과신하고 문제의 순 행정적 측면에 너무 열중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현 중앙 위원회의 탁월한 두 지도자의 이러한 두 품성은 자칫하면 분렬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만일 우리 당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분렬이 불의에 도래할 수 있다。

나는 더 나아가 다른 중앙 위원회 위원들의 개인적 품성을 평하지는 않으련다。 다만 지노비에브와 까메네브의 一〇월 에피소드 (一)는 물론 우연이 아니지만 그것도 역시 비볼쉐위즘을 트로쯔끼 개인의 죄로 돌리기 곤난한 것처럼 그* 개인의 죄로 돌리기 곤난하다는 것만을 지적해 둔다。

젊은 중앙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는 부하린과 빠따꼬브에 대해서 몇 마디 말하고자 한다。 이들은 가장 뛰여난 인재(가장 젊은 인재들 중에서)라고 나는 보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념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부하린은 극히 귀중한 큰 당 리론가일 뿐만 아니라 전체 당의 사랑을 받는 자로 정당하게 인정되고 있지만 그의 리론적 견해는 충분히 맑스주의적이라고는 보기 매우 곤난하다。 왜냐 하면 그에게는 스콜라스칙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그는 변증법을 공부한 일이 없으며 또 생각컨대 변증법을 충분히 리해한 일이 없다)。

一二월 二五일、 다음 빠따꼬브는 확실히 뛰여난 의지와 뛰여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주의와 문제의 행정적 측면에 너무 열중하기 때문에 중대한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물론 나의 이 두 지적은 탁월하고 충실한 이 두 일꾼이 자기의 지식을 보충하고 자기의 일면성을 극복할 기회를 찾지 못한다는 가정 밑에 현재에 한해서 지적한 것이다。

레 닌

一九二二년 一二월 二五일。

엠·웨·받아 씀

● 잘못 쓴 것 같다. 『그』 대신에 의미상 『그들』이라고 써야 할 것이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직속 맑스—레닌주의 연구소

(一), 지노비예브와 까메네브가 一九一七년 一〇월 一〇(二三)일과 一六(二九)일의 당 중앙 위원회 회의에서 무장 폭동의 즉시 준비에 관한 레닌적 결정을 반대하여 나선 그들의 투항주의적 행위를 두고 말한다. 까메네브와 지노비예브는 중앙 위원회 량회의에서 결정적 반격을 받은 후 一〇월 一八일에 멘쉐위크 신문 『노바야 쥐즌』에다 볼쉐위크는 폭동을 준비하고 있으나 자기들은 폭동을 모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당의 극비인 가까운 시기에 폭동을 조직할 데 관한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롯쟝꼬와 께렌쓰끼에게 루설하였다. 즉일로 브·이·레닌은 『볼쉐위크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 행위를 규탄하여 전대 미문의 배신 행위라고 불렀다.

## 一九二三년 一二월 二四일부 편지에 대한 추가

쓰딸린은 너무 란폭하다. 그런데 이 결함은 우리들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나 접촉에서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결함이지만 총비서의 직책에서는 참을 수 없는 결함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쓰딸린을 이 자리에서 조동시킬 방법을 고려할 것과 다른 모든 점 가운데서 쓰딸린 동무보다 단 한 가지 점이 나은 다른 사람 즉 더 참을성 있고 더 충실하고 동지들에 대해서 더 친절하고 더 신중하며 덜 변덕스러운 그러한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할 것을 동무들에게 제의한다. 이러한 사정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보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렬을 방지하는 견지와 내가 우에서 쓰딸린과 트로쯔끼의 호상 관계에 관하여 쓴 것의 견지에서는 그것은 사소한일이 아니라고 또는 그것은 결정적 의의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소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레 닌

엘·에프·받아 씀.

一九二三년 一월 四일.



## 三

서한의 계속.

一九二二년 一二월 二六일.

중앙 위원회의 위원 수를 五〇명 내지 一〇〇명에까지 증가시킨다면 내 생각 같애서는 응당 一석 二조 내지 一석 三조의 리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즉 중앙 위원이 많을수록 중앙 위원회 사업은 더 많이 습득되게 될 것이며 그 어떤 신중성 부족으로 인한 분렬의 위험성은 더 적게 될 것이다. 중앙 위원회에 로동자들을 많이 인입한다면 로동자들은 결함이 아주 많은 우리의 기구를 개선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기구는 본질에 있어 낡은 제도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다. 왜냐 하면 아주 짧은 기간에, 더군다나 전쟁, 기근 등등을 겪으면서 기구를 개조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구가 가지고 있는 결함들에 대하여 조소적으로 또는 악의를 품고 우리에게 지적하는 『비평가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이 현대 혁명의 제 조건을 전혀 리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랭정히 대답할 수 있다. 五년 동안에 기구를 충분히 개조한다는 것은 대체로 불가능한 일인데 특히 우리 혁명이 진행된 제 조건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로동자들이 농민의 선두에 서서 부르죠아지를 반대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형의 국가를 우리가 五년 동안에 창건한 것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이며 더구나 적대적인 국제적 환경의 조건하에서는 그것은 거대한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본질에 있어 짜리와 부르죠아지로부터 낡은 기구를 물려 받았으며, 따라서 오늘날 평화의 도래와 함께, 그리고 기근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요 보장과 함께 모든 사업을 응당 기구 개선에 돌려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즉 수십명의 로동자들이 중앙 위원회의 성원으로 들어 옴으로써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의 기구를 더 잘 검열, 개선, 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로 되여 있었던 로농 감독국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였으며 따라서 로농 감독국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러한 중앙 위원들의 『부속물』 또는 방조자로서 리용될 수 있을 따름이다. 중앙 위원회에 들어 오는 로동자들은 내 의견 같애서는 주로 쏘베트 기관에 오래 동안 복무한 일이 있는 로동자들(나는 자기 서한의 이 부분에서는 어디서나 로동자라

는 말 가운데 농민들도 포함시키고 있다) 중에서 나와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그러한 로동자들에게는 벌써 일정한 전통과 일정한 편견이 조성되여 있는 바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전통과 편견을 반대하여 싸워야 하겠기 때문이다。

중앙 위원회의 로동자 출신 위원으로서는 우리 나라에서 과거 五년 동안 쏘베트 사무원으로 등용되여 온 그 층보다 더 아래에 있는, 따라서 일반 로동자, 농민에게 더욱 가까운, 그러나 직접으로든지 간접으로든지 착취자의 부류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로동자들이 주로 들어 와야 한다。 이와 같은 로동자들은 중앙 위원회의 모든 회의와 정치국의 모든 회의에 참가하고 중앙 위원회의 모든 문헌을 받아 봄으로써 첫째로는 중앙 위원회 자체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기구의 쇄신 및 개선을 위하여 실지로 일할 수 있는 충직한 쏘베트 제도 옹호자들의 간부로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레 닌

엘·에프·받아 씀。

一九二二년 一二월 二六일。

서한의 계속

一九二二년 一二월 二七일。

## 四、 국가 계획 위원회에 립법적 기능을 부여할 데 관하여

이 사상이 트로쯔끼 동무에 의하여 제기된지는 이미 오랜 것 같다。 나는 처음에는 그것을 반대하여 나섰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립법 기관 체계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되리라고 생각하였기 때



문이다。 그러나 문제를 상세히 검토하여 본 결과 나는 지금 본질에 있어 여기에는 건전한 사상이 있다고 본다。 즉 국가 계획 위원회는 문제를 잘 아는 사람들, 전문가들, 과학 기술계 대표자들의 집합체로서 본질에 있어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립법 기관들과는 얼마간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때까지 다음과 같은 견지로부터 출발하였었다。 즉 국가 계획 위원회는 비판적으로 검토한 재료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 사업은 국가 기관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오늘날 국가 사업이 비상히 복잡하게 되여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 감정(鑑定)을 요하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부단히 뒤섞어서 해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한 문제 중에 국가 계획 위원회의 전문적 감정을 요하는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이 서로 뒤섞이여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형편이니만큼 현재는 국가 계획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 한 걸음을 다음과 같이 본다。 즉 국가 계획 위원회의 결정은 쏘베트 기관의 보통 절차에 의해서는 전복할 수 없으며 그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 례컨대 문제를 전로 중앙 집행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한다든가, 결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특별 지령으로 문제를 상세히 조사하고 국가 계획 위원회의 결정을 폐기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보고서를 특별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한다든가, 끝으로 국가 계획 위원회의 문제를 재심의하기 위한 특별한 기한을 지정한다든가 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여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트로쯔끼 동무의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또 접수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 지도자들 중의 어떤 특정의 인물이나 최고 인민 경제 회의의 위원장이나 기타 인물을 국가 계획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려는 데 대해서는 그의 의견을 접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현재 개인적 문제가 너무나 밀접히 원칙적 문제와 엉키여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크르지쟈놉쓰끼 동무에 대해서와 부위원장 빠따꼬브 동무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 오고 있는 데 그것은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유순하고 자주성이 부족하며 주견이 없다는 비난이 들려 오고, 다른 편으로는 지나치게 조야하고 딱딱하며 확고한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등등의 비난이 들려 온다。 나는 이와 같은 비난은 문제의 두 가지 측면을 극도로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에 있어 우리는 국가 계획 위원회에서 두 가지 형의 성격――빠따꼬브가 그 하나의 표본으로 될 수 있고 크르지쟈놉쓰끼가 다른 하나로 될 수 있다――을 솜씨

있게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은 응당 한편으로는 과학적으로 소양이 깊은、즉 공업 기술 또는 농업 기술면에서 학식이 풍부하고 공업 기술 또는 농업 기술 분야에서 수십년에 걸치는 커다란 실지 사업 경험을 가진 사람이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한 사람은 행정적 수완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끄는 능력과 광범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레 닌

一九二二년 一二월 二七일。

엠·웨·받아 씀

## 五、

국가 계획 위원회 결정의 립법적 성격에 관한 서한의 계속。

一九二二년 一二월 二八일。

나는 국가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우리 동지들이 행정적인 면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행정적인 면은 물론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기에는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인 면、즉 광범한 현실의 포착、사람들을 이끄는 능력 등등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모든 국가 기관에서、특히 국가 계획 위원회에서는 이 두 가지 품성의 결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크르지샤놉쓰끼 동무가 빠따꼬브를 국가 계획 위원회에 끌어 와서 사업에 관하여 그와 합의를 보았다는 것을 나에게 말하였을 때 나는 이에 동의하면서 한 편으로는 속으로 일정한 의혹을 품으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여기서 국가 활동가의 두 가지 형의 결합이 이루어질 것을 가끔 기대하군 하였다。 이 기대가 적중되였는가 하는 것은 지금 경험을 통하여 좀 더 오래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인 데 그러나 원칙에 있어서 성격 및 형(사람、품성)의 그와 같은 결합이 국가 기관의 정확한 기



능 수행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경우에 『행정주의』에 대한 편중은 온갖 편중 일반과 마찬가지로 유해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국가 기관의 지도자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끄는 능력을 고도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들의 사업을 검열할 수 있는 확고한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이것 없이는 사업이 정확하게 될 수 없다。 다른 편으로는 그가 행정 사업을 할 줄 알며 이 사업에서 능숙한 방조자 一명 내지 약간명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품성을 겸비한다는 것은 아마 드문 일일 것이며 또 아마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레 닌

엘·에프·받아 씀。

一九二二년 一二월 二八일。

## 六、

서한의 계속。

一九二二년 一二월 二九일。

보건대 우리의 국가 계획 위원회는 전면적으로 전문가들의 위원회로 발전되고 있는 듯하다。 기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면적인 과학적 소양을 가진 인물이 그러한 기관의 책임자로 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적 능력은 여기서 사실에 있어 응당 부차적인 것으로 되여야 한다。 국가 계획 위원회의 일정한 독립성과 자주성은 이 과학 기관이 가지는 권위의 견지로 보아 필수적인 것이며、그것은 단 한 가지 조건、즉 이 기관 일꾼들이 충직하며 우리의 경제 건설 및 사회 건설 계획을 실현하려고 충실히 지향한다는 조건에 의해서만 제약된다。

이 마지막 품성은 물론 오늘날 례외적으로만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왜냐 하면 국가 계획 위원회는 자연이 학자들로 구성되는데 학자들의 압도적 대다수는 불가피적으로 부르죠아적 견해와 부르죠아적 편견에 물젖어 있기 때문이다。 이 면에서 그들을 검열하는 것은 국가 계획 위원회 상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약간명의 인물들의 과업으로 되여야 한다。 이 약간명의 인물들은 공산당원이여야 하며 모든 사업 행정에서 부르죠아 학자들의 충실성의 정도와 그들에 의한 부르죠아적 편견의 포기 및 사회주의적 견지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부단히 감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과학적 검열을 순전한 행정 사업과 결합하는 이 량면적인 사업은 우리 공화국에서 국가 계획 위원회 지도자들의 리상적 전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레 닌

엠·웨·받아 씀。

一九二二년 一二월 二九일。

---

국가 계획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몇개의 개별적인 과업들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는가、또는 반대로 고정적인 전문가들의 집단을 편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 계획 위원회 상임 위원회의 체계적인 검열을 받게 하면서 위원회의 관할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후자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또 일시적인 긴급한 개별적 과제들의 수효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레 닌

一九二二년 一二월 二九일。

엠·웨·받아 씀。



서한의 계속。

一九二二년 一二월 二九일。

## 七、

## (중앙 위원회 위원수를 증가시킬데 관한 구절에 대하여)

중앙 위원회 위원수를 증가시킬 때에는 내 의견 같애서는 아주 결함이 많은 우리 기구를 검열하고 개선하는 사업도 역시、아니 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극히 능숙한 전문가들의 방조를 받아야 할 것인데 이 전문가들을 제공하는 것은 로농 감독국의 과업으로 되여야 할 것이다。

충분한 지식을 가진 이러한 검열 전문가들과 중앙 위원회의 이 새 위원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이 과업은 실천을 통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로농 감독국은(그 발전의 결과로、또 그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의혹의 결과로) 결국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바와 같은 것으로 되여 버렸다고 생각된다。 즉 그것은 특별한 인민 위원부로부터 중앙 위원회 위원들의 특별한 기능으로 변하는 과도적 상태에 있으며 모든 것을 검열하는 기관으로부터 인원수는 적으나 가장 우수한 검열원들——이들에게는 반드시 높은 급료를 지불하여야 한다(이것은 오늘과 같은 급료 지불 시대에 있어서는 그리고 검열원들이 더 많은 급료를 지불하는 기관에 직접 복무하게 되는 조건하에서는 특히 필요하다)——의 집합체로 변하는 과도적 상태에 있다。

만일 중앙 위원회의 위원수가 적당히 증가되고 그들이 그와 같은 극히 능숙한 전문가들 및 모든 부문에서 위신이 높은 로농 감독국 위원들의 방조하에 국가 관리를 해마다 배우게 된다면 그 때에는 우리가 오래 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던 이 과업을 성과있게 해결하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결국 一〇〇명에 달하는 중앙 위원회 위원들과 四〇〇—五〇〇명을 초과하지 않는 그들의 방조자、그들의 지시에 의하여 검열 사업을 진행하는 로농 감독국 위원들이 필요한 것이다。

레 닌

一九二二년 一二월 二九일。

엠·웨·받아 씀。

서한의 계속。

一九二二년 一二월 三〇일。

# 민족 문제 또는「자치화」문제에 대하여

보건대 공식적으로는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는 소위 자치화 문제에 대하여 내가 극히 정력적으로, 극히 날카롭게 간섭하지 않은 것은 로씨야 로동자들에 대한 나의 큰 죄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가 발생하였던 지난 여름에는 나는 병석에 누워 있었고 그후, 가을에 나는 내 병이 나으리라는 것과 一〇월 및 一二월 전원 회의가 이 문제에 간섭할 기회를 내게 주리라는 데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품었었다。 그러나 나는 一〇월 전원 회의(이 문제에 관한)에도, 一二월 전원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었으며 그리하여 나는 거의 완전히 이 문제에서 제외되였었다。

나는 다만 제르진쓰끼 동무와 담화를 할 수 있었을 뿐인데 그는 깝까즈에서 돌아 와서 이 문제가 그루지야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또 지노비예브 동무와 몇 마디 말을 주고 받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위구를 그에게 전할 수 있었다。 그루지야 사건을「조사」하기 위하여 중앙 위원회가 파견한 끄미씨야를 지도하였던 제르진쓰끼 동무의 말에서 나는 더 없는 위구를 느꼈을 따름이다。 제르진쓰끼 동무가 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르죠니끼제가 육체적 폭력을 가하는 데까지 사태가 이르렀다면 우리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 갔는지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자치화」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시기에 맞지 않는 것이였다。

기구의 통일이 요구되였다고 말들 한다。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매일 서취시키는 지난번 서한의 하나에서 내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짜리 제도에서 빌려 왔고 쏘베트 세계가 보일가 말가 한 정도로 색칠을 해 놓은 데 지나지 않는 바로 그 로씨야의 기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자기 기구가 틀림 없는 자기 것임을 보증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의심할 것 없이 이 조치를 보류해야 할 것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사태는 정반대여서 우리가 제것이라고 부르는 그 기구는 부르죠아적인 것과 짜리적인 것의 혼합물로서 아직 우리와



는 전혀 인연이 없다는 것을 량심적으로 말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원조가 없고 군사적인「사업」과 그리고 기아와의 투쟁이 우위를 차지한 조건하에서 五년 동안에 이 혼합물을 극복할 어떠한 가능성도 없었다。

우리는「련맹에서 탈퇴할 자유」를 들어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데 이상과 같은 조건하에서 이「자유」는 틀림 없는 로씨야인, 대로씨야인, 배외주의자, 본질에 있어서의 비렬한과 강압자, 즉 전형적인 로씨야 관료배의 침해로부터 로씨야의 이민족들을 보호할 수 없는 빈 종이장으로 될 것은 뻔하다。 얼마 안되는 쏘베트적인 로동자들과 쏘베트화한 로동자들은 우유 그릇에 파리가 빠지듯이 이 배외주의적이고 대로씨야적인 오물의 바다 속에 깔아 앉고 말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사람들은 이 조치를 변호하면서 민족적 심리, 민족적 교육과 직접 관계되는 인민 위원부들을 분리시켰다고 말들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인민 위원부들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둘째로는 참으로 로씨야적인 제르지모르다(고골리의『검찰관』에 나오는 순사의 이름、란폭한 자를 가리키는 말——역자 주)로부터 실지로 이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충분한 배려 밑에 우리들에 의해서 취해졌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있었고 또 취해야 할 것이였지만 실지는 취하지 않았다고 나에게는 생각된다。

나는 여기에서 쓰딸린의 조급성과 행정관적인 열중 그리고 악명 높은「사회—민족주의」에 대한 그의 증오가 숙명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말해서 증오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소위「사회—민족주의자」들의「범죄」사건을 조사하려 깝까즈로 간 제르진쓰끼 동무가 그곳에서 뛰여나게 뵈여 준 것도 역시 그의 틀림 없는 로씨야적 기분만이였고 (알려진 바와 같이 로씨야화한 이민족 사람들은 틀림없는 로씨야적 기분에 있어서 항상 로씨야 사람보다 더 하다) 그의 끄미씨야 전체의 공정성이라는 것을 잘 뵈여 주는 것이 오르죠니끼제의「주먹다짐」이 아니겠는지, 이것이 또한 나에게 우려된다。 어떠한 도발이나 심지어 어떠한 모욕도 이 로씨야식 주먹다짐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제르진쓰끼 동무가 이 주먹다짐을 경솔히 취급한 것은 그의 시정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르죠니끼제는 깝까즈에서 다른 모든 공민들에 대하여는 정권을 대표한 사람이였다。 그와 제르진쓰끼는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핑계 하였는데 오르죠니끼제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었다。 반대로 보통 공민으로서는, 더우기 소위「정치적」죄명을 쓴 공민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발휘할 의무가 없는 그 인내성

이 오르죠니끼제의 행동에서는 의무적인 것이였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사회—민족주의자들은 정치적 죄명을 쓴 공민들이였는데 그들이 죄명을 쓰게 된 모든 사정으로 해서 이 죄명은 바로 그러한 죄명으로서 규정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벌써 여기에서는 국제주의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가 제기된다。

레닌

一九二二년 一二월 三〇일
웨·엠·받아 씀

# 민족 문제 또는 「자치화」 문제에 대하여 (계속)

一九二二년 一二월 三一일。

서한의 계속。

민족 문제에 관한 나의 저작들에서 이미 나는 민족주의 일반에 관한 추상적인 문제 설정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쓴 바 있다。 억압하는 민족의 민족주의와 억압 당하는 민족의 민족주의、대민족의 민족주의와 약소 민족의 민족주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번 민족주의에 대하여 우리들、대민족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항상 력사적 실천에 있어서 수 없이 폭력을 적용한 죄를 짓고 있으며 더우기 자기도 모르게 무수한 폭력과 모욕을 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 민족들이 어떻게 랭대를 받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나의 볼가 시대의 추억을 상기하면 충분한데 파란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파란놈』이라고 부르고 따따르인에 대하여는 언제나 『공후』(公候)라고 놀려대며 우크라이나인은 『호홀』、그루지야인과 기타 갑까즈의 이민족들은 꼭 『까쁘까즈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억압하는 민족 혹은 소위 『대』 민족(이 『대』라는 것은 오직 자기의 폭력에 의한 것이고 제르지모르다가 위대하다는 그 정도의 위대성 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지만)측의 국제주의는 민족들의 형식상 평등의 준수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생활에서 실지로



조성되는 그 불평등을 대민족、억압하는 민족 측으로부터 보상하게 될 그러한 불평등에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리해하지 못한 자는 민족 문제에 대한 실지로 프로레타리아적인 태도를 리해하지 못한 자이다。 이런 자는 본질에 있어 소부르죠아적 견지에 머물러 있으며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부르죠아적 견지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

프로레타리아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프로레타리아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 불가결한 것은 프로레타리아적 계급 투쟁에 있어서 그가 이민족측의 최대한의 신뢰를 보장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형식적 평등만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력사에서『대국』 민족의 정부가 이민족에게 표시하였던 그 불신임、그 의혹、그 모욕들을 이민족에 대한 자기의 태도 또는 자기의 양보로써 이러저러하게 보상할 필요가 있다。

나는 볼쉐위크들에게、공산당원들에게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경우는 즉 그루지야 민족에 대한 관계는 사업에 대한 참으로 프로레타리아적인 태도가 우리 측의 커다란 조심성、친절、양보적 태도를 요구하는 전형적 실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업의 이 측면을 홀시하며(자기 자신이 틀림없는 진짜『사회—민족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대로씨야의 란폭한 제르지모르다임에도 불구하고)、사람들에게 멸시적으로『사회—민족주의』라는 감투를 씌우는 그런 그루지야인은 본질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의 리익을 침해하고 있다。 왜냐 하면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의 발전과 공고화는 무엇보다도 바로 민족적 부정의에 의하여 가장 크게 저해 당하며 『모욕 당한』 민족들은 무엇보다도 바로 평등의 감정에 대하여 민감하고 그것이 비록 소홀한 태도에서 오거나 롱담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평등이 위반되는 데 대하여 민감하며 자기 동지인 프로레타리아들이 이 평등을 위반하는 데 대하여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소수 민족들에 대한 양보적인 태도와 부드러운 태도가 덜 하기보다는 지나치는 편이 차라리 나은 것이다。 또 그러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단결의、따라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의 근본 리익은 우리가、민족 문제에 결코 형식적으로 대하지 말 것과 억압하는 민족(또는 대민족)에 대한 억압 당한 민족(또는 약소 민족)의 프로레타리아의 태도에서의 필연적인 차이를 항상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레닌

엠·웨·받아 씀
一九二二년 一二월 三一일。

서한의 계속。

一九二二년 一二월 三一일。

조성된 정세하에서 어떤 실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련맹을 보존하고 공고화할 것이다。이 조치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이 조치는 전 세계 부르죠아지와 투쟁하며 그의 음모로부터 자신을 보위하기 위하여 그것이 전 세계 공산주의적 프로레타리아트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하다。

둘째로 외교 기구의 면에서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련맹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여기에서 한 마디 부연한다면 이 기구는 우리 국가 기구의 구성에서 례외적인 존재이다。우리는 짜리의 옛 기구에서 일한 다소라도 유력한 인물은 한 사람도 이 기구에 들여 놓지 않았다。이 기구에서 다소라도 권위있는 기관은 그 전체가 공산당원들로써 구성되여 있다。그러므로 다른 인민 위원부들에서 우리가 부득이 용인하고 있는 그 기구에 비한다면 이 기구는 낡은 짜리적、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기구를 비교도 안되리만큼 철저히 숙청해 버린、검열된 공산주의적 기구라는 칭호를 이미 전취하였다(고 우리는 대담하게 말할 수 있다)。

셋째로 본을 뵈기 위해서 오르죠니끼제를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으로 그의 친우의 한 사람이고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와 함께 사업한만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지만)、또한 틀림 없이 거기에 존재하리라고 생각되는 무수한 그릇된 것들과 불공정한 판단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르진쓰끼 끄미씨야의 일체 자료를 마저 재조사하든가 새로이 재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참으로 대로씨야 민족주의적인 이 모든 깜빠니야의 정치적 책임자로 지목해야 할 사람은 두말 할 것 없이 쓰딸린과 제르진쓰끼이다。

넷째로 우리 련맹에 가입하는 민족 공화국들에서의 민족어 사용에 대하여 극히 엄격한 규칙을 정해야 하며 이 규칙을 특히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철도 근무의 통일이라는 구실 밑에、국고(國庫)의 통일 등등이라는 구실 밑에 우리에게서、오늘의 우리 기구하에서 틀림 없는 로씨야식 권리 람용이 허다히 나타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이 권리 람용과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투쟁을 담당하게 될 사람들의 특히 진지한 태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 외에도 그들의 특별한 고안력(考案力)이 요구된다。여기에는 상세한 법전이 필요한 데 이 법전을 어느 정도나마 성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해당한 공화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다。그리고 이 모든 사업의 결과에 다음 번 쏘베트 대회에서 뒤로 되돌아가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련맹을 다만 군사적 및 외교적 면에서만 남겨두고 그 외의 모든 면에서는 개개의 인민위원부들의 완전한 자립성을 회복하는 그런 일은 결코 안할것이라고 미리부터 맹세를 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인민 위원부들의 분립과 모쓰크바 및 기타 중심지들의 관계에서 이 인민 위원부들의 사업간에 나타날 불일치는 당적 권위가 어느 정도 충분한 신중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적용될 때에는 이 권위에 의하여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민족적 기구들과 로씨야의 기구를 통합한 기구들이 없음으로 해서 우리 국가가 입을 수 있는 해독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전체 인터내쇼날이、그리고 우리의 뒤를 이어 멀지 않은 장래에 력사의 무대의 전면에 나서게 될 수억만의 아세아 인민들이 입을 그 해독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적은 것이며 헤아릴 수 없이 적은 것이다。이와 같이 동방이 무대에 나서게 될 전야에、그가 각성하는 초기에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의 이민족들에게 대한 란폭한 행위와 부정의에 의하여——비록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동방에서 자기의 위신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기회주의일 것이다。자본주의 세계를 옹호하는 서방의 제국주의자들과 대항하여 단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여기에는 의문이 있을 수 없으며 내가 이 조치를 무조건 찬동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그러나 비록 사소한 일에서라 할지라도 피압박 인민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태도에 우리들 자신이 빠져 들어 가며 그렇게 하여 자기의 원칙적 진지성、반제 투쟁에 대한 자기의 원칙적 옹호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그런데 세계사에서의 래일은 제국주의의 억압을 받는 각성된 인민들이 완전히 잠을 깨고 자기 해방을 위한 장구하고 간고한 결정적 전투가 개시될 바로 그러한 날로 될 것이다。

레닌

一九二二년 一二월 三一일。

엠·웨·받아 씀

(一) 『자치화』라는 것은 자치제에 기초하여 쏘베트 공화국들을 로련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이 공화국들을 통합하려는 사상이다。이 사상은 이·브·쓰딸린이 제의한 『로련과 독립 공화국들 간의 호상 관계에 관한 결의안』의 기초로 되였다。一九二二년 九월에 이 결의안은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를 위하여 로련、우크라이나 공화국、백로씨야 공화국 및 자깝까지예 련맹간의 앞으로의 호상 관계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목적 밑에 창설된 중앙 위원회 끄미씨야에 의하여 채택되였다。정치국 위원들에게 보낸 一九二二년 九월 二七일부 서한에서 브·이·레닌은 이 결의안에 엄

격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즉 완전한 평등에 기초하여 로련을 포함한 모든 쏘베트 공화국들을 새로운 국가——쏘베트 공화국 련맹——에 자원적으로 통합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들은——하고 브·이·레닌은 썼다——자기를 우크라이나 공화국 및 기타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며 그들과 함께, 또 그들과 동등한 립장에서 새로운 련맹、 새로운 련방에 가입한다……』。 중앙 위원회 꼬미씨야는 브·이·레닌의 지시에 따라 결의안을 고쳐 작성하였다。 레닌의 지시에서 출발한 이 초안은 一九二二년 一○월에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비준되였다。 중앙 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공화국들을 통합하는 준비 사업이 전개되였다。 一九二二년 一二월 三○일에 제 一차 전 련맹 쏘베트 대회는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수립에 관한 력사적 결정을 채택하였다。

민족 정책의 옳은 실시와 쏘베트 대회에서 채택된 선언서 및 조약의 실제적인 수행에 각별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브·이·레닌은 一九二二년 一二월 三○일과 三一일에 『민족 문제 또는 「자치화」 문제에 대하여』 라는 서한을 구술하였다。 브·이·레닌의 서한은 一九二三년 四월에 열린 로씨야 공산당 (볼쉐위크) 제 一二차 대회의 대표단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랑독되였다。 대회는 『민족 문제에 대하여』 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레닌의 지시를 기초로 한 것이였다。

(2) 이것은 一九二二년 一一월과 一二월에 진행된 로씨야 공산당 (볼쉐위크)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전원 회의들에서는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수립에 관한 문제가 상정되였다。

---

(『꼼무니쓰트』 一九五六년 제 九호에서)



# 쏘련 공산당 력사의 창조적 연구를 위하여

쏘련 공산당은 장구하고 곤난한 력사적 발전의 길을 경과하였다。 이는 지주 및 자본가들의 정권의 전복、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수립과 공고화、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및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위한 영웅적 투쟁의 길이다。

가장 선진적 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의 태내에서 나온 공산주의자들의 당은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밑에 전체 근로자들을 결속시키고 그들의 투쟁을, 그들의 혁명적 창발성을 조직、 지도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조직、 육성된 레닌적 로농 동맹은 락후한 지주—자본가적 로씨야의 선진적 공업—꼴호즈적 강국으로의 근본적 개조를 보장하여 주었으며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보장하여 준 그런 강대한 력량이였다。 당과 인민 대중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련계、 인민 경제와 문화에 대한 당의 지도——바로 이것이 쏘련에서의 가일층의 승리적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쏘련 공산당의 력사적 경험은 풍부하고 다양하다。 당은 그 창건 이래 로동 계급의 혁명—개조적 활동에 대한 거대한 지도 경험을 축적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 력사 발전의 각이한 계단에서의 로동 계급의 전략과 전술、 공산주의 건설 등에 관한 맑스주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풍부히 하였으며 당 사업 및 대중 지도의 완전한 조직 형태들과 효과적인 방법들을 만들어 냈다。

이 경험을 연구、 일반화할 사명을 지닌 것은 우선 특수 과학인 쏘련 공산당 력사 인바 이는 력사 과학의 중요한 한 개 부문을 이룬다。 쏘련 공산당 력사의 대상은 공산당 활동의 일체 방면들——정치、 경제、 리론 및 당내 생활、 대중 속에서의 사업 형태들、 지도 방법들을 포괄한다。 과학적인 쏘련 공산당 력사는 반드시 제 사변과 요인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분석에 기초하여 새 형의 당의 발생 및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밝히며 우리 나라에서 착취 제도를 폐절하고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적 투쟁에서 공산당이 논 결정적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

쏘련 공산당사의 연구는 근로자들이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도 더 깊이 리해하도록 도와주며 그들로 하여금 사회 생활의 새 형태들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 경험을 더욱 풍부히 가지게 한다。당의 력사적 경험은 새로운 창조적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간부들을 사상 정치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일상적 사업에서 유효한 방조를 준다。『영광스러운 우리 당사는 앞으로도 반드시 간부 교양의 극히 중요한 원천의 하나로 되여야 한다』고 제二〇차 당 대회에서 진술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결산 보고는 언급하고 있다。반세기 이상에 걸친 쏘련 공산당사는 쏘베트 사람들을 맑스—레닌주의의 백전백승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수단으로 되며 그들에게 정치적 경각성을 가르쳐 주며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공훈을 세우는 데로 그들을 고무추동한다。

三차에 걸친 혁명 행정에서와 새 사회 제도의 건설 과정에서 축적된 쏘련 공산당의 풍부한 력사적 경험은 커다란 국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이 경험의 창조적 섭취는 사회주의가 성공리에 창조되고 있는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과 착취자들의 압제로부터의 근로자들의 정치、경제적 해방을 위한 완강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 나라들의 모든 형제 당들이 자기 사업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도와 준다。『쏘련 공산당은 세계 혁명 및 로동 운동의 최초의「돌격대」로서 세계 각국 공산당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모범으로 되였으며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에 보내는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축사중에서)。

이 모든 것은 쏘련 공산당의 력사를 창조적으로 연구하며 그의 거대한 경험을 과학적으로 해명할 데 대한 큰 책임을 연구자들에게 지운다。

그러나 지금까지 쏘련 공산당사의 연구와 그 경험의 일반화는 불만족하게 조직되여 있었다。당 력사를 취급한 저서와 소책자의 대다수는 과학의 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본질적인 리론 및 사실상의 오유들을 내포하고 있다。당 력사의 극히 중요하고 긴절한 문제들이 적게 연구되고 있다。최근 一五—二〇년 동안에 쏘련 공산당사에 관한 저서로서 광범한 사회계의 주목을 끌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二〇차 대회의 문헌에서는 당 력사의 연구가·사상 사업의 가장 락후한 부문의 하나라는 것이 지적되였으며 당 력사 분야에서 과학—연구 및 교수 사업을 혁신할 방도가 예견되여 있다。대회는 당 력사가들에게 교조주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개인 숭배의 후과를 극복하며 창조적 사업의 길에 설 것을 단호히 요구하였다。

쏘베트 학자들 앞에는 진실로 과학적인 쏘련 공산당사를 연구할 데 대한 문제가 가장 날카롭게 제기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력사적 제 사실에 립각하고 통속적이고 맑스주의적이고 당의 전 세계사적 경험이 일반화될 당 력사 교과서의 편찬이 문제로 된다。이러한 교과서의 편찬은 거대한 과학적 및 정치적 의의를 가지는 사업이다。그러나 쏘련 공산당 력사가들의 임무는 결코 이것에만 그치지 않는다。지금은 이미 여러 권으로 된 쏘련 공산당 력사의 저술에 실지로 착수할 때다。

쏘련 및 해외 독자들은 쏘련 공산당 력사의 극히 중요한 시기 또는 개별적 문제들에 대한 대저서 또는 과학—통속적 저서들도 역시 기대하고 있다。이러한 저서에서는 새 형의 맑스주의 당이며 사회 혁명 및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당이며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당인 쏘련 공산당의 영웅적 투쟁의 장구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전면적인 해명을 보아야 한다。공산당의 발생 및 발전의 객관적 제 조건、당과 대중과의 련계、로농 동맹 또는 제 인민의 친선의 조직 및 강화를 위한 당의 활동、당 정책의 과학적 기초、사상 사업과 전략 및 전술의 제 문제、당내 통일의 강화、당 생활 규범 및 당 지도 원칙、쏘련 공산당 경험의 국제적 의의、형제적 공산당 또는 로동당들과의 국제주의적 련계의 발전 등과 같은 문제들은 커다란 과학적 흥미를 끄는 문제들이다。사회주의、공산주의의 건설에서의 쏘베트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인 당의 역할을 보여 주는 연구 론문들、나라의 공업화、농촌 경리의 집단화、쏘련에서의 문화 혁명의 실현을 위한 당의 투쟁에 관한 특별 로작들、당 대회와 대표자 회의、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들의 사업을 해명、일반화하는 과학적 저서 또는 통속적 소책자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최근 一五—二〇년간에 쏘련 공산당사에 관한 과학—연구 및 교수 사업에 뿌리 박힌 본질적인 결함과 오유들을 불쉐위크답게、진지하게 극복하여야 한다。

당사에 관한 많은 저작들의 가장 큰 결함은 거기에서 사건들이 개인 숭배의 관념론적 견지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 있었다。사회주의 건설、나라의 공업화、농촌 경리 집단화의 레닌적 총로선을 실현하는 사업에서 쏘베트 인민과 당이 거둔 극히 중요한 승리들과 또한 그후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육체 및 정신력의 막대한 긴장과 당과 수백만 당원들의 일대 조직자적 사업을 요구한、독일 팟쇼 침략자들의 분쇄 및 기타 일련의 사변들은 인공적으로 한 인간——쓰딸린의 활동과만 결부되여 있었다。이로써 인민 대중의 결정적 역할이 과소평가되여 왔으며 쏘베트 인민의 지도적 력량인 당의 의의가 저하되였었다。이 모든 것은 제 사실의 무시、력사적 과정의 외곡을 초래하였다。

쏘련 공산당 력사의 연구에서 나타난 다른 또 하나의 큰 결함은 교조주의와 독경주의인 바 이는 력사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였으며 력사 과학상 제 문제의 창조적 연

구를 방해하였다。 력사—당 저서들의 필자들에게 요구된 것은 사건、사실、문헌의 연구、구체적—력사적 환경에 대한 료해、리론적 일반화의 독자성인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져있는 명제들을 주어모아 서술하거나 해석하는 것이였다。 이러한 저서들에서는 현 생활이 인용문과 바꾸어져 있었으며 제 과정에 대한 분석은 요란스러운 공허한 문구들과、사회주의를 위한 당의 투쟁 력사는 쓰딸린의 역할에 대한 찬양과 바꾸어져 있었다。

다음으로 쏘련 공산당 력사가들의 과학—연구 및 교수사업에서는 력사적 사변의 해명에 대한 자의적、주관적태토와 같은 그리고 또한 오직 소여의 사건을 산생케 한 제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초 우에서 구체적 력사적 제 조건을 참작하여 과거의 사건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맑스—레닌주의적 력사주의 원칙에 대한 망각과 같은 방법론상의 결함을 결정적으로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력사—당 문헌에서는 사건들이 비객관적으로、일면적으로 력사적 환경과 계급 력량들의 호상 관계에 대한 심오한 연구없이、사실적 자료에 대한 분석없이 해명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있었으며 어떤 사건의 의의는 과장되는가 하면 딴 어떤 사건의 의의는 과소평가되군 하였다。 엠•엔•뽀크롭쓰끼의 주관적—관념론적 개념에 대한 비판에서 흘러나오는 교훈들을 무시하고 일부 저자들은 력사적 사실들에 대한 자의적 태도를 허용하고 이 사실들을 시국의、주위의 사정에 따라 해석하여 왔다。 물론 과거의 사건을 연구、평가할 때 력사가는 문제를 보다 더 심오하게 리해할 수 있게 하는 새 경험、축적된 지식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력사적 고소(高所)에서는 많은 것이 더욱 명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 단체들의 역할을 그들이 한 사업의 실지 결과에 의하여 평가하지 않고 이러 저런 단체의 지도 일꾼들이 그후 어떻게 행동하였는가에 따라 평가하여 온 그런 연구가들의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자의이며 과학적 연구 원칙의 위반인 것이다。

개인 숭배、교조주의 및 독경주의、자의적—주관적 연구 방법은 력사 과학에 커다란 손실을 끼쳤으며 연구의 사상—리론 수준을 저하시키고 력사적 사실들을 외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수의 력사—당 저서들에는 공산당의 활동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심오한 분석이 없으며 그 정책의 과학적 기초가 불충분하게 천명되였고 그의 실천 활동이 미약하게 표시되여 있다。

과학적 쏘련 공산당사의 저술에서의 부진 상태는 대부분『전 련맹 공산당(볼쉐위크)력사 간략 독본』이 일체 연구 및 교수 사업의 표준으로 되여 있었다는 것으로써 설명되였다。 이 서적의 명제들은 당 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주요 사변들에 대한 종국적인 평가로서 고찰되여 왔다。



『전 련맹 공산당(볼쉐위크)력사 간략 독본』의 저술이 당 력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려는 하나의 큰 시도였다는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일부 문제들의 해명에 있어서 이 저서는 종전의 교과서들에 비하여 일보 전진을 하였다。 그러나 이 교과서는 리론 및 사실상 지극히 엄중한 결함들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의 많은 문제들、특히 一○월 혁명 이후 시기의 문제들은 개인 숭배의 견지에서 서술되여 있는바 이는 물론 력사의 주요 동력인 인민에 대한 과소평가와 인민의 지도자인 당에 대한 과소평가를 초래케 하였다。 일련의 장들에서 례를 들면 一○월 혁명과 국내 전쟁에 관한 장에서는 브•이•레닌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 저서의 마지막 장들에서는 당의 조직자적 활동이 전연 불만족하게 서술되고 있으며 일부 력사적 사변들이 외곡되여 있다。 이 저서에는 역시 다른 결함도 있다。 간략 독본의 성렬가입(聖列加入)은 이 결함들이 일체 력사—당 문헌에 흔적을 남기게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쏘련 공산당 력사가들 앞에는 영예롭고 책임있는 임무、즉 력사—당 전선의 락후를 완전히 극복하며 현존하는 외곡과 오유를 청산하며 당의 개조적 활동의 해명에 있어서 력사상 진실을 완전히 회복하고 당의 다방면적 경험을 일반화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학자들에게 더욱 많이 노력하며 창조적 탐구에 종사하며 과학적 대담성을 발휘하며 면밀한 연구 로작을 저술하며 과학 사업에 현존하는 결함들을 단호히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당 력사가란 것은 지난 사건의 사심 없는 둥기자인 동시에 공산주의를 위한 전투적 투사이며 고도의 사상성을 가진 탐구자로서 사실과 문헌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에 립각하여 당 생활상의 이러저러한 사건에 과학적、력사적 평가를 주는 사람이다。 인민과 당과 과학 앞에 진 력사가의 책임은 지극히 크다。 당 력사에 관한 참다운 과학적 로작은 오직 고도의 원칙성 및 사상성과 넓은 과학적 시야를 가졌으며 당의 활동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고 맑스—레닌주의 과학을 잘 료해하고 사실의 수집 및 선정의 사업을 홀시하지 않는 학자만이 쓸 수 있다。

과학적 쏘련 공산당 력사는 오직 력사를 유물론적으로 해석하며 력사에서의 인민 대중의 결정적 역할과 현대의 가장 혁명적이고 선진적인 계급인 로동 계급의 역할과 그의 전투적 선봉대이며 인민 대중의 고무자、조직자 및 지도자인 공산당의 역할을 리해하는 견지에서만 집필할 수 있다。 당은 인민의 근본적 리익을 옳게 반영하며 자기의 일체 활동에 대하여 인민 앞에서 책임을 지며 또 당은 대중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또한 대중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력사가의 임무는 공산당의 발생 및 발전의 합법칙성을 로동 운동의 발생 및 발전과의 련관 속에서 탐구하며 사회의 혁명적 개조에

서 당의 리론 및 실천 활동을 보여 주며 경제 및 문화 전설에서 당 정책의 본질과 의의를 밝히는 것이다。연구가와 교수들은 공산당 력사의 연구와 선전이 엄격한 과학성과 전투적 당성과를 결합하며 력사—당 로작들이 현대 지식이 요구하는 수준에 처하여 있고 우리 간부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장성한 사상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과학적 쏘련 공산당사의 저술은 당 대회、대표자 회의、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들의 사업을 그 회의록에 의하여 심오하게 또 전면적으로 연구할 것을 요구한다。이와 함께 결정서나 보고 뿐만 아니라 이러 저러한 문제의 일체 토의 행정을 면밀히 연구하여야 하며 채택된 결정 실현을 위한 당 단체들의 일체 투쟁 과정을 상세히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지방 당 단체들의 활동을 연구하기 위한 원천으로서는 이 단체들의 문헌들과 지방 출판물들도 리용할 필요가 있다。

쏘련 공산당 력사는 우리 조국 력사의 불가분의 한 부분이다。력사—당・문제들을 연구할 때는 공민사의 제반 성과를 참작하며 나라의 경제、정치 및 문화 발전의 현실적 제 과정에 대한 료해에 립각하여야 한다。

쏘련 공산당사의 참다운 과학적 해명은 세계적 사변들과의 련관 속에서만 가능하다。왜냐 하면 인류의 운명을 분석하는 견지에서만 우리 공산당의 투쟁 및 승리의 위대성을 완전히 해명 및 리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쏘련 공산당은 언제나 이 사변들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또 서 있다。二〇세기 초에 혁명 운동의 중심은 구라파에서 로씨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로씨야에서 새 형의 당인 볼쉐위크 당의 창건은 국제 로동 운동의 발전에서 전환점으로 되였다。전 세계사의 새 기원을 열어준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은 우리 나라로 하여금 진보적 인류의 선두에 서게 하였다。쏘련 공산당이 그 주도자 및 조직자로 되여 있는 력사적 사변들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언급하지 않은 큰 서적을 세계 각국의 정치 문헌 가운데서 발견하기는 곤난할 것이다。이러한 서적의 필자들은 각이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으로 쏘련 공산당의 활동을 가지각색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헌을 료해하는 것은 당의 국제적 영향을 더 잘 리해하며 당의 력사를 더 완전히 해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력사—당 문제들의 연구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원천으로 또 방법론적 기초로 되는 것은 브・이・레닌의 로작들이다。혁명의 수령의 초기 저작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론문들에 이르기까지의 수다한 저서들 가운데서는 一九二四년까지의 우리 당의 투쟁과 승리에 대한 진정으로 과학적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이며 값이에 있어서 류례없는 해명이 주어져 있다。

브・이・레닌의 로작들은 과학적 사회주의와 로동운동과의 밀접한 련계、혁명적 리론과 실천과의 유기적



통일을 체현하고 있다。당은 레닌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음으로써 자기 활동의 모든 계단에서 자기의 정책과 실지 사업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였다。그러나 력사—당 문헌에서는 리론 활동과 실지 사업과의 이 련결이、또는 쏘련 공산당의 정책의 과학적 론증이 약하게、불충분하게 표시되여 있으며 또 당 생활의 모든 계단에 걸쳐 표시되여 있지 않다。례를 들면 부단히 발전하고 풍부히 되여가는 맑스—레닌주의 학설이 당의 사상적 기초를 이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간략 독본에서는 당의 사상적 기초에 대한 서술이 단지 레닌의 한 개 저서『무엇을 할 것인가?』의 범위내에서만 진행되고 있다。조직적 기초에 관한 학설은 단지 로작『一보 전진 二보 퇴각』과만 련결되여 있다는 것을 옳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왜냐 하면 당은 자기의 조직적 기초를 계통적으로 발전시키며 완성하기 때문이다。레닌주의의 전략과 전술은 단지 저서『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의 사회 민주당의 두 가지 전술』에서만 작성되였다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옳지 않다。혁명 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취급한 브・이・레닌의 기타 저서들은 허다하며 당 결정들도 적지 않게 있다。당의 리론적 기초에 관해서도 똑같은 것을 말하여야 하는 바 당의 리론적 기초는 저서『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에서 뿐만 아니라 레닌의 기타 로작들에서도 서술되여 있는 것이다。

당의 리론 활동을 단지 레닌이 당 력사의 초기에 집필한 로작들과만 련결시킨다는 것은 당의 사상적 재부를 빈약하게 하며 레닌의 리론 유산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당의 정책、전략 및 전술에 대한 과학적 론증에 있어서나 혁명 리론의 발전에 있어서『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국가와 혁명』、『공산주의에 있어서의「좌익」소아병』、『쏘베트 정권의 당면 과업』、『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시기에 있어서의 경제와 정치』、『식량세에 관하여』、『협동 조합에 관하여』및 기타 많은 저서를 위시한 브・이・레닌의 기타 훌륭한 로작들도 거대한 역할을 놀았던 것이다。그러나 이 로작들은 력사—당 문헌에서 적게 리용되여 왔다。레닌의 리론 유산을 주밀하게 또 심오하게 연구하지 않고서는 당의 력사를 쓸 수 없다。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여야 할 것은『브・이・레닌의 로작들에서의 당 력사』라는 일반적 표제 밑에 개개 시기에 대한 저서들은 큰 흥미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 력사 학자들의 중요 과업은 매개 단계의 당의 리론 활동과 실천 활동을 해명함에 있어서 량자간의 유리를 청산하는 데 있다。이를 위해서는 브・이 레닌과 기타 맑스—레닌주의 리론가들의 저작들、그리고 또 당 대회、대표자 회의 및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들의 제 결정에 기초하여 철저히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성격을 천명하며 당이 어떻게 이 리론을 발전시켰으며 그를 지침으로 삼았는가、어떻게 그것을

실현하였는가, 어떻게 그것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혁명 투쟁으로 화하게 하였는가를 보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오직 이와 같이 대상을 심오하게 전면적으로 해명함으로써만 연구가들과 교수들은 성과적으로 력사—당 과학을 풍부하게 하며 쏘련 공산당 력사를 행동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로서 반영할 수 있다.

쏘련 공산당 력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공산당의 기원을 맑스주의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며 이 문제에서 현존하는 오유를 시정해야 한다. 우리 나라 공산당은 세계 혁명적 로동 운동의 대렬의 하나로서 발생하였다. 이 당은 모든 나라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의 선진적 경험과 그의 리론 및 실천을 섭취하였다. 『참으로 로씨야는——하고 레닌은 썼다——전례 없는 고난과 희생, 미증유의 혁명적 영웅주의, 믿기 어려울만한 정력과 무한한 탐구, 훈련, 시련, 실망, 검열, 구라파의 경험의 비교 대조에 찬 반세기의 력사를 통해서 유일하게 옳은 혁명 리론으로서의 맑스주의를 천신 만고하여 얻어냈던 것이다. 짜리즘에 의하여 강요된 망명 생활의 덕택으로 혁명적 로씨야는 一九세기 후반기에 세계 어느 한 나라도 갖지 못한 혁명 운동의 전 세계적 형식 및 리론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다방면적인 국제적 련계를 소유하였던 것이다』(전집 제三一권 九페지). 그러나 우리 력사—당 문헌에서는 쏘련 공산당의 발생 발전에 관한 문제가 종종 분파적으로 세계 혁명 운동과 유리되여 연구되고 있다.

당 력사에 관한 문헌에서는 또한 혁명적 민주주의자들——로씨야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선구자들에 대한 공산당의 계승 관계를 해명하는 문제에도 의당한 주의가 돌려지지 않고 있다. 지주—전제 제도를 반대하는 우리 나라 해방 운동 력사에 찬란한 페지를 이룩한 혁명적 인민파들의 활동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는 사태가 더욱 좋지 못하다. 쏘련 공산당 력사학자들은 지난 세기 六〇년대와 七〇년대의 혁명적 유산을, 리상화함이 없이 또 허무주의적으로 대함이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또한 로씨야 사회 민주주의 운동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게·웨·쁠레하노브의 리론적 및 정치적 활동에 대한 브·이·레닌, 볼쉐위크들의 태도도 전면적으로 보이여 주어야 한다. 쁠레하노브의 리론적 유산을 평가하면서 브·이·레닌은 『철학에 관한 쁠레하노브의 모든 저작』을 연구할 것을 공산당원들에게 호소하였으며 『그것은 세계의 모든 맑스주의 문헌에서 우수한 것이기 때문이다』(전집 제三二권 七三페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레닌의 이 평가는 사실상 망각되여 왔다.

개인 숭배의 유해한 관념론적 『리론』은 쏘련 공산당 초기 력사의 기타의 수다한 문제를 해명함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례컨대 레닌의 『로동 계급 해방 투쟁 동맹』과 나라니, 쓰딸린을 선두로 한 트비리씨 사회 민주당 단체가 로씨야 사회 민주 로동당의 제二의 중앙으로서 존재했던 것처럼 보는 력사적 진실에 모순되는 개념이 일관된 서적들이 오래 동안 보급되여 왔다. 이 책들에서는 사실들이 날조되였으며 사건들이 부정확하게 설명되였으며 개별적 인물, 당 단체 및 출판 기관들의 활동이 경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저작들에서는 새 형의 맑스주의 당을 창건한 로씨야 사회 민주 로동당 제二차 대회와 같은 공산당 력사상의 대 사건이 과소 평가를 받았다. 이와 반면에 쁘라가 당 대표자 회의의 의의가 과장되였다. 일련의 소책자들에서는 사실을 무시하고 쁘라가 대표자 회의가 새 형의 당을 창시했다고 하는 간략 독본의 부정확한 명제를 『론증하고 발전시키려』는 기도가 이루어졌다.



一〇월 변혁의 준비 및 수행기와 국내 전쟁 시기의 쏘련 공산당의 활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력사학자들 앞에는 많은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나서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은 전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사건이며 인류 발전에 있어서의 전환점이다. 一〇월 변혁의 준비와 수행이야말로 참으로 당과 로동 계급의 불멸의 위훈이다.

그러나 극히 최근까지 一〇월 혁명 시기의 당의 혁명 사업이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으며 개괄되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력사적 합법칙성이 문헌에서 미약하게 천명되였으며 쏘베트 정권을 전취 및 공고함에 있어서 발휘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과 인민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이 흔히 경시되였다. 일련의 력사—당 로작들에서는 또 『전련맹 공산당(볼쉐위크) 력사 간략 독본』, 『쏘련 국내 전쟁사』 제一、二권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의 지도자로서의 브·이·레닌의 역할, 혁명 단계의 당의 리론, 전략 및 전술의 작성에 기여한 그의 공헌이 과소 평가되였다. 一〇월 변혁 시기의 지방 당 단체들과 전체 공산당원대중의 사업은 전혀 불만족하게 해명되였으며 일부 유명한 당 활동가들이 무시되였으며 그들의 일부는 부당하게도 몰각되였다. 그와 반면에 쓰딸린의 공적은 극도로 과장되였다. 례컨대 주지하는 바이지만 一九一七년 二월 혁명 후에 쓰딸린은 후에 그가 자인한 바와 같이 당시의 모멘트의 평가, 당의 목전 과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부정확한 그릇된 립장을 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력사—당 문헌에서는 사실을 무시하고 이 시기의 당 정치 로선 작성에 있어서 쓰딸린이 지도적 역할을 논것으로 되여 있다.

국내 전쟁 력사를 해명함에 있어서도 많은 오유가

범해졌다。 이 제목의 대다수 서적과 소책자들에서는 전쟁의 전체 중하를 부담한 근로자들의 결정적 역할이 나타나 있지 않다。 대중 속에서의 당 조직 정치 사업에 대해서 극히 졸렬하게、피상적으로 또 추상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당이 근로자들을 결속하고 대중을 엄청난 곤난을 극복하는 데로 궐기시키는 데 성공한 대중 조직 정치 사업의 내용、형식 및 방법이 연구되지 않고 있으며 고귀한 경험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전선의 지도가 외곡된 형태로 묘사되였다。 붉은 군대의 모든 승리의 고무자이며 조직자였던 것은 당이며 그의 중앙 위원회이다。 바로 당 중앙 위원회가 전쟁의 모든 기본 문제들을 결정하였으며 전쟁 수행의 총 계획、주공 방향 등등을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력사―당 문헌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의 역할、레닌의 역할은 과소 평가되고 쓰딸린의 형상은 허위적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물론 쓰딸린은 국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론쟁할 여지 없이 일정한 공적을 가지고 있으나 문헌에서 이 공적은 지나치게 과장되였다。 즉 례컨대 一九一八년 중기에 주되는 전선은 동부 전선이였는데 많은 서적들、소책자들 및 론문들에서는 반혁명이 짜리찐 지역에 자기의 주공력을 가했으며 이 지역이 마치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던 것처럼 론증되였다。 이로부터 이 전선에서의 쓰딸린의 활동도 쏘베트의 운명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으로서 묘사되였다。 다음에 『전련맹 공산당 (볼쉐위크) 력사 간략 독본』에서 또 사실과는 모순되게、쓰딸린이 하리꼬브―돈바쓰―로쓰또브 선을 통한 제니낀 섬멸 계획을 중앙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중앙 위원회가 쓰딸린의 계획을 채택하였다고 부당하게 인정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계획은 쓰딸린이 남부 전선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채택되였던 것이다。 이외의 오유와 외곡들도 있다。

쏘련 공산당 력사학자들의 긴급한 과업은 력사적 사실에 완전히 합치되게 또 당 문헌의 깊은 연구에 기초하여 이 모든 외곡들을 근절하는 데 있다。 요는 진리를 회복하며 一○월 혁명과 국내 전쟁 시기에 있어서 거대한 규모와 내용、신축성있는 전술 및 풍부한 형식을 가진 당 활동을 전면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부르죠아지를 전복하고 쏘베트 정권을 수립한 후에는 공산당의 활동의 내용과 조건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공산당은 로후한 사회 생활 형식을 파괴해야 했던 당으로부터 혁명후에는 새 사회 제도의 건설을 실현하는 당으로 전변되였다。 당의 지도하에서 창조적 열정과 진정한 과감성에 충만된 쏘베트 인민의 영웅적 투쟁이 전개되였다。 수백만 사람들이 적극적인 정치 생활에 참가하였으며 력사 발전의 새로운 길이 개척되



였으며 사회의 새로운 조직 형태가 수립되였다。

인민과 전 세계 해방 운동에 대한 당의 위대한 력사적 공적은 당이 쏘베트 정권의 수다한 대내 대외의 적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새 생활 건설의 조직자이며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력사적 역할을 옳게 규정하였다는 데 있었다。 당은 브·이·레닌이 작성한 새 생활 건설의 천재적 계획으로써 쏘베트 인민을 무장시켰으며 그의 완수에로 대중을 조직하였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대중 속에서의 당의 조직 교양 사업의 새로운 형식들이 형성되였다。 전체 당 사업이 현저하게 변모하였으며 당의 조직적 기초가 가일층 발전을 보았으며 당 사업 방법이 새로운 조건에 적응되게 개선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 시기의 쏘련 공산당 력사의 창조적 연구는 연구가들과 교수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여야 한다。 쏘베트 사회 발전에 있어서 지도적 향도적 력량으로서의 당의 역할을 천명하며 력사의 참된 창조자로서의 인민 대중의 영웅주의를 보이여 준다는 것은 쏘련 공산당이 새 국가、새 경제、새 문화、새 로동 규률을 수립한 경험、대중 속에서의 새로운 당 사업 방법과 조직 형식을 수립한 경험을 심오하게 전면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감스럽게도 과학 일꾼들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一○월 혁명 이후 시기의 력사―당 문제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아직도 완전히는 료해되여 있지 않다。 『전련맹 공산당 (볼쉐위크) 력사 간략 독본』에서는 례컨대 주되는 관심이 당이 각종 프락치야와 군소 그루빠들과 어떻게 투쟁하였는가를 보이여 주는 데 집중되였다。 두 말할 것 없이 력사학자는 자기 대렬의 맑스―레닌적 통일을 위한 당의 투쟁을 보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당 활동의 한 개 측면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 력사를 이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 또 일부 서적들과 소책자들에서는 당 조직 사업의 분석과 결부됨이 없이 당의 경제 정책이 피상적으로만 서술되고 있다。 이것으로는 전혀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국가、경제 및 문화 건설、대중의 조직과 공산주의 교양에 관한 당의 지도、대중 속에서의 당 사업 형식과 방법、당 내부 생활、각종 편향을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확고한 기초에 립각한 자기 대렬의 통일을 옹호하는 당의 투쟁이 전면적으로 해명된 로작들이 필요하다。 기업소、꼴호즈、쏘베트 기관、교육 기관、과학 연구소들에서의 당 단체들의 사업 경험을 개괄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一○월 혁명 이후 시기의 당의 조직적 기초의 발전、변화하는 조건에 따르는 당 사업의 개편은 전혀 연구되지 않고 있다。

연구의 과학―리론적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는 극히

절실하게 나서고 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건설 시기에 쏘련 공산당은 맑스주의의 리론、그의 모든 구성 부분、즉 정치 경제학、철학、력사학을 발전시켰으며 발전시키고 있다。 하긴 최근 二〇—三〇년 간에 당의 실천 활동이 리론 활동보다 앞서 나간 경우가 있었으며 리론 전선이 락후한 사실들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 모든 단계에 당의 정책은 심오한 과학적 론거를 가졌었으며 또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에 있어서 一〇월 혁명 이후 시기의 당의 이리론 활동은 불만족하게 표시되였다。

현시기에 있어서 제一차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력사—당 저서들을 경제 지식으로써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당 활동을 경제적으로 론증함이 없이는 당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 과업들을 해결한 것을 그대로 다 보이여 주기는 전혀 불가능하다。

공산당이 전전 시기에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점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수행한 투쟁、전후 시기에 평화적 경제、문화 건설의 성과를 위하여 수행한 투쟁을 보이여 주는 력사 저작들이 얼마나 거대한 과학적、교양적 의의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쏘베트 사회의 지도적、향도적 력량으로서의 또 인민 대중의 투쟁의 고무자 및 조직자로서의 쏘련 공산당의 역할을 천명함으로써 연구가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풍부히 할 사명이 있다。

쏘련 공산당과 쏘베트 인민의 영웅적 투쟁은 「허식」과 「미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부 서적과 론문의 저자들이 쏘련 공산당의 력사적 로정을 그 어떤 난관과 일시적 실패도 없는 승리의 련속적인 로정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찬동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찬사는 특히 위대한 조국 전쟁 초기의 공산당의 활동에 관한 일부 저작들에 존재하였다。 전쟁 첫 단계에서의 쏘베트 군대의 불가피한 후퇴 및 심대한 패배와 실패가 흔히 성과로 칭해졌으며 적의 일시적 우세와 관련하여 쏘베트 인민 앞에 나섰던 난관들이 무시되였다。 쏘련 공산당 력사 참고 자료집과 기타 저작들에 발표된 일련의 론문들에서는 쏘베트 군대의 전투가 위대한 조국 전쟁의 최초부터 련속적인 개선으로서 묘사되였으며 쟁취한 승리는 쓰딸린 일개인의 공로로 돌려지고 있다。 전쟁 초기의 난관의 과소 평가와 개인의 역할의 과장은 쏘련 공산당의 활동을 해명함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바、 이것은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한 쏘베트 군대와 쏘베트 인민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당 력사에서 특출한 사건은 제二〇차 대회이며 이 대회는 쏘련에서 가까운 장래에 수행할 공산주의 건설의 방도를 규정하였으며 당 내부 사업을 가일층 개선



하며 당의 전투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일련의 중요 문제들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과학을 현저히 풍부하게 하였다。 대회 결정과 관련하여 학자들 앞에는 특히 중요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였으며 이 문제들의 해결은 우리 력사학을 새로운 단계에 끌어 올릴 것이다。 력사 학자들이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은 레닌적 당 생활 규범과 당적 지도의 원칙을 회복하며 가일층 발전시키거 위하여 최근 년간에 당이 수행한 사업이다。

개인 숭배를 반대하며 그 후과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 관련하여 력사학자들 앞에는 긴급한 과업들이 나서고 있다。 최근 二〇년간에 발생한 력사적 사실들과 사건들에 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 분석에 립각하여 개인 숭배가 어떻게 조성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앞으로의 교훈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 당 력사에서 쓰딸린이 논 역할、그의 활동상의 모순되는 특성을 옳게 보이여 주는 것이다。

쓰딸린에 대한 개인 숭배는 금년 六월 三〇일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결정에서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포위에 의하여 조성된 조건하에서만 발생할 수 있었다。 복잡한 국제 정세、제국주의 국가들의 계통적인 음모 책동、외부로부터의 공격의 부단한 위협、국내의 가렬한 계급 투쟁은 강철같은 규률、당적 및 국가적 지도의 엄격한 중앙 집권화、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은 쏘베트 국가가 강화됨에 따라서 또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력량이 발전됨에 따라서 제거되여야 할 일시적인 것으로서 당시 이미 당과 인민은 간주했었던 것이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결정서 『개인 숭배와 그 후과를 극복할데 대하여』중에서)。

이와 같은 것이 개인 숭배의 발생을 초래한 객관적 원인들이다。 동시에 정치 활동가로서의 쓰딸린의 일부 개성과 관련된 주관적 요인들도 존재하였었다。

이·브·쓰딸린이 오래 동안 당 중앙 위원회 총 비서의 지위에 있으면서 다른 일꾼들과 함께 레닌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옳지 못할 것이다。 쓰딸린은 자신을 리론가로서、걸출한 조직자로서 자처 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트로쯔끼 도배들、우경 기회주의자들、부르쥬아 민족주의자들을 반대하며 쏘련의 수다한 외부의 적들을 반대한 투쟁을 지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 수중에 무제한한 권력을 집중하자 레닌이 이전에 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을 충분히 신중하게 행사하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 공적을 과분하게 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당내의 집체적 지도 원칙을 위반하였으

며 지도 간부들에 대해서 전횡한 행동을 범하였으며 당 및 쏘베트 민주주의의 규범을 란포하게 유린하였다。 그는 자신을 완전 무결한 지도자로서 과신하였으며 그의 매개 결정은 유일하게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며 매개 발언은 맑스주의 사상의 최고봉으로서 선포되도록 백방으로 조장하였다。『계급적 원쑤들 및 그 주구들과의 가렬한 투쟁의 조건하에서、또 후에는 독일—파시쓰트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전쟁의 조건하에서 불가피하였던 당내 및 쏘베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을 쓰딸린은 당내 및 국가 생활의 준칙에로까지 끌어 올리기 시작하였으며 레닌적 지도 원칙을 란포하게 유린하였다。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와 당 대회들은 정규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그 뿐만 아니라 다년간 전혀 소집되지도 않았다。 쓰딸린은 사실상 비판 밖에 있었다』(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결정『개인 숭배와 그 후과를 극복할 데 대하여』 중에서)。

이와 아울러 강조해야 할 것은 지방 당 단체들에서는 쓰딸린의 직접적 영향하에 있던 당 기관 부문들에서처럼은 레닌적 당 생활 규범이 위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초급 당 단체들에서는 회의들이 계통적으로 소집되였으며 전쟁 전후를 통하여 주 및 변강 당 단체들의 대표 회의、가맹 공화국 공산당들의 대회、당 위원회들의 전원 회의는 다소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규적으로 소집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당 대회、대표자 회의、전원 회의들에서는 경제、문화 건설의 중요 문제들이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되였으며 당 지도 일꾼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있었다。

쏘련 공산당 력사를 해명함에 있어서 개인 숭배의 엄중한 후과의 하나는 당 내부 발전의 일부 중요 문제들에 대한 부정확한 일면적인 해석이였다。 이 문제에 관한 다수 저작들에서 당 내부 생활은 거의 전적으로 당내 의견 불일치에 그쳤으며 당내 민주주의 문제는 피상적으로 유치하게 해명되였다。

혼히 당 력사학자들은 당내의 기회주의적 제 조류와 분파들을 우리 나라 내부의 계급 투쟁과 련관 없이 고찰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적 그루빠에 참가한 자는 모두 한 묶음으로 부르죠아지의 주구의 진영에로 몰아 넣고 말았다。 이것은 력사적 진실과 모순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레닌을 선두로 한 볼쉐위크들은 혁명적 맑스주의 원칙으로부터의 온갖 일탈을 용허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기회주의적 그루빠와 조류들의 일반 성원들의 오유와 오해를 일소하기 위하여 그들을 자기 편에 끌어오기 위하여、프로레타리아 당의 사상적、조직적 통일을 옹호하기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다른 성질의 국단성도 존재하고 있다。 일부 연구가들、교수들 및 선전 일꾼들은 트로쯔끼 도배、우경 기회주의자들 및 기타 편향자들을 반대한 당의 투쟁의 전체 의의를 충분히 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완전히 명백해진 바와 같이 트로쯔끼 도배、우경 분자들의 정치 로선은 불피코 나라에 자본주의의 복구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력사학자들의 중요 과업의 하나는 당내 의견 불일치의 원인과 특징을 설명하며 온갖 잡다한 기회주의의 사회적 본질을 폭로하며 당의 총 로선을 옹호하며 론증하는 것이다。

볼쉐위크들과 멘쉐위크들 간의 투쟁을 해명함에 있어서도 각종 그릇된 관점들이 현존하고 있다。 이전에는 력사—당 문헌에서 멘쉐위크들이 흔히 짜리즘의 직접적 주구로서、자유—군주주의적 부르죠아지로서 비속하게 묘사되였었는 데 이제는 반대로 일부 력사학자들이 멘쉐위크들의 기회주의적 타협적—개량주의적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과소 평가를 발로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시대의 일반 민주주의 운동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문제도 포함한 혁명의 근본 문제들에 관하여 볼쉐위크와 멘쉐위크들 간에 존재한 원칙적 의견 차이를 무마호도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례컨대 이와 같은 옳지 못한 경향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은 一九〇五—一九〇七년의 로씨야 제一차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 五〇주년과 관련하여『력사 제 문제』지에 발표된 일련의 론문들에서이다。

당 력사를 해명함에 있어서 개인 숭배의 극복과 관련된 일부 문제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력사 제 문제』지 편집부는 조급하고 성립되지 않는 결론들을 짓고 있으며 개별적 론문들은 소란과 선동의 기분을 남겨 놓고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쏘련 공산당의 다각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이여 주자면 지방 당 단체들의 력사를 연구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유감스럽게도 지방적인 력사 문제의 연구는 불만족한 상태에 처해 있다。 하긴 최근에 우랄、씨비리、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백로씨야 및 기타 가맹 공화국 당 단체들의 력사에 관한 일련의 서적과 론문이 나타났으며 레닌그라드、모쓰크바 및 쏘련 공산당의 기타 큰 당 단체들의 력사에 관한 학사 학위 론문들이 적지 않게 집필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작의 다수는 교조주의와 개인 숭배의 표현과 관련된 본질적인 결함과 오유를 가지고 있다。 혼히 지방 당 단체들의 력사는 간략 독본의 도식에 맞추어지고 있으며 당 정책의 실현、대중에 대한 당의 지도 방법의 개선을 위한 당 단체들의 투쟁이 미약하게 구명되고 있으며 어떻게 지방 당 단체들이 구체적、력사적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당 정책을 실현하였으며 로동 계급의 지도적 역할하의 로농 동맹의 강화를 위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제 인민간의 친선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였는가가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모든 결함들을 극복하는 것은 주 당 위원회, 변강 당 위원회 및 가맹 공화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 크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 위원회들은 지방 당 단체들의 력사를 연구하는 교수와 과학 일꾼들에게 일상적인 실효있는 방조를 주어야 한다.

당 건설과 당 출판물의 력사에 관한 문제의 연구도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제목에 관한 절대 다수의 서적, 소책자 및 학사 학위 론문들은 피상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당 력사의 방법론에 대하여 이제까지보다도 훨씬 커다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방법론상 문제들의 과소 평가는 쏘련 공산당 력사학자들의 연구 사업과 교수 사업 수준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력사학 시대 구분, 력사주의의 원칙 및 과학의 당성과 같은 당 력사에 관한 리론적 문제들의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업은 방법론 및 력사학에 관한 로작의 창작을 보장하여 여기서 당 력사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축적 과정을 밝히며 쏘련 공산당 력사의 대상을 더욱 심오하게 천명하여 력사—당 과학의 장래 발전에 관한 전망을 예정하는 데 있다.

쏘련 공산당 력사 연구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노는 것은 사료 연구 사업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력자—당 과학의 이 부문은 혼란 상태에 처해 있다. 고문서를 리용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들에게서는 오래 동안 자의적인 태도가 횡행하고 있었다. 즉 문헌의 정리에서는 일면적으로 취사 선택되였으며 일부 고문서들은 연구가들에게 개방되지 않았으며 다수 문헌들은 각종 고려에 의해서 무시되고 말았다. 이제는 이런 것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고문서들은 과학적인 당 력사 저술의 중요한 사료로 되여야 한다. 문헌 및 자료집의 과학적인 출판을 조직하며 사료 연구에 관한 전문적 저서를 출판해야 한다. 당 결정들과 문헌들에는 쏘련 공산당, 그 중앙 위원회, 지방 당 단체들의 풍부한 경험이 집중되여 있다. 사료 연구 사업에서 일이 잘 조직된다면 당 력사학자들이 이 자료들, 그리고 또 당 및 국가 고문서의 풍부한 장서들을 광범히 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새 문헌들을 더욱 대담하게 과학 연구에 인입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더욱 광범한 규모를 띠여야 할 것은 쏘련 공산당 력사 및 력사학 관계 보조 과학에 관한 특수한 문헌의 사료적인 편찬 사업이다. 당 력사학자들은 로 볼쉐위크들, 국제 로동 운동 및 혁명 운동의 활동가들의 회상기들을 자기 저자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인입 리용해야 한다.



쏘련 공산당 력사를 해명함에 있어서 엄중한 결함은 많은 점에 있어서 과학 및 교수 간부들의 준비가 옳게 못된 데 달려 있다. 이 결함들은 당 력사에 관한 학사 학위 론문의 준비 및 발표에서 특히 명백하게 나타났다. 이 학위 론문들의 대부분에서는 과거 사건들의 과학적인 평가가 결여되여 있다. 학위 론문 제출자들은 실제 문건 자료를 무시하였으며 사실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선언, 추상적인 추론에 그치였다. 그 결과로 쏘련 공산당 력사는 력사적 사실과 리론적 결론들에 의하여 풍부화되였다고 하기에는 극히 부족하다. 흔히 학위 론문 제출자들은 충분한 예비적 사업 없이 자기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대학의 지도 교수들은 그것을 완전히 성숙된 학사 학위 론문으로서 도장을 찍었다. 개인 숭배, 교조주의 및 독경주의의 영향은 로소를 물론하고 당 력사학 간부들의 과학 및 교수 사업에 파멸적으로 나타났다. 당 력사에 관한 경험 있는 인재들의 대부분이 집결된 쏘련 공산당 사회 과학 아까데미야 력사 강좌는 과학—연구 사업의 중심으로 되지 못했다. 맑스—레닌주의 연구소 당 력사부 과학 연구원 집단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루어 논 성과가 적었다.

쏘련 공산당 력사 부문에서 교조주의와 개인 숭배를 극복하는 복잡한 과업은 『기병식 돌격』으로는 해결 될 수 없으며 당 력사 학자들의 전체 력량을 적극 발동시킴이 없이는, 과학 교수 사업의 심각한 개편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문제의 본질은 과학—연구 및 교수 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달성하며 당 력사 학자들로 하여금 풍부한 실제 자료에 립각하고 우리 간부들과 전체 쏘베트 인민의 성숙된 요구에 부합되는 저서와 강의 교재를 만들도록 방조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편은 적지 않은 시간을 요할 것이다. 그러나 제二〇차 당 대회가 끝난지 五개월 후인 현재 이미 우리는 특히 능숙한 강의와 보고를 조직하며 과학적이며 선전적인 성격의 론문들을 발표함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에 의한 사업들의 첫 결과들을 당 력사학자들에게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정당할 것이다.

쏘련 공산당 력사의 연구와 선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 것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직속 맑스—레닌주의 연구소와 그 지부들이다. 연구소 연구원 집단은 맑스—레닌주의의 창시자들의 저작들의 수집 출판 사업에 고귀한 기여를 해왔지만 이제는 자기 과학 활동의 범위를 훨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맑스, 엥겔스, 레닌, 공산당과 쏘베트 국가의 탁월한 활동가들의 로작의 출판, 회의록, 당 대회, 대표자 회의 및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결정서집、지방 당 단체들의 문헌들의 발간과 아울러 맑스—레닌주의 연구소와 그 지부 연구원들은 체계적으로 당 력사의 개별적 문제들의 연구에 종사하며 단일한 연구 론문、교과서、서적 해제를 작성하며 방법론상의 문제들을 설정 해결해야 한다。

쏘련 공산당 력사 문제들에 관한 전문 잡지는 공산당 력사 연구에 다대한 방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잡지는 과학적 토론、경험 교환、과학—연구 저서들의 성과의 평가와 일반화 및 대학과 당 교양망에서의 쏘련 공산당 력사 연구 수준의 제고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잡지는 당 력사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가들과 교수들의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될 것이며 그들의 연단으로 될 것이다。

쏘련 공산당은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위대한 력량이며 쏘베트 인민、조물주—인민、창조자—인민의 세련된 지도자인 것이다。 지난날과 다름 없이 쏘련 공산당의 현재 활동、그의 일체 대내 대외 정책은 인민의 리해에 복종되고 있으며 쏘베트 나라의 경제、문화의 가일층의 개화를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가들과 교수들은 공산당의 사업과 사상에 관한 진정한 말을 대중에게 주입시킴으로써 간부의 맑스—레닌주의적 교양、쏘베트 사람들의 공산주의적 의식의 부단한 장성을 위하여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쏘련 공산당 력사의 연구는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의 건설의 경험으로써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며 쏘련과 전 세계에서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강화하는 것이다。

(「꼼무니쓰트」지 제一〇호에서)



#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의 강화

강 현 수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서 진행되는 민족 해방 투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은 로씨야의 위대한 一〇월 사회주의 혁명은 아세아 인민들을 세기적인 잠에서 깨우고 그들을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에로 궐기시켰다。 一〇월 혁명 이후에 진행된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 점차로 로동 계급의 령도와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의 선봉적 역할이 장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에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투쟁은 점차로 호상 련계를 강화하게 되였고 一九三〇년대에 파시즘의 대두와 관련하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공동 전선을 강화시켰다。 그후 아세아에서는 파시즘을 반대하는 제二차 세계 대전이 진행되던 시기에 와서 일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은 더욱 뚜렷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되였으며 특히 전쟁이 쏘련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종결된 이후에 와서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게 되였다。

오늘 아세아에서 강력히 진행되고 있는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결국에 있어서 미제를 선두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자주적 발전을 쟁취하려는 목적을 주요한 투쟁 과업으로 제기한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세아 인민들은 다 같이 투쟁에 궐기하고 있다。

현 시기에 있어서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을 가일층 강화하는 문제는 전 세계 인민들의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일반적 문제의 주요한 한 부분으로 되며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전 세계 인민

들의 투쟁 력량의 강화는 바로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을 강화하며 승리케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특히 현 시기에 있어서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이 강화된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도 매우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들 앞에는、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의 기초는 무엇이며 또한 제二차 세계 대전 이후에 있어서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을 강력히 추진시킨 주요한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동시에 공동 투쟁이 진행되여 온 과정을 분석 총화하는 것이 필요한 문제로서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 이것은 제국주의 체계의 구성 부분이며 제국주의의 기본적 후방이다。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착취는 그들의 최대한의 리윤의 주요한 원천으로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독점 자본가들의 최대한의 리윤은 판매 시장、원료 원천지 및 자본 투하 지역으로서의 식민지、반식민지들에 대한 착취와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에 대한 착취 및 억압의 강화와 이에 따르는 식민지 인민들의 기아、빈궁화、무권리、노예 상태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야기시킨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이 착취와 억압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이다。 이러한 민족 해방 투쟁이 점차 호상 관련되면서 공동 투쟁의 형태로서 진행되게 되는 바 이 공동 투쟁의 기초를 해명하기 위하여서는 주로 二차 세계 대전 이후에 조성된 제 사실에 근거하여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二차 대전 이후 미、영、불 등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더 장성하는 로동 운동과 인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강력한 진출을 탄압하며 식민지、반식민지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을 억압 말살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하였다。 특히 미제는 세계 제패를 위하여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긴장 상태를 계속 격화시켜 왔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은 세계 제패를 위한 그의 계획의 주요한 한 부분으로 되였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세아 지역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게 되였다。 그들은 자기의 군사 전략적 기지와 독점 자본가들의 최대한의 리윤의 원천지로 하기 위하여 풍부한 자원과 수 많은 인구를 가진 아세아를 자기들의 완전한 지배하에 넣으려고 계획하였다。



이리하여 미제는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억압 말살하려는 제국주의 렬강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자기의 계획 달성에 어느 정도 유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방조하는 한편 영국、불란서、화란 등 기타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력을 점차 구축하고 아세아를 단독적으로 지배하려고 획책하였다。 바로 이 때문에 아세아의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종주국을 반대하는 투쟁인 동시에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 미제를 선두로 한 제국주의 렬강들은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여러 민족 국가들을 강점하며 략탈하기 위하여、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쏘련、안민 민주주의 국가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새 전쟁 준비와 도발에 광분하게 되였다。

그러나 위대한 중국 인민은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물리치고 인민 혁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인 중국에서 혁명이 승리한 것은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치명적 타격으로 되였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계속 전쟁 준비에 광분하면서 조선을 완전히 자기의 식민지로 전변시킬 목적으로 드디여 조선 인민의 원쑤인 리승만 매국 도당을 사수하여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도발하고 인류 력사에서 알지 못하는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으며 조선 인민은 력사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 전쟁에서의 조선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대한 계속적인 치명적 타격이였다。 조선에서 정전이 달성된 후 一년만에 월남에서도 정화가 달성되고 월남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八년간의 영웅적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은 계속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계획은 계속 파탄되였던 것이다。 조선에서 참패를 당한 미제는 전쟁에서의 참패를 교훈으로 삼을려고 하지 않고 계속 아세아에서 군사 동맹의 체결에 광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과 인도지나에서 정전이 달성된 이후에도 아세아에서는 긴장 상태가 존속되였다。 아세아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특히 위험한 것은 바로 아세아 제국을 침략적 군사 집단에 끌어 넣는 온갖 종류의 쁠럭、조약、『호상 협조』 동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것으로서는 一九五四년 이후에만 조작된 것으로도 허다하다。 즉 미—토 조약、토이기—파키스탄 협정、미국—파키스탄 조약、토이기—이란 조약、미 합중국과 일본과의 군사 협정、미국과 리 승만 도당 및 장 개석 도당과의 군사 협정、캄보쟈와 미 합중국과의 군사 협정、『동남 아세아 동맹』、그리고 『북대서양 동맹』과 『동남 아세아 동맹』을 련결시키는 『바그다드 조약』 등등

이다. 미제는 특히 「동남 아세아 동맹」을 조작함으로써 소위 「경제적 대책」이라는 간판 밑에 아세아의 일부 국가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을 분렬시키며 소위 「아세아인들을 반대하는 아세아인들의 전쟁」을 야기시키려고 획책하였다.

한편 미제는 아세아에 대한 침략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식민주의의 새로운 형태인 후진 국가에 대한 소위 「원조」를 실시하게 되였다. 식민주의자들의 이러한 「원조」의 실제적 목적은 후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진정으로 원조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 독점 자본가의 최대한 리윤 추구를 충족시키며, 후진 국가의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고 후진 국가를 미제에 완전히 예속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실례로 유•엔 아세아 및 극동 위원회 전문가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 하더라도 최근 년간에 외국 독점가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전 국민 소득의 一〇% 이상의 리윤을 획득하였으며 一九四八년부터 一九五一년까지에 인도、인도네시아、비루마、쎄일론、비률빈 등 나라들에서 투자 총액보다 二억 六천 一백 四〇만 딸라나 더 많은 리윤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미 독점가들은 동남 아세아 지역 경제에 투하한 총자본의 二〇%만을 공업 부문에 투하하였으나 그것조차도 나라의 경제를 극히 기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총자본의 八〇%는 전적으로 부원을 강탈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수단을 다하여 동방 농산물 수출 국가들의 민족 경제를 파탄에로 이끌어 넣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원조」의 결과는 사태를 더욱 더 비참케 하였다. 오늘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원조」는 파괴된 남조선 산업의 복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더 많은 략탈과 착취를 목적하고 있으며 새 전쟁 준비를 목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원조」는 그의 대부분은 괴뢰군 무장과 군사 시설에 충당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세계 시장에서 남아돌아가는 미국 과잉 상품의 반입에 배당되고 있다. 실례로 一九五五년도의 「원조」 총액중 六〇%는 직접적 군사 「원조」였고 나머지 四〇%도 거의나 이와 관련된 것이였다.

오늘 미제의 「원조」의 결과 남조선의 일체 중요 경제 명맥과 국가 경제 생활은 미제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 가고 있으며 상공업자들은 파산 령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경제 생활은 날로 악화되여 가고 있으며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도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다. 미제의 아세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원조」의 결과도 이상에서 설명한 몇 가지 실례들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상과 같은 미제의 「원조」를 받는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완



전히 예속화되며 나중에는 부득이 침략적인 군사 쁠럭에 참가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있어서 동남 아세아에서 침략적인 군사 쁠럭인 「동남 아세아 동맹」은 후진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를 예속화하는 도구로 되고 있으며 기구내 후진 국가들에서의 미제의 군사 정치적 권한은 강화되고 있으며 그 나라들의 경제의 군사화와 경제적 파탄과 곤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그 성격에 있어서 식민주의의 새로운 형태로 되는 것이다. 실례로 아세아 및 극동 제국 경제 위원회 제一二차 회의 공식 재료에 의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볼 수 있다.

「동남 아세아 동맹」 창설 이후에 있어서 파키스탄에서는 직접적인 군사비에 전체 예산의 四〇—九〇%를 충당하고 있으며 타이에서도 군사 및 경찰 목적에 지출 예산의 四八% 이상을 배당하고 다만 一一%만을 경제 발전에 배당하게 되였다. 그리고 파키스탄과 타이에서는 가장 주요한 농산물의 생산고는 감소되였으며 공업 생산도 결국에 있어서 군사 쁠럭 기구의 리해관계에 복종되는 관계로 나라의 전반적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일면적으로만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타이에서는 인플레이숀이 강화되였으며 파키스탄에서도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이 회의에서 비률빈 대표까지도 자기 나라에서의 계속적인 물가 등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오늘 아세아에서 인도、비루마、인도네시아와 같이 국가적 독립을 달성한 이전의 식민지 나라들은 지금 독자적으로 국제 무대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력사적인 제 조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들도 외국 자본의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까지 인도에서는 석유 공업의 九七%、고무 공업의 九三%、황마 공업의 八九%가 외국 자본의 수중에 있었다.

오늘 아세아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월남 민주 공화국은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공을 격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의 잔재를 성과적으로 청산하고 지금 독자적인 발전의 길에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강대한 세계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를 선두로 한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아세아에서 침략적 군사 쁠럭과 각종 군사 정치적 조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 기지의 확장과 전쟁 준비를 더욱 강화하면서 이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 더우기 오늘 대만、남조선、남부 월남에서의 미제의 책동과 일본 군국주의의 재무장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오늘 전체 아세아 인민들은、미、영、불 등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빈궁、기아、무권리와 노예화를 가져오며 막대한 회생까

지 초래한다는 것을 과거의 체험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서 더욱 더 똑똑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오늘 아세아 인민들은 아세아에서 군사 뿔럭을 조작하며 아세아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소위 『원조』로서 예속화를 강화하려는 미제를 선두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일체 행동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공고한 평화、민주주의、민족적 독립과 자주적인 발전 등과 같은 공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궐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투쟁을 한 데 결합시키는 현실적인 기초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기초 우에서 오늘 아세아 인민들은 미제를 선두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을 폭로 규탄하며 침략적 군사 뿔럭의 창설을 반대하며 미국의 『원조』를 거절하면서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공동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자주적 발전을 위한 투쟁을 호상 분리시켜서 진행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이 투쟁들은、현 국제 정세하에서는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반대한다는 동일한 투쟁 목표에 귀착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은 오늘날 단순한 것이 아니며 주로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자주적 발전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갖은 형태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어느 한 투쟁에만 국한될 수 없는 것이다。

* * *

이상에서 주로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투쟁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는 二차 세계 대전 이후에 있어서 공동 투쟁을 더욱 더 강력히 추진시킨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의 해명과 함께 공동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여 왔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한 문제로서 역시 제기된다。

二차 세계 대전 이후 시기에 있어서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을 강력히 추진시킨 주요한 요인으로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의 쏘련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파시쓰트의 완전한 패배로서 전쟁이 종결된 결과 전후 국제 정세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근본적으로 전환되여 제국주의의 진영은 약화되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이 날로 강화된 사실이다。

二차 세계 대전의 결과 제국주의의 전선은 한 고리에서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파괴되였으며



그 결과 새로운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이 발생하였다。 이리하여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진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새로운 사회 경제 제도와 국가 호상간에 있어서의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친선과 협조로 말미암아 이 진영은 급속한 속도로 발전되였으며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그의 결정적 우월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확증되였고 이 진영내의 인민들 간의 친선과 단결은 더욱 더 공고화되였다。

이와는 반대로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로 말미암아 약화되였으며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은 더욱 더 첨예화되고 로동 운동이 급격히 앙양되였으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앙양되여 식민지 체계의 위기는 더욱 첨예화되였다。

다음으로 지적하여야 할 주요한 요인은 세계 평화 옹호 운동의 급속한 장성 발전이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 평화를 위한 투쟁은 그 어느 한 계급의 리해 관계에만 국한될 수 없었다。 평화를 위한 투쟁은 로동계급과 농민 뿐만 아니라 일부 자본가들과 종교인들까지 포함하여 정치적 견해와 신앙을 달리하는 전 세계의 광범한 인민 대중의 리해 관계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되였다。 바로 이 때문에 평화 옹호 운동은 급속히 그리고 광범하게 강력히 진행되였다。 특히 쏘련을 선두로 한 민주주의、사회주의 진영의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으로 인하여 평화 옹호 운동은 더욱 더 강화 발전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된 력량으로 되였다。

다음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을 공동 투쟁으로서 추진시킨 주관적 요인들이다。

그것은 二차 세계 대전후에 있어서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에서 각성된 인민 대중의 역할과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가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을 뿐만 아니라 투쟁에서 국제주의 원칙에 충실한 맑스주의 당의 령도적 역할이 강화되여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자주적 발전을 념원하는 일체 애국적인 력량을 자기 주위에 규합하고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전 세계 인민들의 강력한 운동과 자국의 민족 해방 투쟁을 옳게 련결시키는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사실이다。 오늘 로동 계급은 민족 해방 투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노는 동시에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철저하고도 과감한 투사로 되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기들의 사상적 통일과 국제주의적 형제적 련대성을 유지 공고화하고 있다。 식민주의의 억압으로부터 인민 대중을 해방시키려는 위대한 목적이 그들을 결속시키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의 과학적 사상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에 대한 충실성、인민 대중의 리

익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이 그들을 한데 결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에 의하여 령도되는 아세아의 여러 나라의 인민들은 호상 공동적 리해 관계와 지향을 가지고 착취자들과 침략자들을 공동의 원쑤로 삼으며 다른 인민의 불행을 자기들의 불행으로 간주하면서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상과 같은 주객관적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공동 투쟁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을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영향을 준 것은 중국 인민의 위대한 력사적 승리와 중화 인민 공화국의 창건이다。 제국주의의 침략 세력을 타도하고 중국 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더욱 혁명화시킨 주요한 요인으로 되였으며 미제를 선두로 한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하는 것을 더욱 더 강화시켰다。 특히 강조하여야 할 것은 중국 인민 혁명의 수행 과정에서 조중 인민들의 공동 투쟁의 모범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즉 외래 침략 세력과 그와 결합된 국민당 반동 통치를 전복하는 중국 인민의 투쟁에 조선 인민의 애국자들은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그를 방조하였다。

중국 인민의 위대한 승리 이후 우리 나라의 조국 해방 전쟁을 계기로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은 가일층 강화 발전하였다。

미제 침략 세력을 반대하며 자기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궐기한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그것이 정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제 침략을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모든 인민들의 가혹한 투쟁의 초점의 하나로 되였기 때문에 고립될 수가 없었으며 쏘련을 선두로 한 평화 애호 민주 진영의 지지 성원과 적극적인 원조를 받게 되였다。 바로 이것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장성 강화하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진영간의 국제주의적 련대성의 강화의 가장 뚜렷한 표현이였으며 조선 인민의 승리의 가장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조국 해방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의 중국 인민 지원군의 참전과 그들과의 공동 투쟁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의 가장 훌륭한 모범이였으며 고상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명백한 표현이였다。 이와 같은 조중 인민의 공동 투쟁은 조중 량국 인민이 호상 공동적 리해 관계와 지향을 가지고 미제를 공동의 원쑤로 삼았기 때문이며 국제주의 원칙에 충실한 중국 공산당과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지도되였기 때문이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조선 인민의 승리는 쏘련을 선두로 한 평화 애호 민주 력량의 통일



과 단결의 힘은 불패의 것이라는 것을 실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적 독립을 고수하기 위하여 평화와 민주 진영에 의거한다면 그러한 인민은 예속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제국주의자들은 이전처럼 마음대로 타국 령토를 침공하여 그 나라 인민을 식민지 노예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이리하여 조선 인민의 승리는 식민주의를 반대함에 있어서 공동 투쟁이 승리의 가장 주요한 요인의 하나라는 것을 확증하였다。

일찌기 레닌 동지는 「오직 인도、중국、조선、일본、파사、토이기 등의 로동자와 농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해방을 위한 공동 사업에로 함께 나갈 때에라야만 착취자들에 대한 결정적 승리가 보장된다」(「레닌 전집」 제四판 제三一권 一六一페지) 라고 하였다。 레닌의 이 사상은 우리 시대에서 그의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교시는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투쟁에서 확고 부동한 행동 지침으로 되는 것이다。

장성 강화하는 평화 옹호 운동에 따라 一九五二년 一〇월 아직 조선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북경에서는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 평화 옹호 대회가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대회는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이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과 불가분리의 련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그후 계속하여 평화를 위한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은 강화되였다。 아세아에서 공고한 평화를 유지함에 있어서 사회 제도를 달리하는 아세아 제국들 간의 친선과 협조의 강화는 주요한 성과로 된다。 아세아에서 사회 제도를 달리하는 중국과 인도는 一九五四년에 중국—인도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평화를 위한 아세아 인민들의 투쟁에서 강화되는 단결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이한 사회—국가 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모범으로 되였다。 협정에서 강조된 평화적 공존의 五개 원칙(상대방의 령토 완정과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불가침、상대방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평등과 호혜、평화적 공존)은 전쟁 위협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아세아 인민들에게 있어서 그의 투쟁 강령으로 되였으며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였다。

평화적 공존의 五개 원칙에 기초하여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려는 전체 아세아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갖은 방해와 책동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한 아세아 인민들의 강력한 운동은 一九五四년 四월에 인도의 뉴델리에서 아세아 제국 회의를 진행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계속

하여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아세아 및 아프리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회의들은 아세아 인민들의 력사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현상이며 아세아 인민들의 친선 협조와 공동 투쟁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단계를 표시하는 주요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회의들이였다。 회의들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자주적 발전을 위한 전체 아세아 인민들의 념원에 기초하여 평화 유지와 인민들의 공동적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는 정치、경제、문화의 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 결정하였다。 특히 지적할 것은 아세아 제국 회의에서는 평화적 공존의 五개 원칙이 확인되였고 아세아 및 아프리카 회의에서는 세계 평화와 협조를 위하여 평화적 공존의 五개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원칙적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 사실이다。

이리하여 두 회의의 성과적 진행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단결을 뚜렷이 증시하였으며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에게 명확한 길을 밝혀줌으로써 공동 투쟁을 더욱 더 발전 강화시켰다。

반둥 회의 이후 최근 시기에 진행된 제 사변들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서 반둥 회의 결정이 가지는 거대한 중요성을 확증하여 주었으며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의 강화 발전을 보여 주었다。

반둥 회의 이후 평화적 공존과 친선 협조의 정신과 공동 투쟁의 정신은 아세아 인민들 속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광범하게 실천되였다。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를 위하여 델리에서 아세아 一五개국 사회계 대표들의 회의가 소집되였던 바 이는 아세아 제국의 평화 애호 력량을 단결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회의는 평화적 공존의 五개 원칙을 실천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노력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이로부터 출발하여 회의는 아세아 인민들의 단결을 위한 상설 위원회를 창설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각국에 단결을 위한 전국 위원회를 창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아세아 인민들의 념원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였다。 때문에 인도、중국、조선 및 기타 나라들에서 아세아 단결 위원회가 창설되였으며 최근에는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위대한 쏘련 인민들도 아세아 단결을 위한 쏘련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평화적 공존의 공고화에 있어서 아세아의 비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쏘련의 우호 친선 관계의 설정은 매우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최근 시기에 진행된 인도 수상 네루와 비르마 수상 우누의 쏘련 려행과 불가닌과 흐루쑈브 동지의 인도、비루마、아프가니스탄 방문、그리고 호상간의 우호 친선 관계의 설정은



사회 제도를 달리하는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의 모범이며 평화적 공존 원칙을 지지하는 대외 정책의 새로운 표현이였다。 인도、비루마、인도네시아、아프가니스탄、씨리야 및 기타 평화의 립장에 선 아세아 제국과 쏘련을 비롯한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강화는 오늘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에 거대한 힘을 부여하여 주는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진행된 아세아 및 아프리카 학생 대회도 반둥 회의 정신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증하였다。 회의는 많은 난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결의하였기 때문에 광범한 분야에서 서로 협조하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회는 공통된 지향과 목표로서 단결하려는 아세아 및 아프리카 인민들을 분렬시킬 힘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었다。

반둥 회의 결정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더 강화시켰으며 그리하여 지난 해 동안에 수단、모로코、튜니샤 인민들은 자기의 독립을 쟁취하였다。 인도네시아 인민들도 서부 이리안 인민들과 함께 화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고 있으며 인도 인민들도 고아의 반환을 요구하여 투쟁하고 있다。 아직 식민주의자들의 압박하에 있는 나라들의 민족 해방 투쟁도 강화되고 있다。

반둥 회의 결정은 또한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일련의 독립 국가들과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호상 유리한 경제적 협조를 발전시켰다。 실지 오늘 쏘련을 비롯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과 경제 협정들이 체결되고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협조는 어디까지나 평등과 호상 리익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제의 『원조』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 사변들은 반둥 회의 이후에 있어서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이 구체적으로 발전 강화되고 있음을 명백히 실증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공동 투쟁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늘 아세아 인민들의 반식민주의 공동 투쟁에서 선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평화를 쟁취하며 공고화하는 과업이다。 이에 있어서 아세아와 원동에서 일련의 긴급한 조정을 요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것이 주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일련의 문제들이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다。 즉 조선의 평화적 통일、월남에 대한 제네바 협정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중국 인민들의 확실한 권리를 승인하는 기초 우에서 대만에 관한 문제를 조정하는 문제、유·엔

에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회복하는 문제, 아랍 동방 제국 문제의 조정, 고아를 인도에 반환하는 문제, 서부 이리안을 인도네시아에 반환하는 문제, 일본 군국주의 재무장을 금지하는 문제, 아세아 제국 내정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을 중지하는 문제 등등이다. 이외에도 국가 호상간의 경제적 련계와 문화 교류의 강화 문제가 현실적인 주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아세아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공고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화 인민 공화국이 제의한 바와 같은 아세아 인민들의 집단적 안전 체계를 창설하는 문제이다. 오늘 집단적 평화의 사상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공동 투쟁을 더욱 더 강화하려는 아세아 인민들 속에서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평화적 공존의 五개 원칙은 집단적인 평화의 창설에로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二차 세계 대전후 아세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은 식민지 체계의 붕괴가 아세아에서 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실증하고 있다.

오늘 아세아 인민들은 과거의 쓰라린 유물——식민주의를 철폐하면서 아세아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이미 거둔 성과에 고무되면서 보다 완강하고 결정적인 투쟁에 용감히 나서고 있으며 세계 운명의 결정에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찌기 레닌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투쟁의 결말은 결국에 있어서 로씨야, 인도, 중국 등등이 전 세계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절대 다수의 주민이 최근 몇해 동안에 비상한 속도로 자기들의 해방 투쟁에 궐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전 세계적 투쟁의 종국적 해결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의심할 바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 승리는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여 있다』(『레닌 전집』 제四판 三三권 四五八페지)라고 천재적으로 예언하였다. 바로 이 예언의 정신이 실현될 시대는 도래하고 있으며 식민주의자들이 아세아 인민들을 분렬하고 마음대로 통치하던 옛 시기는 이미 끝났고 식민주의의 전면적 붕괴의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아세아 인민들의 친선과 협조와 단결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오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리한 조건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는 사회주의가 세계적인 체계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완전한 우월성을 실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호상간의 친선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고 불패의 력량으로 되였으며 둘째로는 제국주의자들의 재 전쟁 도발을 반대하여 평화를 위한 전 세계 인민들의 평화 옹호 운동이 불패의 력량으로서 장성 강화되였을 뿐만 아니라 구라파와 아세아의 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 평화 애호 제국을 포괄하는 광대한 『평화 지대』가 형성되였으며, 세째로는 제국주의의 반동 진영은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식민지 체계가 가일층 붕괴되여 오늘 식민주의 제도의 완전한 페지가 이미 일정에 오르고 있으며, 네째로는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제국과 아세아 여러 나라들의 친선과 협조가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다섯째로는 아세아 제국에서 로농 동맹에 기초한 인민 전선이 강화되였을 뿐만 아니라 혁명적 맑스주의 당의 령도적 역할이 더욱 더 강화되고 있으며 아세아 제국의 인민들 호상간의 친선, 협조, 단결이 더욱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유리한 조건들로 말미암아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은 날이 갈수록 강화 발전될 것이며 아세아에서 식민주의는 더욱 더 급속히 파탄될 것이며 아세아에서 제국주의의 침략 세력은 더욱 더 약화될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당 三차 대회는 그의 력사적 결정에서 『우리는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도, 비루마, 인도네시아 및 기타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강화하며 아직 식민지 예속하에 있는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계속 지지 성원할 것이다』라고 지적한 과업은 우리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 시기에 있어서 조선 인민들이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을 추진시키는 것은 아세아의 다른 나라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고무 추동하는 것으로 되는 동시에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에서 그의 단결된 력량을 더욱 더 강화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당 생활 경험

# 생활과 밀접히 련결된 대중 정치 사업

조선 로동당 개성시위원회 위원장 유 철 목

력사적인 우리 당 제三차 대회는 자기의 결정에서 당 사상 사업 분야에서의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바로 잡으며 그의 형식과 방법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적응하게 개선할 것을 특히 강조하면서 사상 사업의 중요 부문의 하나인 대중 정치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당 단체들은 대중 정치 사업에 있어서 당 일군들로 하여금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게 하며 인민 대중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정서와 요구에 적응하게 통속적이며 군중적인 내용과 형식을 선택하도록 할 것」。

다른 모든 당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개성시 당 단체도 제三차 대회 정신에 근거하여 대중 정치 사업에서의 결함과 이미 얻은 경험을 분석 총화하며 그 토대 우에서 대회의 지시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성、개풍、판문 지구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의 결과에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통치 기반에서 해방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방은 정치、경제、문화적 면에서 일정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개성이 약 五〇〇년간 고려 왕조의 수도로서 국내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으며 리조 시기부터 국내의 유명한 상업 도시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해방 후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이 지구를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중요한 반동의 근거지로 삼기 위하여 테로와 학살을 일삼으면서 갖은 술책과 방법을 다 썼다。 그들은 이 지구 인민들 속에 숭미 사상과 반동적 민족주의 사상을 주입하며 반공산주의 사상과 우리 당 및 공화국 정부에 대한 불신임의 정신을 주입하는 데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그리하여 이 지구의 인민들은 적들의 간교한 二중 정책하에서 신음하여 왔다。

더우기 박 헌영、리 승엽 간첩 도당들의 졸개들은 이 지방에서 적들을 도와서 당과 인민과의 련계를 리탈시키려고 갖은 해독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전쟁 시기에 적들은 패주할 때 총칼의 위협과 기만적인 악선전으로 이 지방의 수 많은 청장년들을 남으로 끌고 나갔다。

이러한 사회 력사적 환경은 이 지방의 경제 형편과 대중의 사상 의식 및 생활 풍습상에 일정한 흔적을 남겨 놓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지구의 경제적 형편은 一九五四년도에만 하더라도 공업 총생산액 중 국영 공업이 八五·六%、협동 조합 공업이 六·九%、개인 공업이 七·五%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품 류통에 있어서는 그 총액의 六三·五%、인삼업에서는 그의 총 생산고의 七五·七%를 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개성은 고려 시기에는 고도로 발전된 민족 문화의 중심지로서 시내 중심 및 주변만 하여도 三〇〇 여 개의 절이 있었으며 불교 및 유교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또한 이곳 주민 구성과 그의 정치적 관계도 비교적 복잡한 형편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방적 특성을 가진 신해방 지구에서 당과 정부의 제반 시책을 성과 있게 실현할 중대한 정치적 임무를 지닌 개성시 당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중 정치 사업 강화에 큰 관심과 력량을 돌리였다。

그것은 이곳 사람들의 사상 의식을 개변시키며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낡은 사상 잔재와 적들의 악영향을 청산 퇴치함이 없이는 당의 그 어떠한 정책도 성과 있게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중 정치 사업이 생동하고 실효성 있는 것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더욱 더 이 지구 인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결부하여 그들의 생활 감정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 긴절히 요구되였다。

시당 위원회는 이러한 지방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토대 우에서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지도하에 대중 정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는바 그 행정에서 적지 않은 경험들을 얻을 수 있었다。

## 대중의 생활과 요구를 반영하는 정치 사업 조직에서 얻은 경험

대중 정치 사업——이것이 진실로 인민들의 사상 의식을 개변하며 혁명 과업의 해결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혁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 항상 밀접히 결부되여야 하며 혁명의 매 시기、매 계단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정책을 그들이 자기의 생활상 리익과 련결하여 옳게 리해하도록 도와 주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는 우리 당이 항상 강조하는 바이며 우리들이 대중 정치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사업 행정에서 체득한 고귀한 경험이다。

그러나 지난 기간 우리들이 진행한 대중 정치 사업에는 참을 수 없는 형식주의와 교조주의가 저축되였다。 우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중 정치 사업에서 형식주의는 내용상 인민들의 생활 감정과 사상 동향 그리고 그들의 준비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인 형식

과 방법을 적용한 데 있었으며 또한 그것이 인민 대중이 수행하고 있는 혁명 과업과 밀접히 련결됨이 부족한 데 있었다。동시에 선전 선동이 다수 경우에 체계적으로 목적 지향성 있게 사람들의 사상—정치적 의식을 개변시키여 그들의 자각적 열성을 제고하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됨이 미약하고 주체성을 상실하거나 깜빠니야식으로 진행되는 결함을 초래하였다。

례로서 사업 초기에 진행한 구두 선전 사업은 적지 않은 경우에 이 지방의 제반 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참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동원의 방법으로 모여 놓고 듣는 사람들의 생활과 그들이 부닥치고 있는 당면 문제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어려운 말과 타지방 사투리로써 지루하게 선전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대중 정치 사업에서 발로되고 있는 이러한 엄중한 결함은 적지 않은 경우에 시당 위원회가 지방 실정과 대중 생활을 구체적으로 리해하지 못하고 정치 사업에 착수한 데 있었다。

때문에 대중 정치 사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지도의 대상인 지방 주민들의 생활과 사상 동태를 깊이 연구하고 그를 정확히 료해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였다。우리들이 당이 가리키는 길이 무엇인가를 안 다음에는 그 길로 인도해야 할 인민 대중의 생활과 사상 동태에 대하여 잘 아는 데서만 그들을 더 잘 교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이 가리키는 길로 옳게 인도할 수 있다。그러므로 지방 주민들의 구성과 그들이 과거에 처하고 있던 사회 력사적 환경 및 그로부터 물려 받은 사상적 특성과 생활 풍습、그리고 변동되는 국제 국내 사변들과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에 대한 견해와 태도、그들의 생활상 요구와 애로 등을 료해 장악하는 데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당 단체들과 정권 기관을 비롯한 각 부문 지도 일군들을 광범히 조직 동원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방 실정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지방 실정에 정통하고 있는 당원들、각 계층 열성 분자들 및 지방 인사들과 계통적으로 담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정상적으로 당、정권 기관、근로 단체 및 중요 기관 책임 일군들이 모여서 그 주간에 수집한 대중의 일체 여론과 반영을 종합 분석하였다。

이는 확실히 대중 정치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효과적이였다。실정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과 대중 생활을 일상적으로 료해 장악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데서 대중 정치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선택하고 대중 정치 사업을 당 단체들 앞에 제기된 과업의 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게 대중 생활과 결부하여 어느 정도 목적 지향성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대중 생활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적들의 악선전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인민들이 인민 정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 사회 사업에 적극 참가



하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기피하며 파괴된 자기들의 도시와 마을을 복구하는 사업에 동원되는 것조차 이러저러한 교묘한 구실을 부치면서 불평하고 있는 동향을 기본적으로 료해할 수 있었다。

여기로부터 출발하여 시당 위원회는 대중 정치 사업의 중심을 우선 지구내 전체 인민 대중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특히 인민 정권을 강화하는 사상으로 교양함에 돌리였다。

인민들을 인민 정권을 강화하는 사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도 지구내 인민들에게 자기 고향과 선조들로부터 물려 받은 력사 유물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좋은 심정이 있는 것을 포착하여 이를 지지 발전시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을 가지게 하는 방향에서 선전 사업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시당 위원회는 지구내 인민들 속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 대한 불신임의 정신을 조성하기 위한 적들의 악선전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료해한 토대 우에서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모든 시책의 정당성을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통치 제도와 그들이 실시한 반 인민적 정책과 대비하여 똑똑히 인식시키는 정치 사업을 강화하였다。또한 「공산주의」라는 제목으로 인민들 속에서 광범히 해설 선전함으로써 공산주의란 「처자도 네것 내것이 없고 모든 것을 똑같이 논아 먹으며 자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한 적들의 악선전으로 인한 악영향을 청산 퇴치할 수 있었다。

또한 시당 위원회는 대중 정치 사업의 내용을 지구내 인민들 속에 승리의 신심을 제고하며 적들에 대한 적개심을 제고하는 데 돌렸다。이러한 선전 선동 사업의 중점 설정은 전쟁 시기에 포 소리만 좀 심해도 다음날 일부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출석률이 저하되며 일부 인민들은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일은 잘 하면서도 책임적인 공작을 맡는 데 대해서는 겁을 먹으며 또 국방군의 만행을 상기할 때마다 일을 하다가도 손을 멈추는 등의 동향을 포착한 데로부터 출발한 것이였다。

이러한 정형하에서 인민들 속에서 승리의 신심을 제고시키며 적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제고시킴이 없이는 당의 정책 집행에로 인민 대중을 옳게 조직 동원한다는 것은 곤난하였다。승리의 신심을 제고하며 적들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제고시키는 선전 선동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실정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과 대중 생활을 료해 장악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데서만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해설은 물론 적들의 만행을 폭로하는 사업에서 생동한 자료를 많이 분석 인용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개성 지구에서 실시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간교한 二중 정책의 본질을 폭로

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시당 위원회는 지구내 주민들의 정치적 및 계급적 구성이 매우 복잡한 실정에 비추어 대중 정치 사업의 중심을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정책 선전과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각계 인민들을 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집결시키기 위한 데 돌렸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봉건 유습이 심하며 특히 봉건적 가부장제의 유습이 강한 데다가 적지 않은 청장년들이 남하한 관계로 일부 완고한 로인들이 가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적지 않은 젊은이들의 국가 사회 생활에의 적극적인 참가와 또 새로운 것의 발현을 적지 않게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데 심중한 당적 관심을 돌렸으며 가족이 남하한 적지 않은 주민들과 또한 적들의 강압에 의하여 반동 단체에 가담하여 적으나 크나 죄를 범하고 위축되여 있는 주민들 속에서 당 중앙 위원회가 제시한 방향에 근거하여 정치 사업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대중 정치 사업과 함께 시당 위원회는 당이 제시한 경제 문화 과업을 성과 있게 실현하기 위하여 지구내 인민들 속에 집단주의 사상과 로동에 대한 옳은 태도와 국가 사회 재산을 애호 절약하는 사상을 배양하며 봉건 유습과 특히는 미신을 퇴치하기 위한 정치 사업을 강화하는 데 선전 선동의 중심을 두었다.

다음으로 지방 실정과 대중 생활을 연구하고 그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데서 시당 위원회는 대중 정치 사업을 인민들이 절실히 기대하며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민하게 대답을 주며 당 정책 집행에서 나타나는 이러 저러한 편향과 부정적 사상 경향을 제때에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

시당 위원회에서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여론 분석을 위한 회합에서 종합된 결론에 의하여 기동성 있는 선전 선동과 해당한 대책을 강구한 례는 허다하다.

몇가지 실례로서 여론 분석을 통하여 국내외 정세에 대한 그릇된 견해로 인하여 동요하고 있는 인민들의 동향을 포착하고 六〇〇여 개의 인민반 별로 지도 일꾼들을 일제히 파견하여 해석 사업을 진행하여 그들을 안정시킨 사실이 수차 있었다. 또 작년도에 졸업을 앞둔 초고중 학생들 속에서 적지 않은 수가 옳지 못한 여론에 동요되여 자기는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니 「발전할 전망이 없다」고 쓸데 없이 고민하는 동향을 포착하고 민청 단체 일꾼들을 동원하여 선전 해설을 진행하는 한편 상급 당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리함으로써 그들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전반적 학생들에게 광활한 전망을 갖도록 하였다. 동시에 인삼업자들에게 융자적 방조를 주며 소요되는 자재를



알선하여 주며 내각 결정 제一五二호 집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남하한 인삼 경작자들의 삼포를 그 연고자들에게 반환하여 주어 그들을 당과 정부 주위에 집결시켰으며 그 외에도 주민들의 취업 희망을 고려하여 시당 위원회는 지방 원료 원천을 탐구 리용하는 방향에서 생산 협동 조합을 조직하고 그에 三、八六〇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망라하게 하였다.

만일 시당 위원회가 이와 같이 지도의 대상인 사람들을 깊이 료해하고 그들의 동태를 일상적으로 장악하는 사업을 등한히 하였더라면 대중 정치 사업에서는 물론 전반적인 당 사업에서 지난 기간에 범한 엄중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계속 그대로 답습하였을 것이다.

## 선전원 및 선동원들과의 사업 경험

대중 정치 사업의 질을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 고리는 직외 강사 및 선동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당 위원회는 지난 기간 대중 정치 사업에서 특히 구두 선전에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많이 강조하며 시정 대책도 여러 차례 토의 강구하였으나 의연히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는 엄중하게 발로되고 있었다. 그의 중요한 원인은 시당 위원회가 직외 강사들 및 선동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을 말로서만 강조하고 실지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데 있었다.

그 결과 시당 위원회가 대중 정치 사업에서 특히 구두 선전 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퇴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때마다 일부 지도 일꾼들과 산하 당 단체들에서는 강사들과 선전원들의 질적 구성을 높인다는 구실로써 그들을 빈번히 교체하고 형식적인 강습이나 한 두번 진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심한 경우에는 선동원의 구성에서 당원 비률을 높인다 하여 선동 사업에 경험 있고 유능한 선동원을 다만 비당원이란 구실로써 경험이 없고 겨우 국해 정도를 벗어난 당원들로 기계적으로 교체하며 지식 정도의 비률을 높인다 해서 생산 직장들에서 선동 사업에서는 약간 경험이 어리지만 실제 사업에서 경험이 많고 일에서 모범이 되고 있는 동무들 대신에 학교를 방금 나왔거나 말은 좀 잘하지만 사업을 모르며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선동원을 교체하는 현상들까지 발로되였다.

구두 선전의 질은 직외 강사들과 선동원들의 구성 여하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될 것은 직외 강사들과 선동원들의 정치 리론 수준의 제고와 선전 선동에 대한 경험의 소유는 일조 일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만큼 직외 강사들과 선동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당 단체들의 주의의 초점으로 되여야 할

것은 일단 그들을 심중히 검토하여 배치한 다음에는 고착시키며 매시기에 당 단체들이 제시한 선전 선동 제목으로 흥미 있고 실효성 있게 강연、좌담、해설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근히 지도 방조하는 문제이다。

만일 대상과 정형에 따르는 제목이 옳게 설정된 후 우리의 직외 강사들과 선동원들이 그가 출연할 제목의 기본 내용을 충분히 리해하고 그를 옳바르게 또 명확하게 해설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리론적 준비를 갖추고 대상할 사람들의 준비 정도와 실지 생활과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형편을 기본적으로 료해하고、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제강을 가지고 출연한다면 결코 그가 진행한 선전 선동이 독경식으로 무미 건조하게 진행될리 만무하다。

우리는 구두 선전 사업에서 엄중한 형식주의를 범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직외 강사들과 선동원들이 제강의 기본 내용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지 못하고 있거나 그를 대상할 사람들의 소유로 만들려는 노력이 미약한 데 있다는 것을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시당 위원회는 구두 선전의 질을 개선하는 지도의 중심을 직외 강사들과 선동원들이 제강의 기본 내용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며 그를 인민의 소유로 만들 수 있게 지도 방조하는 데 돌렸다。즉 강연 선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직외 강사들의 진영을 정비 강화하고 고착시키며 그들과의 협의회를 조직하고 형식주의와 교조주의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리여 주었다。 그리하여 그를 퇴치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늦어도 一五일전에 출연할 제목과 그의 중심과 체계를 제시하여 주고 제강 작성에 필요한 참고 문헌들을 소개하여 주는 데만 그치지 않고 선전원들에게 그를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끔 일정한 리론적 방조를 쎄미나르의 식으로 주는 동시에 제강을 대중 생활과 당면 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작성하는 데 필요한 방조를 주었다。

그 다음에는 직외 강사들의 제강 작성을 통제하면서 선전 선동부의 전임 선전원들을 동원하여 같은 강연 제목으로 출연할 지역 또는 직장에 파견하여 대중 생활과 그곳 형편을 구체적으로 연구시키면서 그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강을 옳게 작성하도록 지도하였다。

전임 선전원의 제강 작성이 끝나면 시당 위원회 간부들과 우수한 선전원들의 참관하에 경험적으로 강연 사업을 진행하고 참관자들과 청강한 인민들의 의견과 반영을 종합하여 일정한 결론을 짓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당 위원회는 지난 기간 직외 강사들에게 대중 생활과 결부하여 진행하라고 강조만 하고 하등의 실제적 방조를 주지 못하던 지도에서의 형식주의를 어느 정도 퇴치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기초적인 사업이 끝난 후에 비로서 직외 강사들의 쎄미나르를 조직 진행하였는 바 여기에서는 직외 강사들이 제강 작성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의



견、그리고 전임 선전원들의 실지 경험과 의견들이 광범하게 집체적으로 검토 교환되였다。 그리하여 그 강연 제목을 흥미있고 실효성 있게 취급하는 데 고려할 가치 있는 방법상 문제를 직외 강사들에게 명확히 파악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준비 계단을 거쳐서 직외 강사들을 출연하게 한 다음에는 계획적으로 당 일꾼들이 그를 참관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방조를 다시 주었다。 이는 직외 강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산 지도 방법이며 효과적인 통제 방법이였다。 아직 철저하게 제도화되지 못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다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강연 선전의 질을 개선하는 데서 적지 않은 전진을 보이고 있다。

시당 위원회는 선동원들과의 사업도 이러한 방향에서 개선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선전원 및 선동원들과의 사업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그들의 작풍 문제이다。

지난 기간에 시당 위원회는 해방 지구 인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제고하는 정치 사업에서 지도 일꾼들과 선전원들과 선동원들에게 인민적 사업 작풍과 고상한 품성을 소유시키며 실제 사업과 가정 생활에서 모범이 되도록 그들을 지도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적들의 악영향과 박 헌영、리 승엽 간첩 도당들의 출개들이 이 지구에서 감행한 해독 행위로 인하여 우리 일꾼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한 동안 우리 당의 정책상 문제보다 먼저 일꾼들의 군중에 대한 태도、작풍、그리고 품성을 주의 깊게 살피였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사업과 선전을 검열하려 하였다。 이 지구가 해방된 후 한 동안은 지도 일꾼들의 한가지 행동、말 한 마디가 여론의 대상으로 되고 있었다。

시당 위원회는 이러한 인민들의 동향을 포착하고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 二월 교시와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 정신에 립각하여 지도 일꾼들과 선전원들 속에서 군중 규률을 강화하며 군중 속에 일상적으로 침투하여 그들과 접촉을 강화하며 지방 풍습을 존중히 하고 례절을 지키며 말을 하는 데서도 과격한 언사를 쓰거나 특히 로인들에게 정중하지 못한 거동을 삼가하게 지도하였으며 항상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인민들을 지도하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도 일꾼들과 당원인 가정 부인들을 위한 수차의 강연을 조직하고 지방 풍습과 지방 인민들의 사상적 특성과 군중 공작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침투시켰으며 시당 전원 회의에서 가두 당 단체 사업 강화를 위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도 일꾼들이 그의 가족과 함께 인민반 생활에서 모범이 되도록 일련의 지도 대책을 토의 강구하였다。

동시에 지도 일꾼들과 당원들의 군중 공작에서 발로되는 부정적 현상과 군중 규률을 위반하며 도덕적으로

부화한 현상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였다。 이는 당의 지도를 군중 속에 깊이 침투시키며 이 지구 인민들을 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집결시키는 데 적지 않은 도움으로 되였다。

판문군 림한리 당 단체를 비롯한 산하 적지 않은 초급 당 단체들에서 리내 완고한 로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례절을 지키며 지방 풍습을 존중히 하는 데서 대중 지도에서 적지 않은 개선을 가져 왔다。

**대중 정치 사업의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리용함에 있어서의 경험**

대중 정치 사업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그의 사상적 내용과 함께 효과적인 형식과 방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또한 중요하다。 그러므로 시당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주의를 돌리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중 정치 사업에서 구두 선전 사업은 중요한 부문이며 인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이다。 그러나 한 동안 우리들은 이 부문에서 적지 않게 형식주의를 범하였다。 우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구두 선전 사업에서 내용상 인민들의 생활 감정과 사상 동향、정서、그리고 그들의 준비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일률적인 형식과 방법을 적용한 데서 엄중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초래하였다。

때문에 시당 위원회는 구두 선전 사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 시기에 구두 선전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옳게 선정하는 데 신중한 당적 관심을 돌리였다。 만일 당 단체들이 이를 등한히 하게 되면 선전의 제목과·내용 자체가 인민들의 절실한 기대와 배치되게 되며 당의 당면 정책과는 동떨어져서 진행되게 된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시당 위원회는 당 중앙 위원회가 매 시기에 제시한 대중 정치 사업의 방향과 우리들이 이미 대중 생활을 료해하는 행정에서 장악한 선전 선동의 자체 방향에 립각하여 매 시기에 인민들의 정치 사상 동향과 자기 앞에 제기된 당면 과업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 분기 또는 매월 진행할 강연 및 선동 제목을 선정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당 중앙 위원회로부터 선전 선동 제목이 제시되였을 때는 그 중에서 자체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제목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때에 따라 예견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한 해설을 기대하는 인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닥칠 때는 그들의 요구 및 동향에 따라 적절한 제목을 선정하고 전체 선전 력량과 각 기관 직장 일군들을 동원하여 강연 또는 인민반 별로 좌담회를 기동성 있게 조직 진행하였다。

실례로서 일부 생산 협동 조합원들이 조합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앞세우는 데서 공동 재산을 애호



절약하지 않으며 집단 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으며 가정일로 빈번히 무단 결근하는 등 일련의 부정적 현상들이 발로되고 있음을 포착하고 『국가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라는 제목으로 충분한 준비 밑에 강연 선전 사업을 진행한 결과 적지 않은 개선을 가져왔다。 또한 도시 주민들 속에서 일부 인민들이 조그마한 경제 생활상 곤난과 애로로 인하여 국가 사회 사업에 적극 참가하지 않고 있는 동향을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우리의 난관은 승리를 위한 난관이며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연 선전 사업을 진행한 결과 적지 않은 인민들이 『조국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곤난을 이겨나아가야 하겠다』、『마음이 좁아서 크게 생각 못했다』라고 하면서 국가 사회 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되였다。

이와 함께 시당 위원회는 민청、녀맹 단체를 비롯한 근로 단체들에서 계층별 군중들의 동향과 당면 과업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 시기에 진행할 강연 선전의 제목을 옳게 선전하도록 지도 방조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다。

민청 단체에서 『애국주의에 대하여』、『우리 생활에서 낡은 사상 잔재는 어떻게 표현되며 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청년들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선정한 것이라든가 녀맹 단체에서 『가정에서 아동들을 어떻게 교양할 것인가』、『녀성들 속에서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제고하자』라는 제목으로 계층별 군중 동향에 립각하여 구두 선전 사업을 진행한 것이 그것이다。

구두 선전에 존재하던 엄중한 형식주의를 퇴치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험은 유익한 것이였다。 인민들에 대한 교양에서 효과적이며 강력한 수단의 하나는 구두 선전의 형식과 결합된 문화 사업이라는 것을 경험하였다。

개성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문화 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특히 적들의 통치 기반에서 쓰라린 고초를 겪으면서 살아 온 로동자、농민들은 더 한층 자기들의 피곤을 풀어 주고 생활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문화 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곳 농민들과 도시 주민들은 영화나 연극、연예 써클 등 어떠한 구경이 있을 때는 십리 이십리 밤길을 멀다 하지 않고 모여 온다。 우리들은 이 뚜렷한 현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었으며 이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감정과 정서에 적응한 정치 사업의 형식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시당 위원회는 당의 배려 밑에 지어진 유리한 조건들을 리용하여 문화 사업을 이 지구 인민들의 사상 교양의 중요한 무기로 삼았다。 신문의 질을 제고하며 영화 보급 사업、특히 이동 영사대 사업을 강화하며 시립 극장을 비롯한 창작 단체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데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리함으로써 신문 편집에서 신해방 지구의 특수성에 적응하게 그의 목적 지향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었으며 시립 극장에서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다』、『신해방 지구에서』 등 이 지구 인민들의 생활을 형상화한 우수한 창작품을 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농촌 경리 협동화와 다수확의 길로 인도하는 수다한 단막물로 지방 순회 공연을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의 애국주의 사상 교양과 당면 과업 수행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이와 함께 인민들 속에서 각종 연예 써클 사업을 강화하는 데 신중한 당적 관심을 돌렸다。 우리 일꾼들이 강연을 하면 젊은 부녀자들은 외면을 하고 돌아 앉아서 듣는 정도로 봉건 유습이 심하며 또는 지도자가 부족한 이 지방에서 각종 연예 써클 사업을 군중적으로 일상화되도록 강화 발전시킨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시당 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사업을 초급 당 단체들과 근로 단체들의 역할을 제고하며 문화 오락 사업을 인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능숙한 노래와 춤과 기악 등을 리용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였다。 또한 연예 써클 사업에 젊은이들이 동원되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완고한 로인들에 대한 개별적 해설과 연예 써클로서 그들을 위안설복하는 모임을 조직하여 실물로써 이 사업이 사람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로동을 즐겁게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를 깨닫게 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문화 예술 각 전문 일꾼들과 기능 있는 열성자들로써 개성시 군중 문화 끄미샤를 조직하고 그 산하에 문학、음악、무용、연극 등 분과를 설치하고 그의 역할을 높이며 초급 당 단체들을 조직 동원하여 학교 교원들과 주둔군 부대 및 이동 예술대 소편대의 적극적인 방조를 받게 함으로써 지도자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시당 위원회는 문화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 지구내 인민들이 민족 문화 유산을 지극히 사랑하고 애끼며 자녀들의 교육 교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포착하여 학교 교육 사업과 력사 유물 보수 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를 중요한 정치 사업으로 제기하였다。 교육 교양 사업에 관심이 높은 이곳 주민들은 당과 정부의 배려하에 선죽교를 비롯한 력사 유물 보수 사업과 학교 복구 보수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그 결과 지구내의 학교 시설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통치 시기에 비하여 二〇六%로 장성되였으며 따라서 과거에는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던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민주 학원에서 공부하게 되였다。

이러한 사업은 당과 정부의 교육 문화 정책의 정당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교양 방법의 하나였다。

또한 시 당 위원회는 한 동안 구두 선전 사업과 문화 사업을 결합한 형식을 많이 택하였다。 즉 정치 보고도 하고 동시에 영화 상영 또는 예술 써클 공연을 하는 형식을 많이 적용하였으며 민청、녀맹 단체들을 조직 동원하여 간단한 정치 보고와 다채로운 레파토리로 청



년 야회、어머니의 밤 등을 수시로 조직 진행하였다。

이러한 형식은 역시 정치 보고회와 강연회에 참가하기 싫어하는 일부 인민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좋은 방법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최근에 와서는 군중 야회에 보통 二만 내지 三만여 명씩이나 모이고 있다。

다음으로 인민들 속에서 실효성 있는 정치 사업의 형식의 하나는 실물 교양이다。 특히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통치 기반에서 갓 해방되였으며 어제까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 대한 불신임의 정신을 조성하기 위한 적들의 악선전에 기만 당하여 온 신 해방 지구 인민들 속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곳의 일부 인민들은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의 정책의 정당성을 론증하는 잘 준비된 선전 해설 사업을 진행하여도 한 동안 그를 한갖『말』로서 듣거나『과연 그런가?』하면서 그대로 꼭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당 위원회는 이곳 인민들이 실지 체험하여 잘 알고 있는 문제、즉 전쟁 시기와 전후 시기에 결쳐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당과 정부의 제반 시책과 개성 지구 인민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사실들을 강연、보고、좌담 등 각종 형식의 선전 사업에서 많이 분석 인용하였다。

또한 위대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 인민들로부터 보내온 원호 물자를 분배함에 있어서도 국제주의 사상을 배양하기 위한 선전 사업과 결부하여 진행였다。

적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제고함에 있어서도 이 지구에서 적들이 감행한 야수적 만행으로 인하여 이곳 인민들이 겪은 산 실례와 적들이 실시한 간교한 二중 정책을 폭로하였으며 이곳 인민들이 적들의 흉탄에 맞아 쓰러진 그 자리에 군중을 모아 놓고 미제의 야수적 만행을 폭로 규탄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보수성과 리기주의 사상이 비교적 농후한 해방 지구 농민들을 농업 협동화를 위한 당의 정책 집행에로 인도함에 있어서도 실물 교양의 방법을 많이 적용하였다。 례하면 一九五三년말에 개성시 덕암리 정동에 농업 협동 조합을 一개 조직하고 그를 적극 지도 방조하였다。 그러한 결과 개인농 경리 때보다 一농호당 수입이 一六八%로 제고되였다。 우리는 이 모범을 지구내 농민들에게 광범히 선전 해설하며 각 농업 협동 조합들의 결산 분배를 위한 총회에 개인 농민들을 광범히 참관시켜 실제 정형을 직접 보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에 그것이 매우 좋은 결과를 나타 내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진 영농 방법과 선진 영농 기계를 광범히 도입함에 있어서와 도시 주민들을 생산 협동 조합에 적극 참가시켜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정치 사업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시당 위원회는 농한기를 리용하여 개풍、판문군

농민들을 급속히 복구 발전되고 있는 개성시의 경제 문화 건설 모습을 견학시킴과 동시에 당과 정부의 배려에 의한 평양 참관을 조직 진행하였다。 이러한 참관의 결과에 지금까지 많은 선전 해설을 듣고도 자기들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갖지 못하고 우리 사업의 정당성과 당과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의 강대성을 잘 믿으려 하지 않고 있던 일부 소시민들과 개인 농민들이 승리의 신심을 확고히 하고 국가 사회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게 되였는 바 이는 실물 교양의 실효성에 대한 단적 실례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대중 정치 사업의 질을 개선함에 있어서 계층별 선전을 강화하며 일반적인 강연 선전과 함께 특히 개별적 접촉을 통한 군중 공작과 담화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잘 준비된 강연이라도 각이한 생활 처지로 인하여 각이한 견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으며 아무리 잘 조직된 군중 모임이라도 의례이 이러 저러한 사람들이 빠진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주민들의 계급적 구성과 정치적 동향이 복잡하며 그의 사상 의식 수준이 낮은 신해방 지구에 있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와 진지한 노력이 없이는 결코 각 계층 인민을 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집결시킬 수 없다。

경험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조직 진행하는 강연회、좌담회에서 자기가 알고 싶어하며 기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때때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례하면 가족이 남하한 사람、개인 상공업자、기타 사람들——이 있으며 군중 모임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일부 완고한 로인、지방 유지、낡은 인테리、과거에 세도깨나 부리던 일부 사람 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당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가도록 교양하는 데서 계층별 선전과 개별적 군중 공작과 담화 사업은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때문에 시당 위원회는 이들의 동향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서 계층별 선전과 그들과의 개별적 접촉을 강화하는 데 당적 주의를 돌렸다。

사업 초기에 우리 지방의 일부 로인들과 유지들은 국가 사회 사업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를 취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당과 정부 정책을 찬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였으며 또 그들은 이 지구 인민들 속에서 적지 않은 신망과 위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방 실정에 암둔하여 군중 관점이 옳게 서지 못한 일부 지도 일꾼들은 그들이 다만 국가 사회 사업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해서 그들을 인내성 있게 교양할 대신에 그들과의 사업을 포기하고 타격까지 주려 하였다。

시당 위원회는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면서 로인들과 지방 유지들이 일상적으로 모이는 자연 집회 장소들



에 권위있고 유능한 간부들을 파견하여 교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취미도 연구하였다。결과에 그들이 즐기는 것이 궁술、글짓기、바둑두기 등임을 알고 궁술대회도 조직하고 한시회、바둑대회 등도 조직하며 또 로인들을 위안하는 모임도 조직하는 등 그들이 즐기는 형식을 리용하여 꾸준한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정권 기관을 통하여 수시로 개인 상공업자、인삼 경작자들과의 좌담회를 조직하고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인민적 시책을 침투시켰으며 녀맹 단체를 통하여 소시민 녀성들과의 좌담회를 수시로 조직하였으며 녀성 상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성시 도교 시장에 녀맹 단체를 조직하고 민주 선전실장을 배치하여 사업하게 하였다。

계층별 선전에서 개별적 당원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 지방에도 정치 리론 수준은 어리지만 국가 사회 사업에 열성적이고 사회적 경험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는 장년층 당원들이 적지 않게 있다。 찬하 일부 초급 당 단체들에서는 이들에게 국가 사회 사업에 적극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 군중 공작의 분공을 주어 옳게 지도 통제한 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오늘 지구내 지방 유지들과 소시민들과 가족이 남하한 인민들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제三차 당 대회의 결정을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궐기하고 있으며 백발 로인들이 한시회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인민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으며 소시민들이 연예 써클을 조직하고 조국 보위의 초소를 지키는 인민군 용사들을 위안 격려하기 위하여 현지에 출연하게 된 것은 어려한 정치 사업의 강화와 크게 련결되여 있다。

또한 시당 위원회는 대중 정치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지방 실정으로 보아 사회적 여론을 통한 인민들에 대한 교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곳 인민들의 의식과 생활에는 낡은 사상 잔재가 비교적 많다。

이를 청산 퇴치하기 위한 해설과 설복의 방법과 함께 낡은 것을 폭로 비판하는 진공적인 정치 사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런데 이곳 인민들은 군중적인 비판을 받으며 결점을 지적 당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 한다。 만일에 이것이 지나치면 비판이 교양으로 될 대신에 역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많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형편에서 인내성있는 설복의 방법으로 교양하면서 그와 함께 부정적 현상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옳게 리용한다면 인민들을 보다 훌륭하게 교양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시당 위원회는 인민반 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사회적 여론으로 인민들을 교양하는 중요한 장소로 되게 지도하였다。 즉 지도 일꾼들에게 우선 한 개의 인민반씩

지도를 분공주어 반 사업을 강화시키는 한편 반내 당원들과 기관 및 직장 일꾼들과 그의 가족들을 인민반 생활에서 모범이 되게 지도하면서 그들이 선봉이 되여 반내에서 사회 질서와 공동 생활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비판 시정하게 하며 반내에서 발로된 엄중한 부정적 현상들을 반 회의에서 토의하고 교양주도록 지도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인민들을 교양하는 데 효과적이였다。

또한 인민들을 사회적 여론으로 교양하는 데서 부정적 현상을 풍자하거나 폭로 비판하는 직관물 선전이 매우 효과적이였다。 실례로 화강석 공장에서 영예의 게시판과 비판의 게시판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개풍군 연동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수차 해설하여도 자기 결함을 시정하지 않던 일부 조합원들의 전달식 사업 태도를 그를 풍자하는 직관 선전으로 시정시켰으며 판문군 송곡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묻거리 점치기、굿 등을 하는 것을 비판 속보를 통하여 교양 시정하였다。

다음으로 대중 정치 사업의 질을 개선함에 있어서 얻은 경험은 이상에서 말한 모든 형식과 방법이 호상 옳게 배합되고 결합되는 데서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적 실례로서 개풍군 해선리 당 단체는 알곡 증산을 위한 토지 쟁취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먼저 리내 실정을 조사하고 토지를 개간할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장악한 후 리당 단체들과 민청 단체에서 토의하고 리급 간부들과 선동원들을 각 인민반 별로 파견하여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리민들의 생활상 리익과 결부하여 선전 선동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핵심 당원 왕 용상 동무를 비롯한 몇명의 당원을 동원하여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지 않으려는 일부 농민들에게 개별적 해설 사업을 진행하였다。

리내 인민들이 토지 개간 사업에 전반적으로 동원되게 된 이후에는 각 작업반 별로 경쟁 운동을 조직하고 매일 이동 게시판을 통하여 우수한 작업반을 찬양하며 락후한 작업반을 풍자하는 사업을 조직하였으며 민청원들의 역할을 높여 휴식 시간에 군중 문화 오락 사업을 강화하도록 지도하였다。 그 결과 불과 一五일 동안에 六、〇〇〇평의 산야를 개간하여 옥수수를 파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대중 정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시책과 지도를 받들고 시당 단체가 이상과 같은 방향에서 신 해방 지구 인민들 속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 정치 사업을 강화하는 데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오늘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권리를 찾게 된 개성 지구 각계 인민들은 지난



오랜 세월을 두고 몸서리나는 주림과 학대 속에서 고통 받게 한 원쑤가 바로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역도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게 되였다。

동시에 그들 자신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장래는 오직 우리 당의 정책에 의거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제三차 대회 결정 실천을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궐기하고 있다。

* * *

대중 정치 사업에서 거둔 이상과 같은 성과는 오직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지도에 의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다。

신해방 지구 인민들 속에서 대중 정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행정에서 인민 대중의 사회주의적 의식을 제고하며 당의 정책 집행에서 그들의 자각적 열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얼마나 우리의 혁명 촉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거듭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동시에 당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들이 꾸준하고 완강하게 인민 대중을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지도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라도 대중을 옳게 동원하고 결속하여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그러나 오늘 제三차 대회 문헌을 연구하면서 자기 사업을 심각히 분석 검토하여 볼 때 우리들의 이 사업 수준은 아직 새 과업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선전원들과 선동원들은 그의 역할이 불충분하며 일부 민주 선전실은 대중의 교양의 장소로 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전 선동의 내용에서도 형식주의와 교조주의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전 선동이 광범한 군중 속에 침투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시당 위원회가 자기 앞에 제기된 정치적 임무 수행에 대중 정치 사업을 철저히 복종시키며 그 사업 행정에서 얻은 경험을 분석 총화하고 그를 자기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유익하도록 공고 발전시키지 못한 데 있다。 동시에 대중 정치 사업 강화에서 기본 고리의 하나로 되는 초급 당 단체들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실제적 지도 방조 사업이 미약한 데도 크게 기인된다。

때문에 시당 위원회는 우리 당 제三차 대회의 문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방향을 지침으로 삼고 오늘까지 우리들이 얻은 경험을 공고 발전시켜 이 지구 인민들의 사상 생활에서 새로운 앙양을 보장하며 나아가서 당 대회가 제시한 혁명 과업의 성공적 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게 대중 정치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꼰쑬따찌야

# 현 시기 전쟁 방지의 가능성에 대하여

림 근 호

계급 사회에 고유한 력사적 범주로서의 전쟁은 경제적 및 정치적 현상이다。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며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며 특수한 형태의 정치 현상이다。전쟁은 계급 사회와 함께 발생하였으며 계급 사회와 함께 력사에서 소멸될 것이다。

정치 현상으로서의 전쟁의 야기는 국가들 간의 정치적、계급적 력량 관계에 의존하며 궁극적으로는 경제 관계에 의존한다。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는 전쟁의 본질 및 그의 야기의 조건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리해와 현 시기 국제적 분야에서의 정치적、계급적 력량 관계의 변동과 그 전망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현 시기에 있어서의 전쟁 방지의 가능성에 관한 과학적 결론을 내리였다。

현 시기 전쟁 방지의 가능성에 관한 쏘련 공산당 二〇차 대회의 력사적 결론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적용과 발전의 탁월한 모범으로 된다。

맑스주의의 창시자들인 맑스와 엥겔스는 과학적인 유물론적 견지에 립각하여 사회학상 처음으로 전쟁의 계급적、사회적 본질을 해명하고 계급 사회에 있어서의 전쟁의 불가피성을 론증하였다。

노예 사회、봉건 사회 및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전쟁은 다 같이 지배 계급、착취 계급들의 경제적、정치적 리익을 위하여 그 제도 자체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리용되였다。

자본주의 발전의 최후 단계인 제국주의 시기에 들어와 전쟁은 더욱 불가피한 현상으로 되였다。

브•이•레닌은 제국주의에 대한 심오한 연구에 기초하여 전쟁도 포함한 제국주의 시기의 제 현상을 명백히 분석하고 맑스주의 리론을 가일층 풍부히 발전시켰다。

제국주의 전쟁에 관한 브•이•레닌의 사상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관한 창조적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의



유기적 구성 부분으로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의 전쟁에 관한 레닌의 리론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의 경제적 및 정치적 특성에 대한 전면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제국주의 시기에 와서 자본주의 제국 간의 정치 경제적 발전의 불균등성은 자본주의 발전의 결정적 법칙으로 되였다。제국주의 렬강 간의 경제적 력량의 호상 관계는 커다란 속도로 변화되며 그에 따라 군사력의 호상 관계도 역시 불균등적으로 변화한다。

변경된 경제력과 군사력의 호상 관계는 식민지 및 세력 범위의 낡은 분할 상태와 충돌하게 되여 이런 또는 저런 제국주의 집단들 간에 식민지 또는 세력권의 재분할을 위한 류혈적인 전쟁을 불가피하게 야기시킨다。이로부터 레닌은 자본주의하에서、특히 그의 제국주의 단계에 와서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계급 사회에 있어서 특히 그의 마지막 단계인 자본주의 사회、그중에서도 특히 제국주의 단계에 있어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되는 전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견해는 전쟁 야기의 진정한 사회 경제적 원인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인류 사회의 전 력사적 발전을 정당하게 반영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맑스—레닌주의적 명제는 첫째로 제국주의가 전체 포괄적인 세계적 체계로 남아 있었으며 둘째로 전쟁에 대하여 리해 관계를 갖지 않는 사회 정치적 력량이 미약하고 충분히 조직되여 있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할 수 없었던 때에 작성되였다。

그런데 사회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전쟁이 불가피하였던 당시에 있어서도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인류 력사 발전의 과학적인 전망을 예견하고 략탈적인 제국주의 전쟁이 그의 기초인 제국주의의 경제 체계와 함께 송두리채 청산될 그러한 시기가 반드시 도래하리라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이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는 전쟁의 경제적 기초로 되는 한편 자본주의 발전의 최후 단계로서 제국주의의 전쟁을 그의 경제적 기초와 함께 청산할 정치적 및 계급적 세력을 부단히 산생한다。제국주의의 시기에 종주국들에서의 혁명적 로동 운동과 식민지 및 예속국들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은 미증유의 규모로 장성되며 대중은 더욱 더 힘차게 반전 투쟁에 진출한다。이에 따라 제국주의의 기초는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게 되며 그에 의한 파괴적 전쟁의 도발을 방지함에 보다 유리한 사회 정치적 조건들과 력량이 조성되며 장성한다。

레닌을 선두로 한 당시의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은 항상 제국주의의 전쟁을 반대하는 혁명적 투쟁의 선두에 서 있었다。

전쟁의 야기를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으로부터 설명하며 온갖 사회에서의 전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부르죠아 사회학이나 제국주의 전쟁을 불가항력적 현상으로 간주하면서 로동 계급의 반전 운동을 거부하는 개량주의와는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맑스—레닌주의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쟁을 반대하며 인민들 간의 친선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은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의 고상한 의무로 또 전통으로 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모든 전쟁을 다 반대하지는 않으며 또 그리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전쟁을 부정의의 전쟁과 정의의 전쟁으로 구분하면서 계급 사회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침략적、략탈적 전쟁——부정의의 전쟁을 반대하는 동시에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는 전쟁——부정의의 전쟁을 반대하며 그 근원을 청산하기 위한 전쟁、영원하고 진정한 평화를 위한 해방적 전쟁은 결코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맑스주의자들의 태도는 항상 착취 계급들의 압박으로부터 인류의 사회적、민족적 해방을 위한 전반적 투쟁의 유기적인 구성 부분으로서 그것은 소여의 력사적 시기의 특수한 조건들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一八七〇년 보불 전쟁 당시、이 침략적 전쟁을 반대하여 가장 열렬하게 진출한 것은 맑스와 엥겔스였으며 또 이 전쟁이 파리 콤뮨으로 전환되자 이를 결정적으로 지지하여 나선 것도 바로 맑스와 엥겔스였다。

제一차 대전 전야 및 그의 진행 시기에 제국주의 전쟁의 가장 철저한 반대자들은 바로 브•이•레닌을 수위로 한 로씨야의 볼쉐위크들과 기타 각국의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이였다。 오직 그들만이 전쟁의 위협의 장성과 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진출하였으며 또 일단 전쟁이 현실로 된 조건하에서는 그의 확대를 방지하며 제국주의 전쟁을 혁명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였다。

브•이•레닌의 지도하에 제二국제당 바젤 대회 및 끄펜하겐 대회는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여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의 구체적 투쟁 임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二국제당 지도자들의 배신 행위로 말미암아 바젤 및 끄펜하겐 대회의 훌륭한 반전 선언들과 결의들은 수치스럽게 유린되였으며 제二국제당 산하 각국의 로동자들과 그의 당들은 호상 살륙하는 적대 진영에로 분렬되였다。 이로 인한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분렬이야말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을 미연에 제지할 수 없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여 진출한 각국의 진정한 맑스주의자들과 혁명적 로동자들의 투쟁이 가지는 의의는 조금이라도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그것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비록 전쟁의 야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 망정 제一차 세계 대전 전야와 또 그 진행 시기에 혁명적 맑스주의자들과 그들의 령도하에 선진적 로동자들이 진행한 반전 투쟁은 각국의 로동 계급들과 전체 인민 대중들의 정치적 계급적 각성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또 그들을 제국주의에 대한 불굴의 투쟁 정신으로 교양함에 있어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이 투쟁을 통하여 제국주의、전쟁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혁명적 사회 세력이 급격히 장성하였다。

이와 같은 력량은 매개 나라의 구체적 혁명 정형에 따라 현저하게 혹은 미약하게 장성하였는 바、특히 로씨야에서 그것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보다도 강력하게 장성하였다。

위대한 레닌과 볼쉐위크당의 지도하에 로씨야 로동 계급은 자국의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함으로써 제국주의 전쟁으로부터의 혁명적 리탈의 모범을 보였다。

로씨야 로동 계급의 모범은 당시 모든 교전 국가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의식성을 급속히 제고시키고 그들을 침략적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는 혁명적 투쟁에로 적극 고무 추동함으로써 제一차 세계 대전을 현저하게 단축시켰다。

세계에 첫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 이후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고수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새로운 적극적 단계에 들어섰다。 쏘베트 국가의 출현과 함께 세계 무대에서 제국주의와 침략 세력의 무제한하고 통제없는 도박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였다。 자본주의에 고유한 합법칙성、즉 세계적 전쟁의 합법칙성은 큰 반작용에 부닥쳤다。

국제 혁명 운동의 중심인 쏘련은 동시에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성새로 되였다。 쏘련은 그의 탄생 첫날에 평화에 관한 법령을 선포하였으며 자기의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쏘련은 인민들 간의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며 호전적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을 반대하여 실로 헤아릴 수 없는 공헌을 하였다。 일련의 국제 회의들에서 쏘련은 제국주의 렬강의 군비 경쟁을 철폐하고 전반적 군비 축소를 실현하며 구라파에서의 집단적 안전 체계를 창설하기 위한 건설적 방안들을 제출하였으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만약 제二차 세계 대전 전야에 민주주의 렬강이 쏘베트 국가의 평화적 이니샤티브에 호응하여 파시쓰트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의 침략 전쟁 도발을 제지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취하였다면 전쟁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적어도 그와 같이 대규모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확대되지 않았을 것만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평화 정책을 수행한 나라는 오직 쏘련 뿐이였으며 기타 대 강국들은 사실상 침략자들을 고무하여 주었다。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에 의하여 독일에서 복수주의적 팟쑈 세력이 급속히 장성되였으며 군국주의 일본의 침략 행동이 조장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리하여 조만간 구라파에서 파시쓰트 독일과 아세아에서 군국주의 일본에 의하여 침략 전쟁이 도발되였다。

한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가장 철저한 반전 력량인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과 공동 진출이 달성되지 못하였었다。 거기에서 로동 계급과 그의 당들은 호상 반목하는 그루빠들로 분렬되였으며 우익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사실상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을 방조하였다。

물론 이 시기에 있어서도 그들 사이의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전쟁 위협을 반대하는 공동 투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였다。 그러나 제二차 대전 전야에는 이와 같은 행동 통일이 달성되지 못하였다。

요컨대 제二차 세계 대전 전야까지 세계에는 전쟁에 대하여 리해 관계를 갖지 않으며 그를 반대하는 력량이 전쟁 방화자들의 기도를 극복하리만큼 충분히 조직되지 못하였으며 강대하지 못하였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력사적 조건하에서는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맑스—레닌주의적 명제가 작성된 것은 이러한 력사적 조건하에서였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 및 그의 발전을 정당히 반영한 것으로서 제국주의의 전쟁의 경제적 기초에 대한 유일하게 과학적인 결론이였다。

* * *

제二차 세계 대전 및 전후 시기에 국제 관계에 있어서와 사회 정치 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전환이 발생하였다。 이 변화는 그의 규모와 심도에 있어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과 함께 그 어떤 변화에 비하여서도 특출하다。

그것은 인류 력사 발전의 전 행정에 직접 작용하면서 그의 발전을 미증유의 속도로 촉진시키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민주주의 및 평화 력량이 제국주의 및 전쟁 세력에 비해서 보다 결정적으로 위력하게 장성하였다。 이 위대한 변화로 인하여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각이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각이한 이행 형태들에 관한 더욱 새로운 전망이 열려졌으며 력사에서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 정치적、계급적 력량이 조성되였다。 제국주의의 경제의 합법칙성、계속 부단히 전쟁에로 작용하는 제국주의적 발전의 추세는 미증유의 강력한 반작용에 부닥치게 되였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경제적 기초는 보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이미 숙명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아니게 되였으며 그의 야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물질적 력량이 조성되였다。

그러면 현 시기에 있어서 전쟁 방지의 가능성 혹은 그의 물질적 력량이란 무엇인가?

우선 지적하여야 할 것은 사회주의의 세계적 체계에로의 전환 및 그의 정치 경제적 및 군사적 위력의 부단한 강화 발전이다。

제二차 세계 대전전 쏘련은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 고립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였다。

전후 시기에 구라파와 아세아의 일련의 나라들이 자본주의로부터 떨어져나와 쏘련과 함께 세계적 사회주의 진영을 형성하였다。 현재 사회주의 진영에는 一三개의 나라、一〇억의 주민과 세계 판도의 약 二六•六%가 포괄되여 있다。

두 제도간의 경제적 경쟁에서 사회주의 진영은 자본주의의 제도에 대한 자기의 비할 바 없는 우월성을 과시하면서 경제적 위력의 부단한 장성으로써 그의 진지를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

만약 사회주의 체계에 속한 나라가 一九三七년에 세계 공업 제품의 七%만을 생산하였다면 오늘 날에는 벌써 그것의 三〇%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은 세계 석탄 총생산량의 三분의 一 이상、강철 생산의 四분의 一、전력 생산의 六분의 一을 각각 생산하고 있다。

공업 발전에서 위대한 쏘련 인민들이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은 전체 사회주의 체계의 진지를 강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국 인민들이 달성한 성과와 중화 인민 공화국의 위력의 장성은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와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거대한 기여로 된다。

한때 부르조아들은 락후한 옛 중국을 가리켜 『잠자는 사자』라고 불렀다。 력사의 흐름과 함께 『잠자는 사자』는 잠을 깨였다。 그것은 세계 무대에서 마땅히 차지하여야 할 위치에 올라섰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새 전쟁 도발의 도화선으로 간주하던 독일에 평화 애호적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탄생하였으며 날로 발전 강화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 및 그 주구 리승만 도당과의 三년간의 전쟁에 승리한 영웅적 조선 인민은 전후 가장 짧은 시일내에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면서 점차 사회주의 건설에 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호상 원조와 협조로써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 호상간의 형제적 원조와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이 나라들의 국방력도 부단히 강화되고 있다。 군사적 관계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의 력량 관계에 결정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쏘베트 국가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도로 완성된 현대적 군사 기술과 수단들은 새 전쟁 도발자들의 모험을 제지하고 평화를 수호함에 믿음직하게 복무하고 있다。

국제 관계에서의 그 어떤 중요한 정치적 문제도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참가 없이는 해결할 수 없게 되였다。 이 국가들은 평화의 강력한 담보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와 그의 부단한 륭성 발전 및 이 나라들의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은 제국주의자들의 재 전쟁 도발을 제지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되고 있다。

침략적 군사 쁠럭들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그들의 대외 정책의 원칙으로 선포한 구라파와 아세아의 일련의 평화 애호 국가들의 집단이 세계 무대에 출현함과 관련하여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은 현저히 확대되였다。

전후 국제 무대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전면적 붕괴이다。 국제 혁명 력량의 강력한 지지하에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미증유의 규모로 장성하였으며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일련의 나라들이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였다。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경제적 및 군사적 후비로 되여 있던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 강력한 반전 력량이 장성하였다。 이미 독립 국가로 선포된 인도와 비루마、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애급、 씨리야、 레바논 등 많은 나라들이 새 전쟁을 반대하여 견결히 나서고있다

이 나라들의 지도적 정계는 협소한 제국주의적 군사 집단들에 가담하는 것이 다만 그들이 호전적 침략 세력의 군사적 도발에 인입될 위험을 증대시키며 파멸적인 군비 경쟁의 격류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뿐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구라파와 아세아의 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 평화 애호 국가들을 포괄하는 광대한 「평화 지대」가 국제 무대에 출현하였다。

「평화 지대」、 그것은 전쟁을 반대하며 인민들의 공고한 평화와 행복을 지향하는 선량한 수억만 인민들의 억제할 수 없는 지향의 표현이며 또 그에 망라된 나라들의 평화에 대한 공통된 리해에 기초하여 형성된 국제 정치적 력량이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 대하여서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방금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비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평화는 이 나라들의 완전한 자주 독립、 즉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독립을 완성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파멸적인 군비 경쟁과 제국주의적 군사 쁠럭에의 가담 및 전쟁 위협은 다만 이 나라들의 자주적 민족 경제의 건설을 장애하며 나아가서 그것은 새로운 식민지적 예속을 초래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한 투쟁은 곧 이 나라들의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운동도 더욱 급속히 장성하고 있으며 반전 력량의 기본인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을 위한 적극적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로동 계급은 국가의 근본적 정치적 문제 해결에서 결정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재 전쟁의 위협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정치적 진출은 그들의 사활적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왜냐 하면 파멸적인 군비 경쟁과 전쟁은 누구보다도 먼저 로동 계급의 빈궁과 고통、 희생을 댓가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나라들의 수백만 로동 계급들은 파업과 시위 및 기타 대중적인 진출로써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선두에 결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서 로동 계급과 그의 정당들의 행동 통일에 관한 문제가 절실하게 제기된다。 경험은 로동 계급의 분렬이 다만 그의 원쑤들에게만 유리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오늘날 이 나라들에서는 로동 계급의 분렬을 극복하고 그의 행동을 통일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들이 성숙되였다。

강조할 것은 로동 계급의 통일을 위한 투쟁은 다만 평화를 위한 일반적 민주주의 운동의 리익으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를 위한 로동 운동의 리익과도 완전히 일치된다。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에 대한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의 력사적 발기가 있은 후 새 전쟁을 반대하며 로동 계급의 공통된 정치 경제적 권리의 쟁취를 위하여 로동 계급의 정당들 및 직업 동맹 단체들 호상간의 실무적 접촉과 협조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활발히 취하여지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결코 평화를 위한 공동 투쟁에서 이 당들과 기타 로동 계급의 조직들 간의 협조를 방해할 수 없으며 또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에서 명백히 제시된 바와 같이 만약 국제 로동 계급이 새 전쟁 위협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로동 계급 대렬의 분렬을 극복하고 통일적인 조직된 력량으로 진출한다면 전쟁은 더는 불가피한 것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광범한 인민 대중들의 평화 옹호 투쟁이 또한 미증유의 규모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각이한 정치적 견해와 신념을 가진、각이한 직업과 년령에 속하는 수억만 인민들이 전쟁을 반대하여 평화를 고수하기 위한 공통된 목적 앞에 결속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광범한 사회층을 망라한 평화 옹호자들의 대렬이 나날이 장성하고 있다。전쟁을 반대하여 궐기한 인민 대중의 투쟁과 력량이 그 규모와 조직성에 있어서 오늘날과 같이 장성된 그러한 시기는 일찌기 력사상에 없었다。

이 모든 사실들과 쏘련、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시종 일관한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의 결과로서 제국주의자들의『힘의 립장에 선』정책은 세계의 도처에서 파탄 상태에 빠지고 있으며 국제 긴장 상태는 점차로 완화의 일로를 걷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측으로부터의 전쟁의 위협이라는 허위 선전으로써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 기도를 음페하는 동시에 군비 경쟁과 전쟁 히스테리를 고취하여 왔다。

그러나『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제국주의 호전 분자들의 낡은 피리는 오늘날 더는 인민들을 기만할 수 없게 되였다。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은 력사적 경험에 의하여 명백히 확증되였다。이 나라들의 대외 정책의 총로선으로 되고 있는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레닌적 원칙은 더욱 더 광범한 사회계의 인정을 받게 되였다。 파멸적인 전쟁이냐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이냐、인민들은 오늘 후자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며 인민의 리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압도적 다수의 인민들、지어는 부르죠아 국가들의 일부 지배층들에 있어서도『힘의 립장에 선』정책의 무의미성과 모험성이 명백하게 되였으며 점점 더 명백하게 되여 가고 있다。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준비 정책의 실패를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군사 쁠럭 내부에는 해결될 수 없는 모순이 있으며 그것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세계 반동의 괴수 미제의 군비 경쟁、군사 쁠럭、전쟁 준비 정책은 그 쁠럭 내부의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을 희생으로 하며 그들을 미제에 예속시키는 방향에서 수행되고 있다。그러니만큼 두 제도간의 평화적 공존의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오늘 미제와 그 추종 국가들 사이의 모순은 날로 로골화되며 격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영 불은 구라파 통일군에서 자기 병력을 축소하였으며 아이스랜드는 자기 국토에서의 미군의 철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토 리사회는 나토의 군사적 의의를 부인하는 경제적 협조를 운운하기 시작하였다。이것은 제국주의 전쟁 진영의 약화를 말해 준다。

이상의 모든 것은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을



비롯한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적 력량이 전쟁을 도발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기도를 능히 분쇄할 수 있을만큼 위력하게 되였으며 따라서 전쟁 도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였으며 만약에 그들이 무모하게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물질적 수단을 가진 정치적、계급적 력량이 조성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의 경제적 기초로서의 제국주의는 아직도 존재한다。그러나 그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확대에 따라 량적으로 현저히 축소되였으며 또 그들 내부에서의 로동운동과 식민지 예속 국가들의 민족 해방 투쟁과 전 세계에서의 평화 옹호 투쟁의 장성、인민들 앞에서의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전쟁 준비 정책의 폭로、제국주의 침략 쁠럭 내부의 모순의 격화에 따라 질적으로 더욱 약화된 제국주의로서 존재하고 있다。전쟁 세력은 평화 력량보다 약하게 되였다。전쟁의 불가피성은 사라졌다。

현 시기에 있어서의 전쟁 방지의 가능성은 대체로 이러하다。

물론 전쟁의 불가피성의 소멸은 그 자체로서 곧 전쟁 야기의 일체의 가능성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평화 력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에는 전쟁 도발에 대하여 절실한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호전 세력이 역시 존재한다。그들에 의하여 일부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발광적인 군비 경쟁과 전쟁 히스테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제국주의자들 호상간、혹은 그들과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전쟁의 위협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가일층의 격화에 따라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제국주의 렬강 호상간의 갈등과 모순이 격화되여 가고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 대한『십자군』적 원정이 여전히 망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진영 제 인민을 비롯한 전 세계 평화 력량은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에 대하여 부단히 경각성을 높이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백방으로의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 자체의 물질적、정치적 력량을 확대 공고화하는 조건하에서만 전쟁은 능히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 ❋ ❋

세계적 범위에서의 전쟁 방지의 가능성의 조성은 우리 나라에서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전쟁 도발을 방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유리한 객관적 조건으로 된다。

세계 혁명의 일환으로서의 조선 혁명의 발전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국제적 사태 발전에 일정하게 의존한다。

특히 우리 혁명은 국제 반동의 원흉이며 새 전쟁 도발 음모의 괴수인 미 제국주의자들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고 있는만큼 더욱 그러하다。

지나간 조선 전쟁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무엇보다도 조선을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에서의 군사 전략 기지로 만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미제 침략자들에 의한 조선에서의 전쟁 도발은 끝 세계적 전쟁을 위한 하나의 전제 혹은 도화선을 의미한다。

그러니만큼 오늘 세계적 전쟁 도발의 가능성의 희박화는 동시에 조선에서의 전쟁 재도발의 가능성도 또한 약화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국제 령역에서 발생한 정치적、계급적 력량 관계의 변동 및 이에 따르는 현 시기 전쟁 방지의 가능성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평화적 조국 통일 로선의 하나의 중요한 객관적 기초로 되고 있다。

한편 우리 당의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은 또한 우리 나라 내부 생활에서 발생되고 있는 력량 관계의 변동、무엇보다도 특히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의 정치、경제、군사적 위력의 강화에 튼튼히 의거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추진은 우리 혁명의 민주 기지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가일층 강화하며 그를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쟁취할 결정적인 물질적 력량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또 우리 당의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은 조국의 통일과 그의 평화적 실현에 대한 전체 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에 튼튼히 의거하고 있다。

정치적 견해、신앙 및 직업의 차이를 불문하고 애국적 전체 조선 인민들은 한결같이 국토의 량단 및 남북 조선의 인공적 분렬이란 전 민족적 불행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 인민들의 공통된 리해는 파괴적인 전쟁의 재도발을 반대하며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는 데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요컨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현실적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그의 실현을 위한 조선 인민의 자체 력량과 그를 지지하는 국제적 혁명 력량이 조선에서 분렬 상태를 지속하며 파괴적 전쟁을 재발시키려는 국내외의 원쑤들의 힘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데 있다。

우리 조국은 통일되여야 한다。이것은 조선 사회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며 정의로운 사업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우리 당의 정책은 이상에서 지적한 현실적 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고 있다。그러므로 그것은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책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객관적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선 인민들 자체의 결정적 투쟁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들이 세계 사회주의 진영과의 국제주의적 친선과 뉴대를 더욱 강화하며、한편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 있게 진행하여 우리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철벽같이 다지며 국내의 전체 애국적 력량을 우리 당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킨다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오늘 전체 조선 인민은 우리 당 제三차 대회의 력사적 결정을 받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선량한 인민들과 함께 조선 인민은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사랑한다。인민들의 머리 속엔 인류에게 막대한 희생과 불행을 강요한 二차에 걸친 세계 전쟁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평화는 인민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쟁취되여야 한다는 것을 인민들은 알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시기 전쟁 방지의 가능성에 관한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의 결론은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명을 받으면서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고무적 힘으로 되고 있다。

국제적 발전의 현 행정은 이 명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 주고 있다。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후 수개월 동안에 국제 긴장 상태의 더 한층의 완화를 의미하는 적지 않은 사변들이 발생하였다。

만약 전체 진보적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을 경각성있게 주시하고 제때에 그를 분쇄하여 자기들의 평화 위업을 견결히 고수한다면 전쟁은 능히 방지될 것이다。

정 오 표

| 호수 | 페지 | 행 | 정 | 오 |
|---|---|---|---|---|
| 제七호 | 三八 | 하단 四 | 자본주의적 요소 | 사회주의적 요소 |

근로자 제八호
(루계 제一二九호)
一九五六년 八월 二〇일 인쇄
一九五六년 八월 二五일 발행
편집 위원회
발행소 근로자사
인쇄소 로동신문 출판 인쇄소
(값 四五원)
ㄱ—40206호